

# 월간 북한 동향

Monthly Report on North Korea

---

2016년 12월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 이용자를 위하여

1. 본 자료는 북한 자료의 특수성과 언어표현 등의 차이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 가. 개황 · 동향 제목 · 동향 개요 · 주간 보도일지 · 주요인물 동정

#### ○ 언어표현: 국립국어원 기준 적용

※ 단, 북한 원문에서 사용된 표현 중 우리식 표현이 없거나 북한의 고유명사인 경우 인용부호와 함께 북한 표현 그대로 사용

### 나. 대내 · 대남 · 대외 동향 주요 내용

#### ○ 언어표현·인용부호: 북한 원문 그대로 적용

※ 예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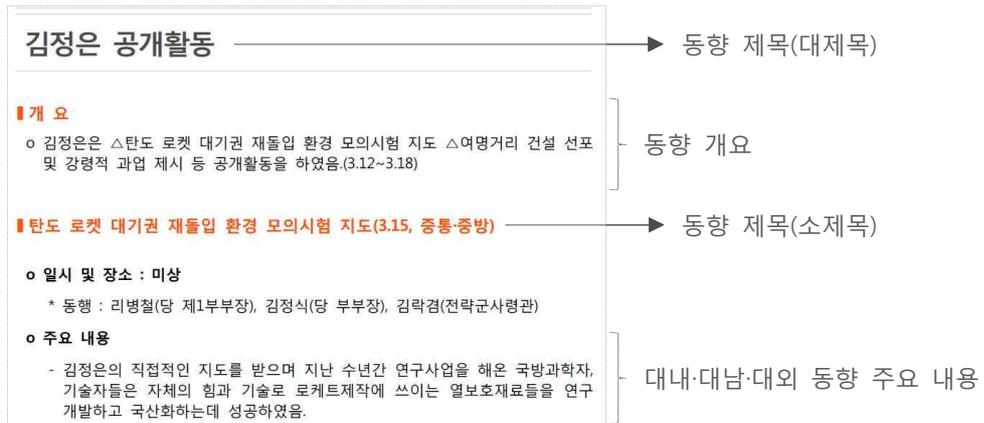
- ① 북한 정권 및 주요 인사들에 대한 찬양 수식어는 삭제  
ex)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 ‘김정은’
- ② 국내 주요 인사 실명 비난 시, 이름의 성(姓)만 공개 ex) 홍길동 → ‘홍00’
- ③ 특정 행사 관련 내용은 △일시 및 장소 △참석자(주석단, 동행, 맞이 등) 별도 정리

#### ○ 북한식 표현 설명

- 간단한 표기차이는 ‘괄호’로 보완 ex) 루출(누출), 폐허(폐허)
- 북한식 표현 중 상세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각주’ 처리

#### ○ 띄어쓰기: 가독성을 고려하여 적용

※ 대내·대남·대외 동향 페이지 구성



2. 본 자료의 내용들은 북한 주요 언론매체들의 원문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각 자료들의 출처를 밝혔습니다.

- 주간 보도일지: 북한 주요 언론매체들의 ‘보도일’을 기준으로 작성
- 동일한 내용을 다수 매체에서 보도한 경우, 보도순서에 따라 출처 표기

3. 본 자료에 수록된 자료는 북한 자료의 특수성으로 인해 표현 및 시기에 있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료 참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황

### 대내동향

## 6 김정은 공개 활동

- 6 전선 포병부대들의 포병 대집중 화력 타격연습
  - 8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 지휘성원들의 전투 비행술 경기대회-2016'
  - 9 새로 개건된 강원도 '12월6일 소년단 야영소'
  - 10 원산 구두공장
  - 11 제525군부대 직속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의 전투훈련장
  - 12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
  - 13 원산 군민발전소
  - 14 조선인민군 15호 수산사업소
  - 15 금수산궁전 참배
  - 15 김정일 사망 5돌 중앙 추모대회
  - 17 '마식령 스키경기-2016'
  - 18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별 방사포병 중대 사격경기
  - 18 길영조 영웅 추격기 연대 전투 비행사들의 야간 습격 전투 비행훈련
  - 19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 개회사
  - 20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 2일차 회의 지도
  - 21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 3일차 회의 지도, 결론 및 폐회사
  - 21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
  - 22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 참가자들과 모란봉악단·공훈 국가합창단 합동공연 관람
- ## 24 내각 총리 현지 시찰
- ## 26 「조선중앙통신사」 창립 70돌 기념보고회 진행

- 27 조선중앙통신사 '상보(詳報)', 수해 복구 성과 선전 및 발표
- 28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 제8차 대회 진행
- 30 「노동당 중앙위」 '200일 전투' 승리적 결속 보도문 발표
- 32 최우수 제품들, '12월 15일 품질메달' 수여
- 33 함북도 북부 피해 복구 전투 주제 미술전시회 개막
- 34 김일성·김정일 청년강국의 2016년 선전

## 대남동향

- 36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담화
- 38 「교육위원회」 대변인 담화
- 40 「통일대회합 북·남·해외측 준비위원회」 공동 보도문
- 41 「조평통 정책국」 대변인 담화
- 42 「미군 범죄 진상규명 전민특위 북측본부」 대변인 담화
- 43 北, '대통령 탄핵안 국회통과' 보도
- 44 '2016년 남조선 인권유린 조사 통보' 발표
- 45 北,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

## 대외동향

- 46 「외무성」 대변인 담화
- 48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성명
- 49 「조선 평화옹호 전국 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
- 50 北 상임대표, 유엔 사무총장에게 편지 전달

# Contents

- 51 「국제문제 연구소」 공개 질문장
- 53 「北赤 중앙위」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 54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 57 「외무성 조약법규국」 국장 담화
- 59 「해외동포 원호위」 대변인 담화
  
- 60 **주요인물 동정**
  
- 78 **월간 보도일지**
  
- 125 **금월의 역사**

# 개황

## 대내동향

### 김정은 공개 활동

- 김정은은 △전선 포병부대들의 포병 대집중 화력 타격연습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 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2016' △새로 개건된 강원도 '12월6일 소년단 야영소' △원산 구두공장 공개 활동을 하였음.(12.1~9, 중통)
- 김정은은 △제525군부대 직속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의 전투훈련장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 △원산 군민발전소 △조선인민군 15호 수산사업소 공개 활동을 하였음.(12.11~12.15, 중통)
- 김정은은 △금수산궁전 참배 △김정일 사망 5돌 중앙 추모대회 △'마식령 스키경기 -2016'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별 방사포병 중대 사격경기 △길영조 영웅 추격기 연대 전투 비행사들의 야간 습격 전투 비행훈련 공개 활동을 하였음. (12.17~12.21, 중통·중방)
- 김정은은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 개최사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 2일차 회의 지도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 3일차 회의 지도, 결론 및 폐회사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 참가자들과 모란봉악단·공훈 국가합창단 합동공연 관람 등 공개 활동을 하였음. (12.24~12.29, 중통)

### 내각 총리 현지 시찰

- 내각 총리, 북창·덕천지구 중요 기업소들 현지 시찰 보도(12.10, 중통·중방)
- 내각 총리, △황해남도 물길 1단계 공사 준공식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 및 '황해제철 연합기업소' 현지 시찰 보도(12.19~22, 중통)

### 「조선중앙통신사」 창립 70돌 기념보고회 진행

- 「조선중앙통신사」 창립 70돌 기념보고회 진행 보도(12.4, 중통)

## 조선중앙통신사 '상보(詳報)', 수해 복구 성과 선전 및 발표

- 조선중앙통신사 '상보(詳報)', 함북도 북부 피해지역의 수해 복구 성과 선전 및 구체적 실적 발표 보도(12.7, 중통)

##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 제8차 대회 진행

-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 제8차 대회, 12월 6~7일 평양에서 진행(12.8, 중통)

## 「노동당 중앙위」 '200일 전투' 승리적 결속 보도문 발표

- 「노동당 중앙위」 '200일 전투' 승리적 결속 보도문 발표(12.18, 중통)

## 최우수 제품들, '12월 15일 품질메달' 수여

- 천리마 타일공장 타일 및 사리원 대성 타올공장 목욕 수건 등 '12월 15일 품질메달' 수여 모임 진행 보도(12.29, 중통)

## 함북도 북부 피해 복구 전투 주제 미술전시회 개막

- 함북도 북부 피해 복구 전투 주제 미술전시회 개막 보도(12.26, 중통)

## 김일성·김정일 청년강국의 2016년 선전

- 2016년을 김일성·김정일 청년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친 긍지 높은 한 해로 선전 보도(12.29, 중통)

---

## 대남동향

---

###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담화

-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촛불집회를 북풍 조작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 및 반정부 투쟁 선동(12.2, 중통·중방)

- 대북 독자 제재 관련 '아무런 실효도 거둘 수 없는 독자 제재'이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남측 기업'이라 비난(12.4, 중통·중방)

#### 「교육위원회」 대변인 담화

- 국정 역사교과서 검토본 공개(11.28) 관련 비난 및 선동(12.2, 중통)

#### 「통일대회합 북·남·해외측 준비위원회」 공동 보도문

- 통일대회합 실무회의 관련 공동 보도문 발표(12.2, 중통)

#### 「조평통 정책국」 대변인 담화

- 우리 군 지휘부의 활동·발언 등을 '도발책동, 안보불안 조성행위'로 매도하며, '여론을 안보문제로 돌리려는 술책'이라고 비난(12.3, 중통·중방)

#### 「미군 범죄 진상규명 전민특위 북측본부」 대변인 담화

- 우리 방위사업청장의 '방위 분담금 인상 수용' 발언(11.21) 비난 및 반정부 투쟁 선동(12.3, 중통·중방)

#### 北,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 보도

- 北,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12.9)' 보도(12.10, 중통·중방)

#### '2016년 남조선 인권유린 조사 통보' 발표

- 「남조선 인권 대책 협회」, '2016년 남조선 인권유린 조사 통보' 발표 및 반정부 투쟁 선동(12.23, 중통·중방)

#### 北,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

- 北,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12.30, 중통·노동)

---

---

## 대외동향

---

### 「외무성」 대변인 담화

- UN 안보리 제재결의 2321호 채택을 '주권침해 행위로 전면 배격' 및 '보다 강력한 자위적 대응조치' 주장(12.1, 중통·중방·평방)

###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성명

-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 관련 비난 및 위협(12.2, 중통·중방)

### 「조선 평화옹호 전국 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

-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 관련 비난 및 반정부 투쟁 선동(12.2, 중통·중방)

### 北 상임대표, 유엔 사무총장에게 편지 전달

- 유엔 주재 北 상임대표, 유엔 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내(12.5) 유엔 안보리 對北 제재 결의(2321호)의 법률적 근거 해명 요구(12.6, 중통)

### 「국제문제 연구소」 공개 질문장

- '미국이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정치화·극대화함으로써 우리(北)를 고립 압살해 보려는 모략소동에 매여달리고 있다'며 공개 질문장 발표(12.7, 중통)

### 「北赤 중앙위」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 美 하원의 '재미한인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관련 비난(12.9, 중통)

###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을 통해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의 '남북 이산가족 문제 조속 해결 촉구 보고서' △유엔 안보리의 '北 인권상황 논의' 회의(12.9) 개최 관련 비난(12.10~12.11, 중통)

- 韓·美 외교·국방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1차 회의 진행은 "핵전쟁 위험을 가증시키는 도발책동"이라고 비난 및 '병진노선 고수·핵 무력 강화' 강조(12.27, 중통)

#### 「외무성 조약법규국」 국장 담화

- 안보리 제재결의 제2321호 관련 '적법성을 상실한 범죄적 문서로 단호히 규탄·배격' 및 '조선반도에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전쟁뿐'이라고 위협(12.22, 중통)

#### 「해외동포 원호위」 대변인 담화

- 외환법 위반혐의로 총련 일꾼·동포 등에 대한 강제 수색 진행 관련 '총련을 비법적 활동 단체로 날조하여 탄압하기 위한 구실 마련'이라고 비난(12.25, 중통)

## 김정은 공개 활동

### ■ 개 요

- 김정은은 △전선 포병부대들의 포병 대집중 화력 타격연습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 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2016 △새로 개건된 강원도 '12월6일 소년단 야영소' △원산 구두공장 공개 활동을 하였음.(12.1~9, 중통)
- 김정은은 △제525군부대 직속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의 전투훈련장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 △원산 군민발전소 △조선인민군 15호 수산사업소 공개 활동을 하였음.(12.11~12.15, 중통)
- 김정은은 △금수산궁전 참배 △김정일 사망 5돌 중앙 추모대회 △'마식령 스키경기 -2016'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별 방사포병 중대 사격경기 △길영조 영웅 추격기 연대 전투 비행사들의 야간 습격 전투 비행훈련 공개 활동을 하였음. (12.17~12.21, 중통·중방)
- 김정은은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 개최사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 2일차 회의 지도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 3일차 회의 지도, 결론 및 폐회사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 참가자들과 모란봉악단·공훈 국가합창단 합동공연 관람 등 공개 활동을 하였음. (12.24~12.29, 중통)

### ■ 전선 포병부대들의 포병 대집중 화력 타격연습(12.2, 중통)

- 일시 및 장소 : 미상
  - \* 영접 : 황병서, 리영길, 박정천, 조선인민군 군단장들
- 김정은의 훈련 명령을 받들고 2017년도 전투정치 훈련에 일제히 진입하여 훈련 혁명의 불길, 군력 강화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며 백두산 혁명 강군의 전투력을 무진막강하게 다져나갈 천만 장병들의 거세찬 훈련열, 투쟁열이 전군에 세차게 끓어 번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파멸의 나락에 굴러 떨어지면서조차 불장난질로 잔명을 부지해 보려고 미쳐 날뛰는 남조선 박OO 역적패당에 대한 증오를 한껏 폭발시키며 백두산 총대의 멸적의 뿔성이 울렸음.

- 김정은이 12월 1일 조선인민군 전선 포병부대들의 포병 대집중 화력타격 연습을 지도하였음.
  - 김정은은 총대로 조국과 인민을 사수하고 반미 대결전의 최후 승리를 이룩하여야 할 인민군대에 있어서 훈련 강화는 혁명의 운명, 혁명무력 건설의 성패를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나선다고 하면서 모든 부대, 구분대들이 당의 훈련제일주의 구호를 높이 들고 훈련을 드세게 내밀어 전군이 백두산 훈련열풍으로 용암처럼 끓어 번지게 해야 한다고 말하였음.
  - 김정은은 2017년은 수령님 탄생 105돐, 장군님 탄생 75돐, 조선인민군 창건 85돐을 맞는 뜻깊은 해라고 하면서 필승의 신심 드높이 새 년도 전투정치 훈련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다음해를 전투력 강화의 자랑찬 성과로 빛내이자고 말하였음.
- 김정은은 감시대에 올라 조선인민군 전선 포병부대들의 화력진지 배치 상태와 포병 대집중 화력타격 연습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음.
- 전선 포병부대들의 포병 대집중 화력타격 연습은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린 가련한 제 집안의 처지도 모르고 어리석은 망상에 사로잡혀 부질없는 전쟁 객기를 부리며 또다시 서남전선 수역 우리의 면전에서 무모하고 졸망스러운 포사격질을 해댄 남조선 괴뢰 역적패당에게 우리 천만군민의 무서운 보복 열기와 백두산 총대의 위력을 다시 한 번 똑똑히 보여주는 계기로 되며 엄중한 최후의 경고로 전달될 것임.
- 포병 대집중 화력타격 연습에는 남조선괴뢰 서북 도서방위 사령부 관하 6 해병 려단과 연평 부대를 쓸어버릴 임무를 맡고 있는 서남전선 수역 최전방의 섬 방어대 포병 구분대들과 서울시를 비롯한 전선 주 타격 방향과 보조 타격 방향의 남조선 작전지대 군사대상물들과 반동 통치기관들을 타격할 임무를 맡고 있는 전선 중장거리 포병 구분대들이 참가하였음.
- 김정은이 내린 명령에 따라 조선인민군 전선 포병부대들이 드디어 섬멸의 포문을 열었음.
  - 지진이 일어난 듯 땅이 뒤흔들리고 하늘에서는 우뢰가 울었으며 흙먼지가 삽시에 포진지를 휘감았음.
- 김정은은 “희한한 광경이요, 대단하오 대단해, 저속에서 무엇이 남아나겠소, 일단 싸움이 벌어지면 남조선 것들을 저렇게 답새겨야 하오, 첫 타격에 남조선 것들의 대응의지를 완전히 꺾어놓고 그래도 단말마적으로 발악하는 놈들이 있다면 아우성 칠 놈, 비명지를 놈도 없이 모조리 쓸어버려야 하오, 우리 영용한 포병들이 겨냥하는 곳마다가 적들의 송장더미로 되게 해야 하오”라고 힘주어 말하였음.
- 김정은은 포사격 경기와 포병 대집중 화력타격 연습이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였음.
- 김정은은 현대전은 포병전이며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이 립체적으로 벌어지는 현대 전쟁에서 포병의 활용은 작전과 전투의 운명을 좌우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고 하면서 포병 무력 강화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였음.

- 김정은의 훈련 지도를 받은 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포병 전투원들은 전투정치 훈련에서 당의 5대 훈련 방침과 4대 훈련 원칙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 전쟁 환경에 접근한 실전적 훈련을 힘 있게 벌려 수령 결사옹위의 총대, 혁명의 총대, 계급의 총대, 사회주의 조국 수호의 총대를 더욱 날카롭게 버림으로써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총대로 기어이 이룩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음.

## ■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 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2016' (12.4, 중통)

- 일시 및 장소 : 미상

\* 영접 : 황병서, 리명수, 박영식, 리영길, 조남진, 조경철, 최영호, 손철주

\* 관람 : 리수용, 리만건, 오수용, 김영철, 리일환, 리영래, 리병철, 인민군 장병들

-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 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 - 2016》이 성대히 진행되었음.

- 김정은이 전투비행술 경기대회를 지도하였음.

- 오전 9시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이 리설주와 함께 비행장에 나왔음.

- 김정은에게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명예 위병대대장이 영접보고를 하였음.

-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이 개막사를 하였음.

- 그는 이번 경기대회를 통하여 모든 비행지휘 성원들과 전투 비행사들이 용감 무쌍한 김정은 비행대의 전투적 기상을 만방에 떨치고 조국 통일을 위한 싸움 준비 완성에 적극 이바지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고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 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 - 2016》의 개막을 선언하였음.

- 김정은은 주석단 감시대 앞에 정렬한 비행 지휘성원들과 전투 비행사들에게 출격 명령을 내렸음.

- 김정은은 비행지휘 성원들과 전투 비행사들의 치렬하고 열띤 경기모습을 보며 비행술이 높다고 만족을 표시하면서 비행훈련을 강화하여 모든 비행사들을 비행 전투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게 준비시켜야 한다고 말하였음.

- 김정은은 비행지휘 성원들과 전투 비행사들은 《우리는 당의 출격명령만 기다린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여 일단 최후 공격명령이 내리면 일격에 대지를 박차고 날아올라 침략의 본거지들을 가차 없이 초토화해버리고 남진하는 인민군 부대들에 진격의 대통로를 열어주라고 강조하였음.

- 경기대회가 끝나자 경기 참가자들과 관람자들은 백두산 혁명 강군의 강화발전을 위해 불면불휴의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고 있는 김정은에게 영광과 감사를 드리면서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 올리었음.
- 전군의 장병들이 김정은의 새 년도 전투정치 훈련명령 관철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때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 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 대회 - 2016》은 훈련 혁명의 불 바람 속에서 인민군대를 백번 싸우면 백번 다 이기는 무적필승의 최정예 혁명 강군으로 억척같이 다짐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의로운 진군 길을 가로막아 보려고 부질없이 발버둥질 치는 철천지 원수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붓고야 말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멸적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힘 있게 과시한 뜻깊은 계기로 됨.

## ■ 새로 개건된 강원도 '12월6일 소년단 야영소'(12.7, 중통)

- 일시 및 장소 : 미상
  - \* 동행 : 조용원, 마원춘
  - \* 영접 : 박정남, 야영소 일군들
- 김정은의 친어버이 사랑에 떠받들리워 강원도 12월6일 소년단 야영소가 개건됨으로써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되었음.
  - 강원도 12월6일 소년단 야영소는 강원도 안의 학생 소년들이 누구나 찾아와 야영 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종합적인 과외 교양기지임.
- 김정은은 야영소의 전경을 환한 미소 속에 바라보며 강원 땅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야영기지, 사랑의 보금자리가 또 하나 생겼다고 하면서 강원도 인민들이 큰일을 했다고 치하하였음.
- 김정은은 연혁 소개실을 비롯한 야영소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개건 정형과 운영준비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sup>1)</sup>하였음.
- 김정은은 강원도 12월6일 소년단 야영소가 훌륭히 개건될 수 있는 것은 이 땅 위에 후대들을 위한 창조물들을 하나라도 더 마련하여 조국의 미래를 아름답게 가꾸겠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닌 강원도 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불타는 마음이 안아온 자랑스런 결실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였음.
- 김정은은 강원도 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힘을 믿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로 뚫고 나가면서 소년단 야영소를 훌륭히 개건하였다고 하면서 제일 만족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당의 국산화 방침을 높이 받들고 개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을 도 자체로 생산하여 리용한 것이라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강원도 인민들이 발휘한 자력자강의 정신을 따라 배워야 한다는 최상 최대의 믿음을 안겨주었음.

1) 료해 : 『북한어』 사정이나 형편이 어떠한가를 알아봄

- 김정은은 강원도 12월6일 소년단 야영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아이들이 밝게 웃어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음.
- 강원도 12월6일 소년단 야영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우리의 아이들을 잘 키워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려는 김정은 동지의 은덕이 야영생들에게 그대로 가닿게 함으로써 당의 은정어린 야영소에서 언제나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 소리, 《세상에 부림 없으라》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었음.

## ■ 원산 구두공장(12.9, 중통)

- 일시 및 장소 : 미상
  - \* 동행 : 조용원
  - \* 영접 : 박정남, 공장 일군들
- 김정은이 생산 정상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는 원산 구두공장 공개 활동을 하였음.
- 원산 구두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난해 11월 공장을 세 번째로 방문하면서 자주 찾아와 신발생산 정형을 알아보겠다는 약속을 한 김정은을 손꼽아 기다리며 인민들에게 안겨줄 질 좋은 구두 생산에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음.
- 김정은은 낮익은 공장 일군들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며 공장의 로동계급이 총정의 70일전투 기간에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당 제7차 대회를 맞이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200일 전투 목표를 지난 8월말까지 빛나게 완수하느라 정말 수고들이 많았다고, 공장을 우리나라 신발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꾸려준 당의 의도를 실천으로 받들어가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였음.
- 김정은은 사출 작업반, 제화 직장, 갑피 직장, 도안실 등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 보면서 생산 정형과 제품의 질에 대해 구체적으로 료해하였음.
- 김정은은 민족적 자존심이 강한 우리 인민은 제 것에 대한 사랑의 정신이 불보다 뜨겁다고 하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하나의 제품을 생산해도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최상의 질적 수준에서 다양하게, 인민들의 호평과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안겨줌으로써 인민들이 우리의 것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페부<sup>2)</sup>로 절감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김정은은 원산 구두공장을 돌아보니 종업원들이 사회주의 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리고 있다는 것이 알린다고 하면서 공장의 안팎을 정성껏 관리해가고 있는 그들의 공장애를 높이 평가하였음.

2) 페부 : 『북한어』 ①‘허파’, ‘페’ ②마음의 깊은 속.

- 김정은은 원산 구두공장 앞을 지나다가 예고 없이 들렸는데 높이 울리고 있는 생산 정상화의 동음소리를 들으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하면서 당에서 깊이 관심하는 공장답게 만리마를 탄 기세로 계속 혁신, 계속 전진 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였음.
- 원산 구두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속에서 자기들의 일터에 또다시 찾아와 안겨준 김정은에게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하면서 가까운 앞날에 우리의 것을 대표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매봉산》 상표를 단 명제품, 명상품들을 짹짹 생산하여 김정은의 현지 언급을 기어이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음.

### ■ 제525군부대 직속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의 전투훈련장(12.11, 중통)

- 일시 및 장소 : 미상
  - \* 영접 : 황병서, 리명수, 리영길, 박정철, 김영복
- 김정은이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 직속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의 전투훈련을 지도하였음.
- 김정은은 감시소에서 인원 및 기재들의 동원 준비상태와 훈련 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음.
- 훈련은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 직속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의 실전능력을 판정하고 남조선 작전지대 안의 특정 대상물들에 대한 타격 방법의 현실성을 확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음.
- 김정은이 훈련을 시작할 데 대한 명령을 내리였음.
  - 전투원들은 적의 대상물을 둘러싸고 있는 높은 산 고지들에서 활공 락하산을 타고 날새마냥 소리 없이, 눈 깜박할 사이에 침투하여 외부 경비 역량 소멸을 위한 과감한 전투행동을 진행하였음.
  - 콩 볶듯이 울리는 총성과 수류탄이 작렬하는 속에 역적패당들을 모조리 사살한 전투원들은 심판대에 꿰어앉힐 악당들을 생포하고 연기처럼 사라졌음.
  - 전투원들은 훈련을 통하여 연평도의 불바다를 기어이 청와대의 불바다로 이어 놓고 남조선 괴뢰들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영원히 처박아 넣을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원수 격멸의 투지와 용맹을 남김없이 과시하였음.
- 김정은은 결전의 하루를 위해 훈련의 백날, 천날을 위훈의 날과 달로 이어오며 부대를 멸적의 전투대오로 강화시킨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을 높이 평가하였음.
- 김정은은 특수작전 부대의 전투원들이 남반부를 활무대로 삼고 과감한 전투행동을 벌리자면 행군훈련, 사격훈련, 수영훈련, 자연계선 극복훈련과 야전 생존

능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을 실전의 분위기 속에서 강도 높게 진행하여 유격전의 능수들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김정은은 훈련에서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철저히 실현할 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와 전투력 강화에서 나서는 전략적 과업들을 제시하였음.
- 김정은은 훈련에 참가한 전투원들을 만나 훈련을 성과적으로 진행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면서 뜨겁게 고무 격려해 주었으며 특수작전대대에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주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음.
  - 기념촬영이 끝나자 전투원들은 최고사령관을 우러러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 올리었음.
  - 김정은은 환한 미소를 짓고 따뜻이 손을 저어 답례하였음.
-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 직속 특수작전대대의 전투원들은 조국과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군 지도의 빛나는 자욱을 새겨 가는 김정은에게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최고사령관이 언제나 명령만 내린다면 단숨에 괴뢰들을 쓸어버리고 청와대로 가는 길을 믿음직하게 열 불같은 맹세를 다짐하였음.

## ■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12.11, 중통)

- 일시 및 장소 : 미상
  - \* 참가 : 최룡해, 김기남, 리일환, 리명길
- 김정은이 「조선 농업근로자 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음.
  - 금수산궁전에서 김정은과 기념사진을 찍는 행복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가슴은 설레이고 있었음.
  - 김정은이 촬영장에 나오자 전체 참가자들은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터쳐 올리면서 사회주의 농업근로자들의 뜻깊은 대회합을 마련해주고 「조선 농업근로자 동맹」의 강화발전을 위한 불멸의 대강을 안겨주었으며 오늘은 자기들과 기념사진을 찍어주는 김정은에게 영예와 감사를 드리었음.
- 김정은은 충정과 애국의 한마음으로 조국의 전야에 순결한 피와 땀을 묻으며 투쟁하여 온 대회 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음.
- 김정은은 참가자들이 농업근로자 동맹을 영원히 수령님들의 농근맹, 당의 농근맹으로 강화 발전시키며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의 최후 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였음.
- 전체 참가자들은 김정은이 보내준 서한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조선 농업근로자 동맹」을 대중적 정치조직으로 끊임없이 강화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수호전의 전조선인 농업 전선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었음.

## ■ 원산 군민발전소(12.13, 중통)

- 일시 및 장소 : 미상
  - \* 동행 : 최룡해, 오수용, 김용수, 조용원
  - \* 영접 : 박정남, 도(道)와 발전소의 일꾼들
  
- 김정은이 자력갱생의 창조물인 원산 군민발전소 공개 활동을 하였음.
  - 강원도 인민들이 불굴의 정신력의 창조자, 자력갱생의 선구자의 영예를 안고 세상이 보란 듯이 일떠세워<sup>3)</sup>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 선물로 준 원산 군민발전소는 서해로 흐르는 강물을 동해로 돌려 락차고(낙차고)를 조성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규모가 큰 류역 변경식 수력발전소임.
  
- 김정은은 친히 《원산 군민발전소》라는 이름도 지어준 김정일의 애국헌신과 인민 사랑의 체취가 깃들여있는 원산 군민발전소 건설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공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었음.
  
- 김정은의 의도를 새겨 안고 떨쳐 일어난 강원도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방대한 발전소 건설 공사를 도 자체의 힘으로 완공하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였음.
  
- 김정은은 원산 군민발전소가 완공됨으로써 도의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전력과 주민 생활용수, 공업 및 관개용수 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 되었을 뿐 아니라 이 지역의 자연 풍치를 더욱 아름답게 변모시킴으로써 강원도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그토록 마음 쓰던 김정일의 념원을 빛나게 실현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었다고 못내 기뻐하였음.
  
- 김정은은 원산 군민발전소를 돌아보면서 강원도 인민들의 투쟁 본태를 대하니 이런 강의한 인민과 함께라면 천리 불속이라도 헤쳐갈 수 있으며 사회주의 강대국의 문패를 달게 될 날을 앞당겨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였음.
  
- 김정은은 강원도 인민들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더욱 커졌다고 하면서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창조와 건설의 동음 소리를 더 높이 울리며 모든 면에서 전국의 앞장에서 달려 나가라고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음.
  
- 원산 군민발전소의 전체 종업원들은 충정의 200일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최후의 돌격전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와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 기념사진도 찍어준 김정은에 대한 고마움에 걱정을 금치 못하면서 김정은의 현지 언급을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었음.

3) 일떠서다 : 『북한어』 ①(비유적으로) 건축물 따위가 건설되어 땅 위에 솟다 ②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다

## ■ 조선인민군 15호 수산사업소(12.15 중통)

- 일시 및 장소 : 미상
  - \* 동행 : 황병서, 서흥찬
  - \* 영접 : 조선인민군 제549군부대 지휘관들, 수산사업소 일꾼들
  
- 황금해 역사창조에서 인민군대가 계속 앞장서나갈 데 대한 김정은의 뜻을 새겨 안고 당 정책 결사관철의 투쟁정신과 기풍을 높이 발휘한 인민군대 안의 수산 부문 일꾼들과 어로전사들이 12월 14일 현재 연간 물고기 잡이 계획을 170%로 넘쳐 수행하는 자랑스러운 성과를 이룩하였음.
- 김정은이 지식경제 시대와 사회주의 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개건 현대화 되었으며 전례 없는 물고기 대풍을 마련한 조선인민군 15호 수산사업소 공개 활동을 하였음.
- 지난해 11월 이곳 수산사업소를 찾은 김정은은 불과 며칠 사이에 수천 t의 물고기를 잡은 어로전사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면서 연간 물고기생산 목표도 제시해주었으며 사업소를 현대적인 수산기지로 전변시킬 것을 직접 제안하고 개건 현대화공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었음.
  - 김정은의 사랑과 배려에 충정으로 보답하기 위해 산악같이 떨쳐나선 군부대와 사업소의 일꾼들, 종업원들, 군인 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조선인민군 15호 수산사업소가 로동당 시대의 자랑스러운 건축술을 과시하며 멋들어지게 꾸러졌을 뿐만 아니라 희한한 물고기 대풍을 안아왔음.
- 김정은은 군부대 지휘관들과 수산사업소 일꾼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며 그 동안 많은 물고기를 잡으면서도 사업소를 바다가 풍치와 어울리게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없는 현대적인 수산기지로 전변시키느라 정말 수고들이 많았다고 치하하였음.
- 김정은은 조선인민군 15호 수산사업소를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하면서 올해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이룩한 놀라운 성과들을 통하여 황금해의 역사를 계속 줄기차게 이어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였음.
- 김정은은 조선인민군 15호 수산사업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다음 해에도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당의 수산정책 관철에서 선봉에 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음.
- 조선인민군 15호 수산사업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자기들의 일터에 또다시 찾아와 은덕을 안겨준 김정은에게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하면서 김정은의 현지 언급을 관철하여 황금해로 빛나는 내 조국의 푸른 바다에서 《바다 만풍가》의 흥겨운 노래 소리가 영원히 울려 퍼지게 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었음.

## ■ 금수산궁전 참배(12.17, 중방)

- 일시 및 장소 : 12.17 09:00(평양時), 평양市 금수산궁전
  - \* 동행 :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 당·국가·군대의 책임일꾼 등
- 김정일 사망 5돌에 즈음하여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 일꾼들이 12월 17일 금수산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시했음.
- 김정은이 오전 9시 금수산궁전을 찾았음.
- 김정일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그리움과 경모의 정이 차 넘치는 금수산궁전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음.
-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입상이 있는 홀에 들어섰음.
  - 김일성과 김정일의 입상에 김정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음.
- 김정은은 참가자들과 함께 김일성과 김정일의 입상을 우러러 경의를 표시하였음.
- 참가자들은 김정은의 지도를 받들어 백두의 대업을 끝까지 완성하며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펼친 휘황한 설계도 따라 김정일의 한생이 어린 사회주의 조선을 천하제일 강국, 인민의 낙원으로 반드시 일떠세우고야 말 불타는 맹세를 다졌음.
- 김정일을 천만년 모시고 김정은의 지도 따라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신심 드높이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임.

## ■ 김정일 사망 5돌 중앙 추모대회(12.17, 중방)

- 일시 및 장소 : 12.17, 평양市 금수산궁전
  - \* 주석단 : 김정은,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 일꾼들과 우당위원장, 당, 무력기관, 내각, 근로단체 일꾼들 등
  - \* 참가 : 평양시 안의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 내 기관, 기업소, 공장, 협동농장 일꾼들 등
- 김정일 사망 5돌 중앙 추모대회가 17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엄숙히 거행됐음.
  - 당과 인민의 수령인 김정일의 태양상이 추모대회장 정면에 있었음.
- 최태복이 사회를 했음.
  -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겠음.

- 김정일 사망 5돌 중앙 추모대회 추모사를 최룡해가 하겠음.
  - 김정일이 우리 곁을 떠난 때로부터 5돌이 되었음.
  - 김정일의 생애는 애국적이며 헌신적인 한생이었음.
  - 백두산 대국이 영원히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기틀과 우리 인민이 대대손손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부강번영의 토대를 마련해준 김정일의 생애와 업적은 김정은 시대와 더불어 길이 빛날 것임.
  - 모두 다 김정은을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의 두리에 뭉쳐 김정일의 위업, 주체혁명 위업의 빛나는 완성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야 함.
- 결의연설을 하겠음. 먼저 김기남 동지가 연설하겠음.
  -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김정일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고 있음.
  - 김정일은 조선노동당을 주체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고 당의 위업, 주체혁명 위업을 이끌어 온 희세의 정치원로임.
  - 우리는 김정일을 조선노동당의 영원한 수령으로 모시고 김정은의 지도 따라 이 땅 위에 천하제일 강국, 인민의 낙원을 반드시 일떠세우고 조국 통일과 주체혁명 위업의 승리를 앞당겨 이룩하겠다는 것을 굳건히 맹세함.
- 다음은 황병서 동지가 연설하겠음.
  - 김정일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우리 인민군 장병들은 최대의 경의와 인사를 삼가 드리고 있음.
  - 우리 인민군대는 김정일에 대한 도덕 의리심을 목숨보다 더 귀중히 간직하고 김정은의 지도 따라 당 제7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총 공격전을 힘 있게 벌여 이 땅위에 통일되고 부강 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겠다는 것을 엄숙히 맹세함.
- 다음은 전용남 동지가 연설하겠음.
  - 김정일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5백만 청년전위들의 마음은 지금 금수산궁전으로 끝없이 굽이쳐 오고 있음.
  - 김정일은 조선 청년운동의 영원한 지도자이며 우리 청년들의 아버지임.
  - 우리 청년들은 김정은의 지도를 받들고 조선혁명의 침로 따라 언제나 곧바로 폭풍쳐 내달리는 주체혁명 위업 수행의 맹장 부대가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엄숙히 맹세함.
- 김정일 사망 5돌 중앙 추모대회 폐회를 선언함.
- 김정일을 추모하여 조포(弔砲)가 발사되었음.
  - 전체 참가자들은 김정일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했음.

- 김정일을 천세만세 받들어 모시고 김정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강성 번영하는 백두산 대국의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임.

## ■ '마식령 스키경기-2016'(12.20, 중통)

- 일시 및 장소 : 미상
  - \* 동행 : 황병서, 최룡해, 리수용, 오수용, 리영길, 리일환, 김용수, 조용원, 한광상, 박정천, 마원춘 등
-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해 나가는 진군 길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이 만남을 과감히 박차며 충정의 200일 전투에서 대승리를 이룩한 격동적인 시기에 《마식령 스키경기-2016》이 성대히 진행되었음.
- 김정은이 《마식령 스키경기-2016》을 관람하였음.
- 김정은이 경기장에 도착하자 선수들과 관람자들은 주체 체육의 강화발전과 인민들의 문명한 생활을 위해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는 김정은을 우러러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 올리었음.
- 김정은은 김일국 체육상으로부터 경기진행 계획과 선수들의 준비 정형에 대한 보고를 받고 《마식령 스키경기-2016》을 보았음.
- 김정은은 우리나라에서는 1949년 1월에 스키협회가 창립되고 1965년에는 국제 스키련맹에 가입하였다고 하면서 세계적으로 스키운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끊임없이 높아지고 그 기술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데 맞게 스키종목을 하루 빨리 세계적 수준에 끌어올려 국제 경기들에서 당당히 우승해야 한다고 말하였음.
- 김정은은 우리 선수들이 진행하는 스키경기를 보니 사람들의 용감성과 대담성을 키워주고 민첩성도 높여주며 체력을 전면적으로 발달시키는 체육 종목인 스키 종목에 큰 힘을 넣는 것과 함께 스키운동을 대중화, 생활화하면 앞으로 세계적인 스키 강자들을 얼마든지 배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였음.
- 김정은은 체육은 조국의 존엄을 떨치고 인민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 주는데서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나라의 체육을 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였음.
- 남녀 스키선수들이 참가하여 평시에 련마한 체육 기술과 불굴의 투지를 남김없이 시위한 경기가 성과적으로 끝나고 시상식이 있었음.
- 경기 참가자들은 몸소 자기들의 경기를 보아주며 은덕을 베풀어주고 나아갈 앞길을 밝혀준 김정은에게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김정은의 뜻을 받들어 체육 강국 건설구상 실현에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었음.

## ■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별 방사포병 중대 사격경기(12.21, 중통)

- 일시 및 장소 : 미상
  - \* 영접 : 황병서, 리명수, 리영길, 박정천, 포병 지휘관들
  
- 김정은이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별 방사포병 중대 사격경기를 지도하였음.
- 경기는 추첨의 방법으로 정한 대연합부대별 포사격 순차에 따라 대기진지에서 50m의 거리를 이동하여 강평원이 지적하는 목표에 1개포로 시사를 하고 중대의 모든 포들이 일제사격을 한 다음 은폐(은폐)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음.
- 김정은은 감시소에서 사격경기 진행 형식과 방법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경기를 시작할 데 대한 지시를 주었음.
  - 사격구령이 내리자 경기 참가자들은 적진을 일격에 불바다로 만들 원수 격멸의 의지를 안고 명중 포성을 울렸음.
  - 경기 참가자들은 평시 훈련을 통하여 일당백으로 다져온 멸적의 포 사격술로 명중포성을 울림으로써 원수들이 목숨보다 귀중한 사회주의 조국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려고 달려든다면 씨도 없이 무자비하게 짓밟개버릴 백두산 혁명 강군의 멸적의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었음.
- 김정은은 대연합부대별 방사포병 중대 사격경기가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음.
  - 김정은은 올해는 일당백 포병들이 울리는 포성으로 새해의 첫 대문을 열었고 한해의 마감을 장식한다고, 지휘관들과 포병들은 포병 싸움준비 완성에 커다란 힘을 넣고 있는 당의 의도를 잘 알고 지는 해, 뜨는 달을 훈련장에서 맞고 보냄으로써 일당백 포병의 명중 포화로 남진의 길을 열고 전승의 경축포성을 높이 울리자고 말하였음.
- 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사격경기 참가자들은 정초부터 한해의 마지막 달까지 끊임 없는 선군혁명 지도의 강행군 길을 이어가며 일당백 포병들이 멸적의 포성을 힘차게 울리도록 이끌어준 김정은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훈련장에 충정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침으로써 뜻깊은 2017년을 포병 싸움준비 완성의 자랑스런 성과로 빛내여 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었음.

## ■ 길영조 영웅 추격기 연대 전투 비행사들의 야간 습격 전투 비행훈련 (12.21, 중통)

- 일시 및 장소 : 미상
  - \* 동행 : 황병서, 리명수, 리영길, 리병철
  - \* 영접 : 김광혁, 군부대의 지휘관들

- 김정은이 길영조 영웅 추격기 련대 전투 비행사들의 야간 습격 전투 비행훈련을 지도하였음.
  - 김정은은 야간에 불의출동에 의한 추격기들의 지상 대상물 습격훈련을 통하여 항공군 안의 모든 부대들이 실전에 접근한 실용적 훈련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전투 비행사들을 적들의 그 어떤 대상물도 무자비하게 격멸 소탕할 수 있게 준비시키시기 위해 길영조 영웅 추격기 련대에 불의에 명령을 하달하고 현지에서 전투능력을 직접 판정 검열하였음.
- 김정은은 전투 비행사들의 훈련을 볼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조국의 령공 방위는 날씨와 시간을 보아가며 하는 것이 아니며 현대전은 가장 극악한 조건 속에서 진행되는 것만큼 오늘과 같은 훈련을 계속 진행하여 전투 비행사들을 그 어떤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맡겨진 공중전투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유능한 전투 비행사, 만능비행사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김정은은 훈련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전투 비행사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었음.
- 김정은은 전투 비행사들이 당의 출격명령만 기다리며 낮이나 밤이나 조국수호의 하늘 길을 날고 있기에 오늘과 같은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맡겨진 비행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고 하시면서 길영조 영웅 추격기 련대에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의 감사를 주고 대를 이어 전해갈 은덕을 베풀어주었음.
- 길영조 영웅 추격기 련대의 전체 군인들은 전투 비행사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며 믿음과 정으로 품어주고 이끌어주는 김정은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하면서 전군의 모범으로 내세워 준 김정은의 의도를 심장 깊이 새기고 강도 높은 비행 훈련을 생활화해 나감으로써 언제나 내 나라의 푸른 하늘에 백전백승의 비행운만을 아로새겨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었음.

## ■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 개회사(12.24, 중통)

- 일시 및 장소 : 2016. 12. 23, 평양시 평양체육관
- 김정은이 23일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에서 개회사를 하였음.
- 김정은은 당 제7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장엄한 투쟁 속에서 우리 당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를 가지게 되는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 김정은은 동북아 현 정세를 비롯한 제반 국제정치 정세와 남조선 정세를 통보하고 오늘의 국제정세 상황은 당이 택한 병진사상과 로선이 얼마나 정당하고 정확하였는가를 더욱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고 강조하였음.
  -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가 비상히 높아지는데 겁을 먹은 제국주의 반동 세력들이 유엔 《제재 결의》를 조작해내고 《단독 제재》까지 떠벌이며 발악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승리에 대한 가장 명백한 증명이라고 하면서 올해 우리 당의 정확한 령도 밑에 혁명 발전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한데 대하여 긍지 높게 말하였음.

- 김정은은 우리 당이 이번에 소집한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를 당 대회 못지않게 중시하는 의도에 대하여 언급하고 초급당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우리 당의 강화 발전과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 전진을 위한 중요한 담보라고 강조하였음.
- 이번 대회에서 지난 기간 초급당 조직들의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뿐만이 아니라 초급당 조직들에 내재하고 있는 결함, 초급당 위원장들의 역할과 사업 작풍에 관한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 총화하고 당의 강화발전과 당 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초급당 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일 데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토의할 데 대하여 말하였음.
- 김정은은 이번 대회가 전체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 열의와 적극적인 참가 밑에 원만히 진행됨으로써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 수행에서 력사적인 이정표를 마련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 개회를 선언하였음.

## ■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 2일차 회의 지도(12.25, 중통)

- 일시 및 장소 : 2016. 12. 24, 평양시 평양체육관
-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 2일 회의가 24일에 진행되었음.
- 김정은의 지도 밑에 회의는 계속되었음.
- 대회에서는 각급 단위 초급당 위원장들이 자기 단위 당 사업에서 이룩한 고귀한 성과와 경험, 교훈들에 대하여 토론들을 계속하였음.
  - 토론자들은 당의 기층조직인 초급당을 수령 결사옹위, 당 정책 결사관철의 드팀 없는 신념과 굴함 없는 공격정신으로 만장약된 강력한 전투대오로, 당 중앙위원회 뜨락과 잇닿아 있는 혁명의 전초기지로 다져나가는 데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분석 총화 하였음.
  - 토론들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일군들의 이신작칙<sup>4)</sup>이 몇 백 마디의 말보다 더 힘 있는 정치 사업이며 당 사업을 현장 정치사업, 사람들의 마음과의 사업으로 방향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고 한 김정은의 참뜻을 다시금 깊이 새겨 안았음.
  - 대회에서는 현 시기 일부 단위들에서 초급당 사업이 당의 의도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 있는 편향과 부족점들이 심도 있게 분석되고 호상 비판들이 신랄하게 진행되었으며 결함들에서 교훈을 찾고 철저히 극복하기 위한 방도들이 토의되었음.

4) 이신작칙 : 『북한어』 언제나 군중의 앞장에 서서 자기의 실천모범으로 사람들을 교양하며 이끌고 나아가는 것 또는 그러한 공산주의적 품성이나 사업 작풍.

- 토론자들은 초급당 조직들을 당 정책 관철의 직접적인 조직자, 선전자, 집행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수령 결사옹위, 당 정책 결사관철의 전초기지로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 결의들을 피력하였음.

## ■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 3일차 회의 지도, 결론 및 폐회사 (12.26, 중통)

- 일시 및 장소 : 2016. 12. 25, 평양시 평양체육관
-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가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25일 폐막(폐막)되었음.
- 김정은이 이번 대회의 3일 회의를 지도하였음.
- 대회에서는 토론들이 있었음. 토론자들은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지며 당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에 대하여 언급하였음.
  - 당의 기본 전투단위인 초급당 조직들을 강화해 나갈 때 전당이 강화되고 혁명 위업의 승리를 이룩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더 굳게 새겨 안게 되었다고 그들은 일치하게 강조하였음.
- 김정은이 결론을 하였음.
  - 김정은의 강령적 지침을 받아 안으며 대회 참가자들은 주체혁명의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초급당 사업에서 획기적 전환을 일으켜 당 제7차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진격로를 열어나가야 할 직접적 담당자라는 무한한 영예와 책임감을 가슴 깊이 새기었음.
- 김정은이 폐회사(폐회사)를 하였음.
- 김정은의 지도 밑에 진행된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는 조선로동당의 지도 따라 사회주의 강국 건설과 주체혁명 위업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폭풍쳐 나아가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을 적극 고무 추동한 혁명적 총진군 대회로 우리 당 역사에 길이 아로새겨지게 될 것임.

## ■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12.29, 중통)

- 일시 및 장소 : 미상
  - \* 참가 : 황병서, 최룡해, 김기남, 최태복, 리수용, 김평해, 리만건, 오수용, 곽범기, 김영철
- 김정은은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음.

- 김정은이 촬영장에 나오자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 올라 하늘땅을 진감하였음.
- 김정은은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손 저어 답례하였음.
- 김정은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 정신, 숭고한 도덕 의리심을 지니고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기본 전투진지를 믿음직하게 지켜가고 있는 대회 참가자들을 다시 한 번 열렬히 축하하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음.
- 김정은은 대회 참가자들과 전당의 초급당 위원장들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을 틀어 쥐고 당의 사상 관철전, 당 정책 옹위전의 전초선을 지켜선 기본 전투단위의 정치 위원답게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였음.
- 전체 대회 참가자들은 김정은이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에서 제시한 강령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초급당 조직들의 역할을 비상히 높여 우리 당을 백절불굴의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며 주체혁명 위업, 사회주의 강국건설 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총돌격, 총 매진해 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었음.

## ■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 참가자들과 모란봉악단·공훈 국가합창단 합동공연 관람(12.29 중통)

- 일시 및 장소 : 12.28, 평양
  - \* 참가 : 황병서, 최룡해, 김기남, 최태복, 리수용, 김평해, 리만건, 오수용, 곽범기, 김영철
-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 공훈 국가합창단 합동 공연이 28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었음.
-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이 관람석에 나왔음.
  - 전체 출연자들과 대회 참가자들은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면서 김정은에게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었음.
  - 김정은은 환호를 올리는 대회 참가자들에게 손 저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었음.
- 우리 당 사상 전선의 제일 나팔수들인 모란봉 악단과 공훈 국가합창단의 예술인들은 천만군민을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최후 승리를 위한 총 공격전으로 고무 추동하는 혁명의 노래, 만리마 시대의 진군가를 특색 있게 형상하여 뜻깊은 공연무대에 펼쳐 놓았음.
  - 공연을 보면서 대회 참가자들은 주체의 당기를 높이 추켜들고 나가는 혁명의 참된 지휘성원,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의 기사로 자라나 준엄한 혁명의 년대기 마다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 온 성스러운 나날들을 감회 깊이 추억하였음.

- 김정은의 두리에 사상과 의지로 굳게 뭉쳐 김일성 - 김정일주의 기치 높이 혁명의 천만리 길을 역세게 걸어 나가는 참된 전위대오가 있기에 조선로동당의 위업은 필승 불패이라는 확신을 안겨준 공연은 혼성 합창 《천리라도 만리라도》로 끝났음.
  - 김정은을 우러러 또다시 터치는 폭풍 같은 《만세 !》의 환호가 장내를 진감하였음.
- 김정은은 출연자들의 공연 성과를 축하하고 대회 참가자들이 당 제7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사명과 본분을 다해 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였음.
  - 전체 대회 참가자들은 김정은이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에서 제시한 강령적 과업을 관철하여 주체혁명의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초급당 조직들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전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 - 김정일주의화 실현에 적극 이바지해 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었음.

---

---

## 내각 총리 현지 시찰

---

### ■ 개 요

- 내각 총리, 북창·덕천지구 중요 기업소들 현지 시찰 보도(12.10, 중통·중방)
- 내각 총리, △황해남도 물길 1단계 공사 준공식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 및 '황해제철 연합기업소' 현지 시찰 보도(12.19~22, 중통)

### ■ 북창·덕천지구 중요 기업소 현지 시찰(12.10, 중통·중방)

- 박봉주(내각 총리)가 북창·덕천지구의 중요 기업소들을 현지에서 료해하였음.
  - 총리는 북창 화력발전 연합기업소, 덕천지구 탄광 연합기업소 덕천 탄광, 승리 자동차 연합기업소를 돌아보면서 생산 및 능력 확장공사 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음.
  - 평양 화장품 공장을 방문하여 현대화 공사 정형을 료해하고 건설을 다그칠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 현지에서 관계부문 일군협의회들이 진행되었음.
  - 협의회들에서는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들어주고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여 전력과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이 토의되었음.
  - 또한 기술자, 기능공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생산 공정의 기술개건을 다그치며 새 형의 화물 자동차를 계열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들도 강구되었음.

### ■ 황해남도 물길 1단계 공사 준공식(12.19, 중통)

- 일자 : 2016. 12. 19.(월)
  - \* 참가자 : 박봉주(내각 총리), 광범기 등과 관계부문 일군들, 황해남도 물길 1단계 공사에 참가한 건설자들,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 조선(북한)에서 황해남도 물길 1단계 공사가 완공되었음.
  - 황해남도 물길 1단계 공사가 완공됨으로써 나라의 서부지구에 자연흐름식 관개 체계가 형성 되어 해주, 벽성, 웅진, 강령지구의 전야들에서 가물을 모르고 안전하게 알곡을 증산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었음.

- 준공식에서는 황해남도 물길 1단계 공사를 완공한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되었음.

## ■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 및 '황해제철 연합기업소' 현지 시찰(12.22, 중통)

- 박봉주(내각 총리)가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를 현지에서 료해하였음.
  -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70일 전투에 이어 200일 전투기간에도 여러 대의 전기기관차를 제작하였음.
  - 총리는 기업소의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생산적 양양<sup>5)</sup>의 불길을 일으켜 나가고 있는 로동계급의 투쟁을 고무해 주었음.
  - 이어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전기기관차를 국내산 자재와 원료에 의거하여 생산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이 강구되었음.
- 한편, 총리는 황해제철 연합기업소를 돌아보면서 증산투쟁을 힘 있게 벌려 주체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5) 양양 : 『북한어』 흐름이나 과정이 드높아지거나 활발하여짐.

---

---

## 「조선중앙통신사」 창립 70돌 기념보고회 진행

---

### ■ 개 요

- 「조선중앙통신사」 창립 70돌 기념보고회 진행 보도(12.4, 중통)

### ■ 주요 내용

- 일자 : 2016. 12. 4.(일)
  - \* 참가자 : 김기남(조선로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출판보도 부문 일군들, 기자, 편집원, 공로자들, 총련 조선통신사 대표단 성원들
- 조선중앙통신사<sup>6)</sup>가 창립 70돌을 기념하였음.
  - 조선중앙통신사는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유일한 공식 대변자이며 당 사상전선의 전초선에 서 있는 위력한 보도기관임.
  - 조선중앙통신사는 창립 후 지난 70년간 당의 주체적 통신보도 사상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주체혁명 위업수행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음.
  - 보고회에서는 조선중앙통신사 기자, 번역원, 종업원들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 축하문이 전달되었음.

---

6) 조선중앙통신사 : 1946년 12월 5일 '북조선통신사'로 창립, 1948년 '조선중앙통신사'로 변경. 조선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가 통신기관

---

---

## 조선중앙통신사 '상보(詳報)', 수해 복구 성과 선전 및 발표

---

### ■ 개 요

- 조선중앙통신사 '상보(詳報)', 함북도 북부 피해지역의 수해 복구 성과 선전 및 구체적 실적 발표 보도(12.7, 중통)

### ■ 주요 내용

- 일자 : 2016. 12. 6.(화)
- 조선중앙통신사는 함북도 북부 피해 복구 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 승리를 쟁취한데 대한 상보를 발표하였음.
- 상보는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를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한 전 인민적 대진군의 장엄한 승전포성이 200일 전투의 주 타격 방향인 함북도 북부 피해 복구 전선에서 높이 울려 퍼져 온 나라를 끝없는 환희로 격동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음.
  - 당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전대미문의 혹심한 피해 후과를 가시기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떨쳐나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조국의 북변천리에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드놀지<sup>7)</sup> 않을 사회주의 보금자리를 보란 듯이 일떠세웠음.
  - 두 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11,900여 세대의 단층·3층·5층 살림집들과 100여 개의 탁아소, 유치원, 학교, 병원, 진료소들이 새로 건설되고 15,000여 세대의 살림집들이 보수되었으며 190여만 m<sup>2</sup>의 두만강 제방 및 호안성토, 수십 km의 강하천 정리공사, 수백 km의 철길, 도로, 수십 개의 다리 복구가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영웅 신화, 로동당시대 인민사랑의 새 전설이 조국의 북변 땅에 수놓아졌음.
  - 상보는 대재앙의 폐허우(위)에 사회주의 선경거리, 선경마을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 피해지역의 수만 세대 주민들이 따스한 보금자리를 펴고 배움의 종소리, 행복의 웃음소리가 랑랑히 울려 퍼진 것은 온 나라의 일대 경사이며 당 제7차 대회가 열린 역사적인 2016년의 최절정을 이루는 위대한 승리라고 강조하였음.

---

7) 드놀다 : 『북한어』《(사람의 의지, 생각, 각오 등이) 굳건히 자리잡히지 못하고 이리저리 기울어지거나 흔들리다》를 비겨 이르는 말

---

---

##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 제8차 대회 진행

---

### ■ 개 요

-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 제8차 대회, 12월 6~7일 평양에서 진행(12.8, 중통)

### ■ 주요 내용

-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 제8차 대회가 6일과 7일 평양에서 진행되었음.
  - 대회에서는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 제7차 대회 이후 농근맹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고 주체혁명의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 동맹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하며 당의 믿음직한 인전대, 외곽단체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수행해나가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토의하였음.
- 대회에는 각급 농근맹 대표회들에서 선거된 대표자들이 참가, 련관 부문의 당, 행정 일군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음.
- 대회는 다음과 같은 의정을 승인하였음.
  1.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
  2.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
  3.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 규약 개정에 대하여
  4.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 중앙 지도기관 선거에 대하여
- 대회에서는 김정은이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주체의 사회주의위업 수행에서 농업 근로자 동맹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하여》가 전달되었음.
-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 제8차 대회에 즈음하여 세계 여러 나라 정당들과 농업 근로자 조직들, 사회단체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온 데 대하여 소개되었음.
-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리명길 농근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하였음.
  - 김정은은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전 동맹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 것을 농업 근로자 동맹의 총적 목표, 총적 투쟁과업으로 제시하였다고 보고자는 강조하였음.
  - 보고자는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 제7차 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 밑에 농업 근로자 동맹이 광범한 농업 근로자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그들을 사회주의 농촌테제와 당의 농업혁명 방침 관철에 힘 있게 조직 동원함으로써 사회주의 농촌 건설사에 빛나는 위훈을 아로새겨온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 농업 근로자 동맹이 모든 농근맹 조직들을 당의 령도 밑에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참다운 수령의 대중적 정치조직으로 끊임없이 강화 발전시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 농업 근로자 동맹이 당의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로선과 사회주의 농촌 테제를 관철하는 사업을 중심과업으로 틀어쥐고 농업 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을 사회주의 농촌 건설과 당의 농업혁명 방침 관철을 위한 투쟁에 힘 있게 불러 일으켜온데 대하여 말하였음.
- 보고자는 동맹을 주체혁명 위업, 선군혁명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당의 믿음직한 옹호자, 방조자로 내세워준 수령님과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은 농업 근로자 동맹의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첫째 의정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음.
  - 대회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가 채택되었음.
- 둘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신창성 농근맹 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이 하였음.
- 셋째 의정이 토의되었음.
  -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 규약 개정에 대한 결정서가 채택되었음.
- 대회에서는 넷째 의정을 토의하였음.
  -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 중앙위원회를 선거하였음.
  - 추천된 농근맹 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 후보자들 모두가 농근맹 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으로 선거되었음.
  -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 중앙검사위원회를 선거하였음.
  - 추천된 농근맹 중앙검사위원회 위원후보자들 모두가 농근맹 중앙검사위원회 위원으로 선거되었음.
- 대회에서는 농근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 전원회의 결정내용이 발표되었음.
- 농근맹 중앙위원회 집행위원회가 선거되었음.
  - 농근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리명길, 부위원장으로 한경송, 려혜정, 길상봉, 오기백이 선거되었음.
- 농근맹 중앙위원회 조직위원회가 조직되었음.
- 농근맹 중앙위원회 부장들과 농근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농업 근로자》 주필이 임명되었음.
- 대회에서는 농근맹 중앙검사위원회 제8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 진행된 농근맹 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거결과가 발표되었음.

---

---

## 「노동당 중앙위」 '200일 전투' 승리적 결속 보도문 발표

---

### ■ 개 요

- 「노동당 중앙위」 '200일 전투' 승리적 결속 보도문 발표(12.18, 중통)

### ■ 주요 내용

- 당의 전투적 호소 따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총궐기, 총 매진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전개한 200일 전투가 12월 15일 승리적으로 결속되었음.
  - 200일 전투는 역사적인 70일 전투에서 이룩된 승리를 확대·발전시켜 당 제7차 대회 정신을 보위하고 2016년을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기 위한 전 인민적인 연속 공격전, 강행 돌파전이었으며 전례 없는 자력자강의 창조대전, 만리마속도 창조대전이었음.
  - 역사에 류례 없는 큰물 피해를 입은 함북도 북부지역 인민들을 위하여 나라의 인적, 물질, 기술적 잠재력을 총동원, 총집중하는 전대미문의 복구전쟁을 치르고 200일 전투의 각 방면에서 방대한 전투 목표를 앞당겨 점령한 것은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국력의 무한대한 중심을 시위하는 장쾌한 기적적 사변임.
  - 200일 전투의 철야진군 속에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돌파구가 열리고 사회주의 문명의 튼튼한 도약대가 마련되었음.
  - 공업부문에서 200일 전투 총생산액 목표를 119%로 넘쳐 수행하고 수천여 개의 공업기업소들이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기한 전에 초과 완수하였음.
  - 과학기술 부문에서 우리나라(북한)에서 처음으로 250kw 풍력발전기를 개발하고 초고전력 전기로용 전극생산 기술을 완성한 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과학기술적 문제들이 해결되고 첨단기술 산업을 창설하기 위한 준비사업이 적극 추진되었음.
  - 전력, 석탄 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고 금속공업, 철도운수 부문의 실적이 비약적으로 높아져 200일 전투 승리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기계, 화학, 건재 공업을 비롯한 기초공업 부문에서 전례 없는 생산적 양양이 일어났음.
  - 농산과 과수·수산부문에서 극심한 이상고온 속에서도 례년(예년)에 없는 알곡 생산 성과가 이룩되고 희한한 과일대풍, 《이채어경》이 펼쳐져 온 나라를 황금벌, 황금해 소식으로 흥성거리게 하고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었음.
  - 국산화의 세찬 열풍 속에서 우리의 원료, 자재, 설비들이 수없이 개발·생산되고 우리식의 현대화가 힘 있게 추진 되었으며 우리 상표를 단 경공업 제품들이 쏟아져 나와 자력자강을 생명선으로 하는 자립경제의 토대가 더욱 튼튼해졌음.

- 두만강 연안의 북변 천리에 사회주의 선경거리, 선경마을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홍건도 간석지 1단계, 황해남도 물길 1단계, 류경 안과 종합병원, 보건 산소 공장을 비롯한 만리마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도처에 일떠섬으며 려명거리 건설도 빠른 속도로 추진되여 완공을 가까이하고 있음.
- 김일성종합대학과 전국의 110여 개의 대학들에서 교수내용의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와 교실과 실험 실습실들의 다기능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고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실시에서 뚜렷한 전진이 이룩되었으며 수많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과학기술 보급 거점들이 번듯하게 꾸러졌음.
- 우리(북한)의 녀자축구 선수들이 2개의 월드컵을 련이어 들어 올린 것과 같은 통쾌한 체육신화들이 창조되고 노래 《전진하는 사회주의》와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 《야전렬차》, 음악 무용이야기 《청춘의 자서전》, 예술영화 《우리 집 이야기》를 비롯한 사상 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 작품들이 창작 되여 천만군민의 혁명적 열정과 전투적 사기를 크게 북돋아 주었음.
- 200일 전투의 총적 목표가 달성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높은 고지를 확고히 점령할 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가지게 되었음.
- 우리(북한) 당은 모든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이 200일 전투에서 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두 번째 해 2017년에 보다 큰 기적적 성과들을 창조함으로써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커다란 보폭을 내짚으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음.

---

---

## 최우수 제품들, '12월 15일 품질메달' 수여

---

### ■ 개 요

- 천리마 타일공장 타일 및 사리원 대성 타올공장 목욕 수건 등 '12월 15일 품질메달' 수여 모임 진행 보도(12.29, 중통)

### ■ 주요 내용

- 일자 및 장소 : 2016. 12. 29.(목), 인민문화궁전
- 조선(북한)에서 올해 생산된 최우수 제품들에 '12월 15일 품질메달'이 수여되었음.
  - 천지 율활유공장의 <<통용기관 율활유 SJ/CH 40>>, 천리마 타일공장의 타일, 사리원 대성 타올공장의 목욕 수건과 세수수건을 비롯하여 국내 최우수 제품으로 평가된 6가지 제품들에 '12월 15일 품질메달'이 수여되었음.

---

## 함북도 북부 피해 복구 전투 주제 미술전시회 개막

---

### ■ 개 요

- 함북도 북부 피해 복구 전투 주제 미술전시회 개막 보도(12.26, 중통)

### ■ 주요 내용

- 일자 및 장소 : 2016. 12. 26.(월), 평양 국제문화회관
  - \* 참가자 : 문화예술 부문 일군들, 시내 근로자들
  - \* 전시 기간 : 2016. 12. 26.(월) ~ 2017. 1. 5.(목)
- 각지 미술 창작가들이 내놓은 조선화, 유화, 수예 등 70여 점의 미술 작품들이 전시회장에 전시되었음.
  - 작품들은 함북도 북부 피해 복구 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 승리를 쟁취할 데 대한 당의 호소에 화답하며 백절불굴의 기개를 만천하에 떨쳐가는 군민의 불굴의 투쟁모습을 생동한 예술적 화폭으로 형상하였음.
  - 로동계급이 설비, 자재 등을 긴급 보장하기 위한 사회주의 증송경쟁을 벌리는 화폭이 작품들에 반영되어 있음.
  - 전대미문의 대재앙이 휩쓸었던 조국의 북변 천리에 번듯하게 일떠선 사회주의 새 거리, 새 마을들의 모습, 즐거운 야영 길에 오른 함북도 북부 피해지역의 학생 소년들의 행복 넘친 모습을 담은 작품들도 있음.

---

---

## 김일성·김정일 청년강국의 2016년 선전

---

### ■ 개 요

- 2016년을 김일성·김정일 청년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친 긍지 높은 한 해로 선전 보도(12.29, 중통)

### ■ 주요 내용

- 2016년은 김일성·김정일 청년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친 긍지 높은 한 해였음.
- 김정은은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창립 70돐을 경축하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도 보내주었음.
  - 청년동맹 창립 70돐을 맞으며 건설된 청년운동 사적관을 방문하여 청년 중시 사항을 전략적 로선으로 틀어쥐고 나갈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는 주체적 청년운동의 승리적 전진과 청년동맹의 강화발전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된 청년들의 의의 깊은 대회합이었음.
  - 이 대회에서 500만 대군을 가진 조선(북한)의 강위력한 청년조직의 명칭은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으로 새로 명명되었음.
- 조선(북한) 청년들은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장들마다 청춘의 기상과 용맹을 떨치었음.
  - 백두산 영웅청년 돌격대원들은 수력발전소 건설의 기존 관례를 깨뜨리고 또 하나의 발전소를 반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일떠세워 백두산 영웅청년 정신을 창조하고 청년대강국의 위력을 만천하에 과시하였음.
  - 수많은 청년들이 돌격대 활동에 참가하여 백 수십 개의 대상을 일떠세우는데 이바지하였으며, 전국적으로 5,900여 명의 청년들이 3년분 이상, 2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였으며 8만여 명의 청년들이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음.
  - 청년 과학자들과 청년들은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벌려 첨단기술의 요새를 점령하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과학 기술적 문제들을 푸는데서 핵심적, 선봉적 역할을 수행하였음.
- 여자축구 선수들이 국제축구연맹 2016년 17살 미만 여자월드컵 경기대회, 20살 미만 여자월드컵 경기대회에서 모두 우승하여 체육신화를 창조한 것을 비롯하여 조선(북한) 청년들이 체육·문화 분야에서도 성과를 안아왔음.

- 많은 청년들이 김일성 청년영예상과 김정일 청년영예상을 수여 받고 청년전위 모범 초급위원회, 청년전위 모범 초급단체의 영예를 지닌 단위들이 증가되었음.
  - 지난 2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설명이 발표 되었을 때 평양시 안의 근로 청년 6만 3천여 명을 비롯한 전국의 백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인민군대 입대, 복대 탄원서를 새기었음.
- 지나온 한 해는 청년대군이 있어 조선(북한)의 미래가 창창한 것임을 증시해 주었음.

##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담화

### ■ 개 요

-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촛불집회를 북풍 조작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 및 반정부 투쟁 선동(12.2, 중통·중방)
- 대북 독자 제재 관련 '아무런 실효도 거둘 수 없는 독자 제재'이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남측 기업'이라 비난(12.4, 중통·중방)

### ■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담화(12.2, 중통·중방)

- 남조선 각 계층의 박OO 퇴진투쟁과 야당들의 탄핵공세에 급해 맞은 괴뢰보수 패당은 《북풍》 조작으로 시시각각 조여드는 숨통을 열어보려고 최후 발악하고 있음.
- 극도의 위기에 몰릴 때마다 《북풍》 조작에 매달리는 괴뢰보수 패당의 상투적인 수법에 이제는 남조선 각 계층이 진저리 나 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적 패당이 한사코 《북의 조종》이니, 《배후세력》이니 하고 떠들어대는 것은 그야말로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의 경각에 달하였기 때문임.
- 박OO의 보수패거리들이 쥘쳐대는 《북풍》 모략 나발은 너무도 황당하여 삼척 동자도 코웃음을 칠 지경임.
- 한두 명도 아니고 100만, 200만이 《북의 조종과 지령》에 의하여 일시에 촛불(촛불)시위투쟁에 나섰다면 남조선 사회가 완전히 《북 체제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남조선 각 계층은 박OO년의 독사 같은 기질과 간교한 기만술수에 각성을 높여야 함.
- 보수패당이 유치하고 비렬한 《북풍》 조작, 《종북》 소동으로 남조선 민심을 기만하고 위기를 모면하던 때는 이미 지나갔음.
- 보수패당이 아직도 궤질대로 궤져 걸레짝 같은 《북풍》 모략 광대극에 기대를 걸고 잔명을 부지해보려 한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 무지하고 가소로운 일은 없을 것임.
- 《북풍》 조작으로 살 구멍을 찾아보려는 괴뢰보수 패당의 어리석은 망동은 쌓이고 쌓인 민심의 분노를 더욱 무섭게 폭발시킬 뿐임.

## ■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담화(12.4, 중통·중방)

- 이 세상 모든 불의의 세력들을 일격에 쓸어버릴 선군의 핵폭풍에 얼흔이 나간 최악의 무리들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음.
- 그 중에서도 제일 가증스러운 것이 불법무법의 대조선 《제재 결의》를 조작해낸 미국상전에 무작정 편승하여 《독자 제재》를 부르짖는 박OO 패당의 망동임.
- 괴뢰들은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 지도기관들과 핵심 일군들을 감히 제재 대상에 추가한 것을 비롯하여 저들의 처지와 능력으로는 할 수도 없는 잡다한 내용들을 《독자 제재안》에 박아 넣었음.
- 지금 북남관계는 박OO 패당의 극악무도한 대결책동으로 하여 그 어떤 인적, 물적 래왕도 전면 차단된 상태에 있음.
- 박OO 패당이 떠드는 《독자 제재》라는 것은 사실상 제 목에 걸린 올라미를 제 손으로 조이는 우둔한 자해 행위에 불과함.
  - 북남관계의 전면차단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도 남측 기업들이며 한강토를 둘로 갈라놓은 군사분계선으로 하여 하늘 길, 배길, 땅 길, 모두가 막힌 인위적인 《섬》에서 시시각각 천문학적 손실을 보고 있는 것도 바로 괴뢰들임.
- 박OO 패당은 우리가 이미 남조선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만 남조선이 우리와 등지고 어떻게 살아나가는지 두고볼 것이라고 당당히 선언한 것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괴뢰들이 쓸데없는 허바닥 놀음에 불과한 《독자 제재》 따위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선택한 정의의 길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망상은 없을 것임.
  - 며칠 전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전선 포병부대들의 포병대 집중 화력타격 연습은 우리 혁명무력의 무자비한 타격에 아우성칠 놈, 비명 지를 놈도 없이 순간에 송장더미가 될 박OO 패당의 비참한 말로를 예고해 주었음.
- 박OO와 그 패당은 심술궂은 양탈질, 헛된 망동에 불과한 제재놀음이 역적무리들의 비참한 종말을 앞당기는 자멸행위로 된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함.

---

---

## 「교육위원회」 대변인 담화

---

### ■ 개 요

- 국정 역사교과서 검토본 공개(11.28) 관련 비난 및 선동(12.2, 중통)

### ■ 주요 내용

- 지난 11월 28일 괴뢰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검토본이라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놀음을 벌려놓았음.
- 이와 관련하여 괴뢰들은 《국정 역사교과서》 검토본에 대한 《의견》을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인 다음 《보충 완성》 과정을 거쳐 다음해 3월경에 남조선 전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들에서 적용하겠다고 떠들어대고 있음.
- 이것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 배격하는 남조선 민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고 대세의 흐름에 공공연히 역행하는 또 하나의 극악한 망동임.
  - 괴뢰들은 지난 시기의 역사교과서가 우리에게 대해 《관대한 서술》을 하였다고 떠들어대면서 이번 《국정 역사교과서》라는데 《북의 핵 및 인권문제》,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등 비난자료들을 배로 늘여 박아 넣었는가 하면 자주 통일, 평화번영의 이정표를 세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음.
  - 반면에 박정희의 독재정치와 친일 관련 내용들에 대한 언급은 극력 줄이고 박정희 역도의 그 무슨 《경제개발 성과》니, 《전 세계에로의 새마을운동 확산》이니 하며 역도의 《치적》을 내세우는 내용들을 추가하였으며 친일파라는 표현은 《친일 인사》로 바꾸어 서술하면서 친일매국 행위를 미화하거나 덮어 버리었음.
- 명백해진 바와 같이 《국정 역사교과서》라는 것은 제 애비의 명예를 회복하고 친미, 친일죄악과 파쇼독재를 정당화하려는 박OO의 흥심을 실현하기 위한 역사 외곡(왜곡) 교과서임.
- 경악스러운 것은 이번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놀음에 인간 오작품에 불과한 최순실과 그 패거리들이 《수석》이요 뭐요 하며 끼여들어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임.
- 제반 사실은 박OO 패당이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반동적인 역사관과 동족 적대감을 주입하여 그들의 자주의식을 싹부터 잘라버리고 남조선 사회의 보수화, 반동화를 대를 이어 조장시키려고 얼마나 발광적으로 날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박OO 패당이 아무리 발악해도 역사의 진실은 가리울 수도 지울 수도 없는 법임.
- 역적패당은 온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
- 남조선 인민들은 역사의 진실에 칼질을 하며 최후 발악하는 박OO 패당을 파멸의 무덤 속에 시급히 처박고 역사 교과서에 정의와 진리의 새 역사를 써나가야 할 것임.

---

---

## 「통일대회합 북·남·해외측 준비위원회」 공동 보도문

---

### ■ 개 요

- 통일대회합 실무회의 관련 공동 보도문 발표(12.2, 중통)

### ■ 주요 내용

- 해내외에서 전 민족적인 통일대회합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가고 있는 속에 이를 위한 북측 준비위원회, 남측 추진기획단, 해외측 준비위원회들의 실무회의가 2016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진행되었음.
- 실무회의에서는 온 민족의 총의를 모아 나라의 평화와 북남관계 개선,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해 전 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반드시 성사 시키기로 하였음.
- 실무회의에서는 전 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의 성사를 바라는 해내외 각 계 각 층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그 명칭을 《조국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 발전을 위한 전 민족 대회》(전 민족 대회)로하기로 하였음.
- 실무회의에서는 전 민족대회 준비를 위한 북, 남, 해외 공동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무적 문제들은 앞으로 계속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음.

---

---

## 「조평통 정책국」 대변인 담화

---

### ■ 개 요

- 우리 군 지휘부의 활동·발언 등을 '도발책동, 안보불안 조성행위'로 매도하며, '여론을 안보문제로 돌리려는 술책'이라고 비난(12.3, 중통·중방)

### ■ 주요 내용

- 최근 남조선에서 각 계층 인민들의 대중적인 박OO 퇴진 투쟁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때에 괴뢰 패당이 《안보위기》를 고취하며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 도발책동에 미친 듯이 매달리고 있음.
- 괴뢰 군부 호전광들이 동족대결과 무모한 군사적 도발책동에 광분하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지금처럼 군사분계선 일대와 남조선 전역에서 우리를 겨냥한 크고 작은 각종 전쟁연습 소동을 동시 다발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벌리면서 《안보위기》를 고취한 적은 일찌기 없었음.
- 괴뢰 패당의 이 모든 책동은 어떻게 하나 우리를 자극하여 북남 사이에 충격적인 무장충돌 사건을 조작해내고 그것을 구실로 남조선 인민들의 박OO 퇴진투쟁을 억누르며 여론의 초점을 《안보》 문제로 돌려 박OO 역도를 파멸의 위기에서 건져 보려는 교활한 술책에 따른 것임.
- 막다른 궁지에 몰리게 되면 《북의 도발위협》을 떠들어대며 《안보》 소동을 일으키고 《계엄령》을 휘둘러 위기에서 벗어나보려 하는 것은 괴뢰패당이 매달려온 상투적 수법임.
- 벼랑 끝에 몰린 박OO 패당이 최후의 발악으로 무분별한 전쟁 도발에 나서지 않는다는 담보는 없으며 그로 하여 피해를 입을 것은 남조선 인민들을 비롯한 우리 민족뿐임.
- 박OO 역도와 괴뢰 보수패당들은 더러운 잔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민족의 머리 우(위)에 핵전쟁의 참화를 들썩우는 것도 서슴지 않을 극악한 동족대결 광신자들임.
- 헤여날 수 없는 위기에 처한 박OO와 보수패당이 《안보》 나발을 불어대며 권력의 자리를 지탱해보려고 발광하고 있지만 비참한 파멸에로 기울어진 운명은 절대로 구원될 수 없음.

---

---

## 「미군 범죄 진상규명 전민특위 북측본부」 대변인 담화

---

### ■ 개 요

- 우리 방위사업청장의 '방위 분담금 인상 수용' 발언(11.21) 비난 및 반정부 투쟁 선동(12.3, 중통·중방)

### ■ 주요 내용

- 알려진 바와 같이 남조선 전역에서 각 계층의 박OO 퇴진 투쟁이 거세차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괴뢰 방위사업청은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의 유지비를 늘일 데 대해 새로운 미 행정부가 요구하면 그를 받아들일 의향을 표시하여 남조선 각 계의 커다란 격분을 자아내고 있음.
- 이것은 미국의 식민지 노복으로 된 것을 감지덕지하게 여기며 매국으로 연명해 가는 특등 하수인, 종미 근성이 뼈 속까지 들어찬 괴뢰 패당만이 부릴 수 있는 추태이며 망동임.
  - 자료에 의하면 괴뢰들은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 유지비의 50%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것은 일본과 도이칠란드 등 미제 침략군이 주둔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국내 총 생산액 대 부담금 비중으로 볼 때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함.
- 경악을 금할 수 없는 것은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이 강탈해낸 거액의 돈을 물 쓰듯 하며 남조선 인민들을 대상으로 살인과 폭행, 강탈과 강간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르다 못해 지어 변놓이<sup>8)</sup>까지 해가며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은 《사회복지 예산》까지 잘라내어 침략군에 더 많은 세금을 바치겠다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음.
- 하기에 남조선 각계는 박OO 패당의 이러한 친미사대 굴종 행위에 대하여 《매국 정권》, 《미국에 대한 백기투항》, 《미국에 혈세를 퍼주겠다는 것》 등으로 단죄 규탄하면서 굴욕적인 《대미 조공》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 상전에게 발라맞출 수만 있다면 인민들의 혈세를 통채로 섬겨 바쳐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런 천하 매국 역적무리들을 어떻게 더 이상 용납할 수 있겠는가.
- 남조선 인민들은 숨통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외세에 강그리 팔아먹지 못해 안달복달하는 박OO 역적 패당을 한시바빠 력사의 무덤에 처넣기 위해 더욱 과감히 투쟁해야 할 것임.

---

8) 변놓이 : 『북한어』 '변놀이', '돈놀이'.

---

---

## 北,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 보도

---

### ■ 개 요

- 北, '박OO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12.9)' 보도(12.10, 중통·중방)

### ■ 주요 내용

- 서울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박OO 탄핵안이 9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음.
- 시민사회단체들과 야당들, 각 계층 인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이날 《국회》에서는 야당들이 제기한 박OO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었음.
- 투표결과 총 투표수 299표 중 234개의 지지표로 탄핵안이 가결되었음.

---

---

## ‘2016년 남조선 인권유린 조사 통보’ 발표

---

### ■ 개 요

- 「남조선 인권 대책 협회」, ‘2016년 남조선 인권유린 조사 통보’ 발표 및 반정부 투쟁 선동(12.23, 중통·중방)

### ■ 주요 내용

- 올해 남조선에서는 내외를 경악시키는 반인륜적, 반인권적 범죄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음.
- 남조선 인권 대책 협회는 희세의 특등 인권 범죄자들을 인권 재판정에 내세워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야말 온 거래와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요구와 의지를 담아 박OO 역적 패당이 2016년에 저지른 수많은 인권유린 범죄들 가운데서 10대 죄악을 조사하여 발표함.
  1. 세인을 경악시킨 천인공노할 집단 유인랍치 범죄
  2. 삶의 터전을 무참히 짓밟는 《싸드》 배치 책동
  3. 민생을 파국상태에 몰아넣은 극악한 반인권 범죄
  4. 파쇼 폭력이 빚어낸 백남기 농민 학살 만행
  5. 죽음의 공포를 몰아온 가슴기 살균제 참사
  6. 현대판 《분서갱유》로 지탄받은 《검은 명단》 사건
  7. 미래에 사망선고를 내린 어린이학대 만행
  8. 《선진 병영문화》의 간판 밑에 성행한 괴뢰군 내 반인권 행위
  9. 온 민족의 격분을 자아낸 일본군 성노예 범죄 백지화 책동
  10. 인권범죄자들의 가증스러운 《북 인권법》 조작 소동
- 괴뢰패당이 2016년에 저지른 추악한 반인권범죄는 력사에 가장 수치스러운 죄악으로 기록되게 될 것임.
- 남조선의 각 계층 인민들은 극악무도한 특등 인권 범죄자들의 죄악을 철저히 결산하고 삶의 권리,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는 새 세상을 하루빨리 안아오기 위해 적극 투쟁하여야 할 것임.

---

---

## 北,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

---

### ■ 개 요

- 北,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12.30, 중통·노동)

### ■ 주요 내용

- 올해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반대하면서 동족대결을 추구한 박OO 역적 패당의 범죄적 망동은 그 어느 때보다 악랄하였음.
- 조국 통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족의 절박한 과제이지만 괴뢰 패당은 극단적인 대결광란과 북침전쟁 소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겨레의 통일념원에 칼질을 하였음.
- 괴뢰들이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 압살 공세로 동족을 해치려고 발광하였지만 우리의 사회주의 불은기는 더욱 펄펄 나뭇기였으며 최후 승리를 향해 돌진하는 우리의 발걸음은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었음.
- 지나온 한 해는 민족을 등지고 외세와 결탁한 한줌도 못되는 반역 무리가 제아무리 동족대결에 피를 물고 날뛰어도 정의와 진리의 힘을 이길 수 없다는 것, 민심의 요구를 짓밟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자들에게 차례질 것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 뿐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음.

## 「외무성」 대변인 담화

### ■ 개 요

- UN 안보리 제재결의 2321호 채택을 '주권침해 행위로 전면 배격' 및 '보다 강력한 자위적 대응조치' 주장(12.1, 중통·중방·평방)

### ■ 주요 내용

-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가 지난 9월에 진행된 우리의 핵탄두 폭발시험을 결코 《제재 결의》를 조작해냈음.
- 이것은 미국의 손탁에 놀아나는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가 자기의 권능을 벗어나 우리 공화국의 자위권을 부정한 또 한 차례의 월권행위, 주권 침해 행위로서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함.
-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지난 9월 우리가 성공적으로 진행한 핵탄두 폭발시험은 우리 국가의 자위적 권리행사를 악랄하게 결코드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핵 위협과 제재 소동에 대한 실제적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서 적들이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맞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초강경 의지의 과시임.
-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는 핵 시험을 포함한 국방력 강화조치들과 같은 주권국가의 자위권 행사를 금지시킬 그 어떤 권한도 없으며 유엔 헌장과 그 어느 국제법전에도 핵 시험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된다고 규제한 것이 없음.
- 지금까지 모든 상임리사국들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핵 시험과 로켓 발사를 수천 번 진행했으나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가 그것을 금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음.
- 뿔럭불가담 나라들을 비롯한 전반적 유엔 성원국들이 국제법 우에 군림하여 열강들의 정치적 도구로 도용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를 시급히 개혁할 것을 절절히 요구하고 있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
- 힘과 강권으로 좌우지되는 현 국제 관계에서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자면 힘이 있어야 하고 적대 세력의 핵 위협에는 핵으로 대응하게 되어 있음.
- 우리가 핵 무장을 국가 로선으로 내세우고 만난을 극복하면서 강력한 억제력을 갖춘 것이 현명하고 정당한 선택이었다는 것이 현실로 증명되고 있음.

- 오바마와 그 졸개 따위들이 비렬한 제재 압박으로 우리 국가의 핵무장 로선을 포기하게 하거나 핵 강국의 지위를 허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한 오산은 없을 것임.
- 우리는 그놈들과 어떠한 상종도 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택한 정의의 길로 더욱 힘 있게 나갈 것임.
-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전면 부정한 이번 《제재 결의》 조작은 우리의 보다 강력한 자위적 대응조치를 불러오게 될 것임.
- 제재는 불피코<sup>9)</sup> 긴장 격화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조선반도와 지역정세가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경우 그 책임은 《제재 결의》 조작의 주모자인 미국이 전적으로 지게 될 것임.

---

9) 불피코 : 『북한어』 피치 못하게 반드시

---

---

##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성명

---

### ■ 개 요

-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 관련 비난 및 위협(12.2, 중통·중방)

### ■ 주요 내용

- 조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는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적대 세력들이 공모 결탁하여 정의로운 주권국가인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합법적 권리를 전면부정하며 무모한 대조선 고립 압살 책동에 계속 매달리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적 입장을 천명함.
  1.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에서 채택한 대조선 《제재결의》를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대미문의 극악한 도발로 규탄하면서 단호히 배격함.
  2.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가 채택한 이번 《제재결의》가 핵무기와 로켓 보유 때문이라면 그 원흉인 미국부터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임.
  3. 우리의 군대와 인민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극악무도한 《제재》를 초강경 대결전으로 짓몽개버리면서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해 나갈 것임.
- 무모한 《제재》는 우리 인민을 세계적 비약의 주인공으로 도약시켰으며 일방적인 군사적 압박은 우리 군대로 하여금 미국 본토를 포함한 온갖 적대 세력들의 아성을 멸적의 타격권 안에 넣게 하였음.
- 제재와 압박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우리의 위력을 더욱 강대하게 만들고 미국의 종국적 파멸만을 촉진하게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공인하는 조미 대결의 역사적 총화임.
- 미국이 터무니없는 구실을 내대며 우리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생존권과 발전권을 전면부정하며 위협해 나설수록 우리의 보다 강력한 대응조치를 불러오게 될 것이며 저들의 안전과 제재에 가담하는 나라들의 경제적 리익을 크게 해치는 비극적 결과만을 산생시키게 될 것임.
- 세계는 우리 공화국의 최고리익을 엄중히 침해한 이번 《제재결의》가 추구하는 약육강식의 강도적 논리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임.

---

---

## 「조선 평화옹호 전국 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

---

### ■ 개 요

-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 관련 비난 및 반정부 투쟁 선동(12.2, 중통·중방)

### ■ 주요 내용

- 최근 박OO역적 패당과 일본반동들의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이 미국의 배후조종과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내외의 커다란 분노와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 미국이 괴뢰들에게 《싸드》 배치를 내리먹이고 일본 반동들과 군사정보 보호협정까지 체결하게 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힘의 우위를 차지하고 주변 대국들을 제압하려는 미국의 패권 전략 실행은 더욱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안전은 엄중한 위협을 받게 되었음.
- 또한 날로 쇠퇴해지고 있는 저들의 정치군사적 힘을 손아래 동맹자들을 리용하여 보강해 보려는 것도 미국이 노리는 또 하나의 목적이기도 함.
- 현실은 미국이야말로 조선반도와 동북 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기를 몰아오는 장본인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음.
-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무모한 대아시아 지배 망상을 버려야 하며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게 될 위험천만한 3각 군사동맹 조작 책동을 걷어치워야 함.
- 박OO역적 패당은 이번 협정체결로 우리 민족의 백년숙적인 일본 반동들의 군국화와 조선반도 재침의 발판을 깔아주고 남조선을 미국의 침략적인 지배전략 실현의 통략물로 더욱더 전략시키는 천추에 용납 못할 민족반역 행위, 사대매국 범죄를 또다시 저질렀음.
- 남조선 각 계층은 남녘땅을 대국들의 핵전쟁 마당으로 만들려는 미국의 책동을 절대로 묵과하지 말아야 하며 더러운 잔명을 부지해보기 위해 미일 상전들에게 굴종하여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서슴없이 팔아먹는 박OO역도를 하루빨리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매국협정을 폐기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야 할 것임.

---

---

## 北 상임대표, 유엔 사무총장에게 편지 전달

---

### ■ 개 요

- 유엔 주재 北 상임대표, 유엔 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내(12.5) 유엔 안보리 對北 제재 결의(2321호)의 법률적 근거 해명 요구(12.6, 중통)

### ■ 주요 내용

- 유엔주재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상임대표가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가 조작해낸 우리의 핵탄두 폭발시험을 걸고드는 《제재 결의》의 법률적 근거를 해명할 것을 요구하여 5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내었음.
- 편지는 얼마 전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가 채택한 《제재 결의》는 공화국의 합법적 권리인 자위권 행사를 전면 부정한 또 한 차례의 월권행위, 란폭한 주권침해 행위로서 이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음.
- 지난 9월에 진행한 핵탄두 폭발시험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핵위협에 대한 대응조치이며 적들이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맞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초강경 의지의 과시임.
-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는 미국의 핵위협과 제재소동에 대처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핵 시험과 탄도 로켓 발사를 문제시할 아무런 권한도 없으며 유엔 헌장과 그 어느 국제법전에도 핵 시험과 탄도 로켓 발사가 국제 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된다고 규제한 것은 없음.
-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는 제재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의 존재 여부부터 결정》할 데 대한 유엔헌장 7장 39조의 요구를 어물쩍 뛰어넘어 월권행위를 하고 국제기구의 생명인 공정성을 잃고 이중기준 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됨.
- 나는 이미 2016년 5월 23일부 편지에서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 대조선 《제재결의》에 그저 넘기기에는 너무도 심각한 법률적 모순이 존재하고 있는데 대하여 명백히 해명할 것을 요구하였음.
- 우리는 유엔 사무국이 마땅히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제기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 평화와 안전 보장을 기본으로 하는 유엔의 사명에 맞게 국제공동체가 납득할만한 책임적이고 공정한 답변을 내놓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함.

---

---

## 「국제문제 연구소」 공개 질문장

---

### ■ 개 요

- '미국이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정치화·극대화함으로써 우리(北)를 고립 압살해 보려는 모략소동에 매여달리고 있다'며 공개 질문장 발표(12.7, 중통)

### ■ 주요 내용

- 미국은 국제무대에서 《인권재판관》이라도 된 듯이 행세하며 《인권문제》를 구실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주권침해 행위를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고 있음.
- 특히 미국은 우리 공화국의 비약적인 발전과 핵능력 고도화에 당황망조하여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정치화, 극대화함으로써 어떻게 하나 우리를 고립 압살해 보려는 비렬한 모략소동에 발광적으로 매여달리고 있음.
- 임기 말에 처한 오바마와 국무장관을 비롯한 당국자들이 저마끔 《북조선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망발을 쫓겨대고 있으며 미국회에서는 《북조선 인권법》을 2022년까지 더 연장하겠다고 고아대고 있음.
- 더우기 가소로운 것은 미국이 죄를 짓고 조국을 버리고 달아난 인간추물들이 생계유지와 연명을 위해 늘어놓은 각종 거짓증언들까지 부여잡고 《북조선 인권상황 청문회》와 같은 터무니없는 모략극들을 런거퍼 벌려놓는 한편 지난 11월에는 유럽동맹과 일본을 사촉하여 유엔총회 제71차 회의 3위원회에서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반공화국 《인권결의》 조작놀음을 또다시 강행한 것임.
-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제문제 연구소는 세계인권의 날을 맞으며 미국의 황당무계한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준렬히 단죄규탄하면서 그 파멸의 불가피성을 선고하기 위하여 이 공개 질문장을 발표함.
  1. 미국은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루고 참다운 인권을 마음껏 향유하고 있는 우리 공화국의 인권실상에 대하여 알기나 하고 날뛰는가.
  2. 미국은 핵 문제와 병행하여 벌리는 《인권》소동이 우리의 참다운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세계 앞에 인정할 수 있는가.
  3. 미국은 해마다 날조해내는 반공화국 《인권결의》들이 국제법에 전면 배치되는 범죄적 문서들이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겠는가.
  4. 미국은 우리 인민의 생명권, 생존권, 발전권을 여지없이 유린한데 대하여 사죄하고 보상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5. 미국은 북대기<sup>10)</sup> 《인권》 문서장들을 날조하여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을 해보려는 모략이 허황한 개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6. 미국은 자격도 명분도 없는 《인권 재판관》 행세를 걷어치우고 피고인으로서 국제법정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는가.
- 손바닥으로는 해를 가리울 수 없듯이 미국이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놓고 이러쿵 저러쿵 해도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참다운 인권을 최상의 높이에서 누려가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은 그 무엇으로도 가리울 수도 부정할 수도 없음.
  - 미국은 제아무리 극단적인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에 매여 달려야 진정한 인권의 리상향인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추호도 건드릴 수 없으며 오히려 저들의 수치스러운 파멸만을 재촉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임.

---

10) 북대기 : ① 짚이나 풀 따위가 함부로 뒤섞여서 엉클어진 몽탕이.  
 ② 『북한어』 버나 밀 따위의 낱알을 털 때 나오는 짚 부스러기, 깍지, 이삭 부스러기 같은 찌꺼기.  
 ③ 『북한어』 아무 쓸모없거나 속이 텅 빈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북한어』 알찬 내용이 없이 거짓말만 늘어놓은 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 「北赤 중앙위」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

### ■ 개 요

- 美 하원의 '재미한인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관련 비난(12.9, 중통)

### ■ 주요 내용

- 지난 11월 29일 미 국회 하원은 우리에게 재미동포들이 북에 살고 있는 가족, 친척들과 만나는 것을 허용할 것과 조선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놀음을 벌리었음.
  - 《결의안》 통과 이후 美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은 《10만 명 재미 조선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느니, 《재미 이산가족들의 소원》이니 하는 희떠운 소리를 늘어놓고 있음.
- 세계가 공인하는 바와 같이 미국은 우리 민족을 분열시켜 흩어진 가족, 친척 문제를 산생시킨 기본 장본인이며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으로 친 혈육들의 상봉마저 이루어질 수 없게 가로막고 있는 원흉임.
- 우리는 지금까지 재미동포들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이 언제든지 그리운 조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았으며 본인들의 의사와 희망대로 가족, 친척들과의 상봉을 실현시켜주는 성의 있는 동포애적 조치들을 다 취하여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국회가 지난 2008년 1월 그 무슨 《재미 이산가족 상봉지원 법안》이라는 것을 꾸며낸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재미동포들의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조작한 것은 이 문제를 반공화국 인권모략 소동의 구실로, 《인도주의》의 허울을 쓰고 우리 민족을 분열시킨 범죄자의 흉악한 정체를 감추기 위한 연막으로 써먹으려는데 기본 목적이 있음.
-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생존권과 발전권을 전면 부정하는 전대미문의 반인륜적인 제재와 압살책동에 광분하면서 세계도처에서 사람들을 경악케 하는 인권유린범죄를 일삼고 있는 미국은 그 무슨 《신뢰구축》과 《인도주의》에 대해 운운할 초보적인 자격도 없음.
- 미국이 실지로 재미동포들의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하여야 하며 우리 민족을 리간시키고 동족 대결을 부추기는 천만부당한 행위에 매달리지 말아야 할 것임.

---

---

##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

### ■ 개 요

-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을 통해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의 '남북 이산가족 문제 조속 해결 촉구 보고서' △유엔 안보리의 '북 인권상황 논의' 회의(12.9) 개최 관련 비난(12.10~12.11, 중통)
- 韓·美 외교·국방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1차 회의 진행은 "핵전쟁 위험을 가증시키는 도발책동"이라고 비난 및 '병진노선 고수·핵 무력 강화' 강조(12.27, 중통)

### ■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12.10, 중통)

-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가 북남사이의 흩어진 가족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걸고 든 것과 관련하여 9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음.
- 7일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가 북남사이의 흩어진 가족문제와 관련한 《보고서》 발표놀음을 벌려놓고 우리가 그 누구를 《랍치》하였다느니 뭐니 하는 온갖 날조 자료들을 렴거하며 우리 공화국을 걸고들었음.
-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이 꾸며낸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반공화국 《보고서》 발표를 강행한 것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행위로 략인하며 《보고서》를 단호히 배격함.
- 지난 시기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와 성의 있는 노력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흩어진 가족 및 친척 상봉이 중단된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이 우리 공민들에 대한 유인 략치를 지속적으로 감행하여 북남관계를 완전히 파괴한데 기인됨.
- 남조선 당국이 지난 4월 정보원 깡패들을 동원하여 외국에서 우리 녀성 공민 10여 명을 집단 유인랍치하고 남조선 당국자가 로골적으로 《탈북》을 선동한 것은 남조선이야말로 략치를 전업으로 하는 반인륜 범죄 집단이라는 것을 실증해줌.
- 최근 《박OO 추문사건》으로 남조선 당국이 사면초가에 빠져있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가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북남대결에서 출로를 찾아보려고 발악하는 남조선 당국에 편승하여 기구의 생명인 공정성과 객관성마저 췌버린 부당한 처사임.
-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가 흩어진 가족 및 친척 문제 해결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로골적인 《탈북》 선동을 일삼는 남조선 당국자와 우리 녀성 공민들을 백주에 집단 유인랍치한 남조선의 정보원 깡패들부터 범죄시하며 우리 녀성 공민들을 당장 돌려보낼 것을 남조선 당국에 요구하여야 할 것임.

## ■ 「외무성」 대변인 증통 기자 문답(12.11, 증통)

-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우리의 《인권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에 끌고가 논의한 것과 관련하여 11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음.
- 최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 공개회의라는 것을 벌려 놓고 있지도 않는 우리의 《인권 문제》를 강압적으로 상정 토의하는 행위를 감행하였음.
- 우리는 유엔 무대에서 또 다시 벌어진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 소동을 우리에게 대한 악랄한 적대 행위로 강력히 단죄 규탄함.
- 유엔에는 인권 리사회를 비롯하여 주제별 리사회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인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에 우리의 《인권 문제》를 강압적으로 끌고 간 것은 안전보장 리사회가 미국의 강권과 전횡이 란무하고 유엔 헌장과 국제법 위에 군림하는 곳이기 때문임.
- 제반 사실은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가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을 책임져야 할 자기의 고유한 사명을 상실하고 미국에 도용되는 《종합 리사회》, 《만능 리사회》로 전락되고 있으며 안전보장 리사회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 요구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겨주고 있음.
- 패자의 고배를 마시고 래일 모레면 정권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오바마의 줄개가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에서 감히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걸고드는 망동을 부리면서 우리 공화국의 대외적 영상에 먹칠을 하고 반공화국 압박 분위기를 고취해보려고 책동하였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나 다른 나라들에 통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음.
- 우리는 적대 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 소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한 초강경 대응으로 그를 철저히 짓부셔버릴 것임.

## ■ 「외무성」 대변인 증통 기자 문답(12.27, 증통)

-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남조선 괴뢰들과 우리를 반대하는 《확장 억제 전략》 협의 놀음을 벌린 것과 관련하여 27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음.
- 최근 워싱턴에서 미국-남조선 《확장 억제 전략 협의 그루빠》 회의가 진행되었음.
  -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지난 10월 《확장 억제 전략 협의 그루빠》라는 것을 내오기로 합의한데 이어 이번에 그 첫 회의를 벌려놓은 것은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고 핵전쟁 위험을 가증시키는 엄중한 도발책동임.
  - 미국이 이번 회의에서 우리의 《위협》을 걸고 미 전략자산들의 남조선 순환 배치를 검토한 것은 이미 전부터 감행하여 오던 우리에게 대한 핵 위협 공갈을 정례화, 제도화하고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박해보려는 극히 위험한 시도로 됨.

- 최근 미국의 부추김 밑에 남조선 괴뢰들이 핵 잠수함 건조에 대하여 떠든 것은 미국의 침략적인 아시아 태평양 지배전략에 돌격대, 하수인으로 나서려는 속심의 명백한 발로임.
-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의 핵 억제력 강화에 대하여 《위협》이요 뭐요 하고 있지만 방대한 전략자산들을 끌어들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고 지역정세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는 저들의 범죄적 정체를 절대로 가리울 수 없음.
- 오늘의 정세 상황은 미국에 의하여 강요되고 있는 핵전쟁 위험을 강위력한 핵 억제력에 의거하여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려는 우리의 결심과 로선이 얼마나 정당하고 정확하였는가를 실증하여 주고 있음.
- 우리는 앞으로도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계속되는 한 조선로동당의 병진 사상과 로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자위적인 핵 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억척 같이 다져나갈 것임.

---

---

## 「외무성 조약법규국」 국장 담화

---

### ■ 개 요

- 안보리 제재결의 제2321호 관련 '적법성을 상실한 범죄적 문서로 단호히 규탄·배격' 및 '조선반도에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전쟁뿐'이라고 위협(12.22, 중통)

### ■ 주요 내용

-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핵탄두 폭발시험을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과 《도발》로 걸고 들면서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를 사측하여 또다시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조작하였음.
-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온 미국과 적대 세력들의 전례 없는 제재 속에서도 핵 강국, 우주강국의 전례에 당당히 들어선 우리에게는 유엔 제재이든 단독 제재이든 절대로 통하지 않음.
- 우리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하는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 《제재결의》 제2321호를 적법성을 상실한 범죄적 문서로 단호히 규탄 배격함.
- 우리의 핵탄두 폭발시험은 우리 국가의 자위적 권리의 행사로서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핵 위협과 무분별한 제재 소동에 대처한 실제적 대응조치이며 적들이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맞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우리 인민의 초강경 의지의 과시임.
- 유엔 헌장 제51조 《자위권》과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선언 제12조에는 매개 국가는 개별적 혹은 집단적인 자위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음.
- 미국과 적대 세력들은 우리 공화국을 고립 압살하려는 목적으로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 《제재결의》 제2270호를 조작해낸데 이어 이번에는 인민생활과 관련된 경제활동은 레외라고 하던 위선적 허울마저 집어던지고 우리의 무역과 과학기술 협조는 물론 해상 통로를 전면 차단하는 봉쇄형 《제재결의》를 날조해냈음.
  - 침략의 정의에 관한 런던조약과 유엔총회 제39차 회의 결의 《침략에 관한 정의》에는 평화적인 시기에 주권국가에 대한 봉쇄형의 제재는 침략행위로, 비법으로 된다고 규제되어 있음.
-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조작해 낸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 《제재결의》로 인해 간신히 남아있던 조선 정전협정의 마지막 조항인 해상봉쇄 금지에 관한 조항까지 말끔히 날아난 것임.

- 전쟁과 무장충돌 방지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이 완전히 사멸되고 선전 포고행위나 다름이 없는 이번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의 《제재결의》로 조선반도에서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불과 불이 오가는 전쟁뿐임.
- 미국과 그에 추종하여 《제재결의》 조작에 가담한 나라들은 이로부터 초래되는 후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임.
-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없애버리려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책동이 악랄해질수록 우리는 자력자강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과감히 나아갈 것임.

---

---

## 「해외동포 원호위」 대변인 담화

---

### ■ 개 요

- 외환법 위반혐의로 총련 일꾼·동포 등에 대한 강제 수색 진행 관련 '총련을 비법적 활동 단체로 날조하여 탄압하기 위한 구실 마련'이라고 비난(12.25, 중통)

### ■ 주요 내용

- 우리 공화국의 참다운 해외교포 조직인 총련과 재일 동포들에 대한 일본 반동들의 정치적 탄압책동은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시기에 그치지 않고 더욱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음.
- 지난 19일 새벽 일본 당국은 교토부, 가나가와현, 야마구찌현, 시마네현 경찰 합동수사본부 깡패들을 내몰아 그 무슨 《외환법》 위반이라는 당치 않은 구실 밑에 총련 일꾼들과 재일 동포의 자택, 그들이 운영하는 회사, 여행사의 사무실을 강제 수색하는 파썸적 폭거를 감행하였음.
-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편승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를 더욱 확대하면서 총련 일꾼들과 재일 동포들의 조국 방문까지 극도로 제한하는 반인륜적인 폭거를 감행한 일본 반동들이 이번에 강제수사 놀음을 연출한 목적은 불 보듯 명백함.
  - 그것은 어떻게 하나 총련에 범죄 모자를 씌워 비법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인 듯이 날조하여 날로 높아가는 우리 공화국과 총련의 국제적인 권위와 위신을 깎아내리고 일본 전역에 반공화국, 반총련 분위기를 더욱 고취함으로써 총련과 재일 동포들의 정의로운 활동을 가로막고 총련을 전면 탄압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자는데 그 흉악한 속심이 있음.
- 일본 당국이 미국의 반공화국 책동의 앞장에 서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재일 동포들을 우리 조국과 총련 조직에서 떼어내려고 제아무리 발악하여도 총련 일꾼들과 재일 동포들의 정당한 애국애족 활동은 절대로 가로막을 수 없음.
- 총련과 재일 조선인들에 대한 그 어떤 사소한 박해나 탄압도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인정하고 그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립장이며 확고한 의지임.
  - 일본 당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체조선의 존엄 높은 해외 공민단체인 총련에 대한 탄압 책동에 광분하면 할수록 우리 천만군민의 대일 적개심은 더욱 날카롭게 베풀어질 것이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임.

# 주요인물 동정

## 김정은(당 위원장)

- (미상) 전선 포병부대들의 포병대 집중화력 타격연습 공개 활동(12.2, 중통·중방·평방)
- 12.02 라오스 정권 수립 41주년에 즈음하여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12.2, 중통)
- 12.02 태국 신임 국왕(와치랄롱콘)에게 축전(12.2, 중통)
- (미상) 리설주와 함께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 지휘성원들의 전투 비행술 경기대회-2016' 공개 활동(12.4, 중방·중통)
- (미상) "절세위인들을 높이 우러러 모시며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12.4, 중방)
- (미상) 새로 개건된 강원도(문천시) '12월6일 소년단 야영소' 공개 활동(12.7, 중방·중통)
- (미상) 서한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 수행에서 농업 근로자동맹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하여'를 「농근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에게 전달(12.8, 중통·중방)
- (미상) 김일성경기장 개건·보수 공사를 적극 지원한 근로자들(영흥 대외 건설자 양성사업소 박철구 등 12명)에게 감사 전달(12.8, 중방)
- (미상) '원산 구두공장' 공개 활동(12.9, 중통·중방)
- (미상) 제525군부대 직속 특수작전 대대 전투원들의 전투훈련장 공개 활동(12.11, 중통·중방·평방)
- (미상) 「농근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12.11, 중통·중방·평방)
- (미상) 원산 군민발전소(자력갱생 창조물) 공개 활동(12.13, 중방·중통)
- (미상) 조선인민군 15호 수산사업소 공개 활동(12.15, 중통·중방)
- 12.17 김정일 사망 5주기 금수산궁전 참배(12.17, 중통·중방·평방)
- (미상) 김일성父子 동상 건립에 참여한 개성시의 여러 단위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12.17, 중방)
- (미상) '마식령 스키경기-2016' 관람(12.19, 중통·중방)
- (미상) 함북도 북부 피해지역 주민들을 적극 지원한 일꾼들과 근로자들(김일성-김정일기금 위원회 산하 단위 지배인 '최순복' 등 70여 명)에게 감사 전달(12.20, 중방)
- (미상) 100번째 생일을 맞는 '라연해'(함경북도 명천군 고참리 1인민반 거주) 할머니에게 생일상 전달(12.20, 중통)

- (미상)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별 방사포병 중대 사격경기 공개 활동(12.21, 중통·중방)
- (미상) '길영조' 영웅 추격기 연대 전투 비행사들의 야간 습격 전투 비행훈련 공개 활동(12.21, 중통·중방)
- (미상) 박제은(원산 농업종합대학 과학연구원 부원장)·박미술(함흥 후방가족 은하 피복공장 지배인)에게 '80·70회 생일상' 전달(12.21, 중통·중방)
- 12.23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대회 개회사(12.24, 중통·중방)
- 12.24 김정숙 99회 생일 기념 대성산 혁명열사릉 김정숙 동상에 화환 진정 (12.24, 중통·중방)
- 12.24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 2일 회의(평양 체육관) 지도(12.25, 중방·중통)
- 12.24 혁명학원들과 전국 육아원·애육원·초등학교·중등학교 원아들 및 양로원 보양생들에게 '갓가지 식료품' 전달(12.25, 중방)
- (미상)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을 적극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12.25, 중방)
- 12.25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12.23~25) 폐회사(12.26, 중통·중방)
- (미상) 100번째 생일을 맞는 '전금산'(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거주) 할머니에게 생일상 전달(12.26, 중통)
- (미상) 양강도 여러 단위(혜산 강철공장 종업원 등)-근로자들에게 「감사(김정일 동상 건립사업 충정)」 전달(12.27, 중방)
- 12.28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 및 '모란봉악단 및 공훈 국가합창단 합동공연'(평양) 관람(12.29, 중통·중방)
- (미상) 사회와 집단에 공헌한 남포 재흥 여객운송 사업소 일꾼 등에 '감사' 전달 (12.31, 중방)
- 12.31 쿠바 혁명승리 58돌 즈음 同國 수상(하울 카스트로 루스)에게 축전 (12.31, 중통·중방)
- 12.31 駐北 쿠바 대사관에 꽃바구니 전달(12.31, 중통·중방)

## 강종관(육해운상)

- 12.06 北 육해운상 대표단(단장 : 강종관 육해운상), 러시아(운수에 관한 제3차 아시아·태평양 지역 상급회의 참가, 모스크바) 방문차 평양 출발(12.6, 중통·중방)
- 12.8~9 운수에 관한 제3차 아시아·태평양지역 상급회의(모스크바) 의장(러시아 운수상)·부의장(강종관 육해운상, 몽골 대표단 단장) 선출(12.13, 중통)

- 12.15 육해운성 대표단(단장: 강종관 육해운상), 러시아(운수에 관한 제3차 아시아-태평양지역 상급회의 참석, 모스크바)에서 귀환(12.15, 중통·중방)

### 강하국(보건상)

- 12.04 北 보건성 대표단(단장: 강하국 보건상), '세계적인 보건혁신을 위한 회의(카타르 도하)' 참가 후 귀환(12.4, 중통·중방)

### 고인호(내각 부총리, 농업상)

- 12.01 '온실 남새 부문 과학기술토론회-2016' 개막식(농업과학원 평양 남새과학연구소) 참가(12.1, 중통)

### 곽범기(당 중앙위 부위원장)

- 12.01 '온실 남새 부문 과학기술토론회-2016' 개막식(농업과학원 평양 남새과학연구소) 참가(12.1, 중통)
- 12.03 「농근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 숙소 축하 방문(12.3, 중통·중방)
- 12.19 황해남도 물길 1단계 공사 준공식 참가, 黨 중앙위 축하문 전달(12.19, 중통)
- 12.23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대회 참가(12.24, 중통·중방)
- 12.28 김정은,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 및 '모란봉 악단 및 공훈 국가합창단 합동공연'(평양) 관람 시 동행(12.29, 중통·중방)

### 김광혁(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 (미상) 김정은, '길영조' 영웅 추격기 연대 전투 비행사들의 야간 습격 전투 비행 훈련 공개 활동 시 현지 영접(12.21, 중통·중방)

### 김기남(당 중앙위 부위원장)

- 12.03 「농근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 숙소 축하 방문(12.3, 중통·중방)
- 12.04 조선중앙통신사 창립 70돌 기념 보고회 참가(12.4, 중통)
- 12.07 「농근맹」 제8차 대회 경축 농업 근로자들의 농악무도회 관람(12.8, 중통)
- (미상) 김정은 黨 위원장, 「농근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 촬영 시 참가(12.11, 중통·중방·평방)

- 12.13 중앙 연구토론회(인민문화궁전) 참가(12.13, 중통·중방)
- 12.14 중앙 미술전시회 개막식(조선 미술박물관) 참가(12.14, 중통·중방)
- 12.17 김정일 사망 5주기 중앙 추모대회(금수산궁전 앞 광장) 참가 및 연설(12.17, 중통·중방·평방)
- 12.19 올해 공로자들에 대한 '국가표창 수여식(만수대의사당)' 참가(12.19, 중통)
- 12.22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대회 참가자들과 조선 기록영화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 주시어' 관람(12.22, 중통·중방)
- 12.23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대회 참가, 보고(12.24, 중통·중방)
- 12.28 김정은,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 및 '모란봉 악단 및 공훈 국가합창단 합동공연'(평양) 관람 시 동행(12.29, 중통·중방)

### **김능오(평안북도 당 위원회 위원장)**

- 12.23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대회 참가(12.24, 중통·중방)

### **김덕훈(내각 부총리)**

- 12.24 김정숙 99회 생일 기념 대성산 혁명열사릉 김정숙 동상에 화환 진정(12.24, 중통·중방)

### **김문철(조선 장애인보호연맹 위원장)**

- 12.05 '국제 장애인의 날'(12.3)에 즈음한 기념모임(청년중앙회관) 참가(12.5, 중통)

### **김수길(평양시 당 위원회 위원장)**

- 12.14 김일성 '새날 소년동맹' 결성(12.15) 90주년 기념 중앙 보고대회(청년 중앙회관) 참가(12.14, 중통)
- 12.23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대회 참가(12.24, 중통·중방)

### **김승두(교육위원회 위원장 겸 보통교육상, 북-쿠바 단결위원장)**

- 12.01 함북도 북부 피해지역 학교들 개학식 참가(12.2, 중통·중방)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 12.01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선포 58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12.1, 중통·중방)

- 12.07 감비아 대통령 당선자(아다마 바로우)에게 축전(12.9, 중통)
- 12.12 터키 대통령(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에게 '터키 폭탄테러(12.10) 인명 피해' 위문 전문(12.12, 중통)
- 12.12 케냐 독립 53주년 즈음 대통령(우후루 케니아타)에게 축전(12.12, 중통·중방)
- 12.12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연맹 위원장 일행과 담화(12.12, 중통·중방)
- 12.13 이집트 폭탄테러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 관련 同國 대통령과 외무상에게 위문전문 발송(12.13, 중통·중방)
- 12.14 이임(離任) 駐北 이란 대사와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12.14, 중통·중방)
- 12.15 가나 대통령 당선자(나나 아쿠포-아도)에게 축전(12.15, 중통·중방)
- 12.16 바레인 국경절 55주년에 즈음하여 同國 국왕에게 축전(12.16, 중통·중방)
- 12.17 김정은, 김정일 사망 5주기 금수산공전 참배 시 동행(12.17, 중통·중방·평방)
- 12.17 김정일 사망 5주기 중앙 추모대회(금수산공전 앞 광장) 참가(12.17, 중통·중방·평방)
- 12.18 카타르 추장(타밈 빈하마드 알 타니)에게 '카타르 독립절' 축전(12.18, 중통·중방)
- 12.19 올해 공로자들에 대한 '국가표창 수여식(만수대의사당)' 참가(12.19, 중통)
- 12.20 재일본조선인 추모 대표단(단장 : 오형진 재일조선인 역사연구소 상임고문)과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12.20, 중통)
- 12.22 말레이시아 국왕으로 즉위한 '술탄 무하마드 5세'에게 축전(12.23, 중통·중방)
- 12.24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25주년 기념 국립교향악단 음악회(모란봉극장) 관람(12.24, 중통·중방)
- 12.26 '러시아 군용기 흑해 추락'(12.25, 92명 사망) 사고 관련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12.26, 중통·중방)
- 12.31 수단 독립 61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12.31, 중통)

### 김영복(제11군단장)

- (미상) 김정은 黨 위원장, 제525군부대 직속 특수작전 대대 전투원들의 전투 훈련장 공개 활동 시 영접(12.11, 중통·중방·평방)

### 김영철(당 중앙위 부위원장)

- (미상) 김정은 黨 위원장, 리설주와 함께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 지휘 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2016' 공개 활동 시 관람(12.4, 중방·중통)

12.23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대회 참가(12.24, 중통·중방)

12.28 김정은,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 및 '모란봉 악단 및 공훈 국가합창단 합동공연'(평양) 관람 시 동행(12.29, 중통·중방)

### 김영철(전력공업성 1부상)

12.05 北 대표단(단장 : 김영철 전력공업성 1부상), '北-中 수력발전회사 이사회 제68차 회의'(베이징) 참가 후 귀환(12.5, 중통·중방)

### 김용수(당 중앙위 부장)

(미상) 김정은 黨 위원장, 원산 군민발전소(자력갱생 창조물) 공개 활동 시 영접 (12.13, 중방·중통)

(미상) 김정은, '마식령 스키경기-2016' 관람 시 동행(12.19, 중통·중방)

### 김일국(체육상)

12.05 오산덕상 체육경기대회 개막식(빙상관) 참가, 개막사(12.5, 중앙통신)

12.06 北 여자 축구팀(국제축구연맹 2016년 U-20 여자 월드컵경기 우승) 귀환, 평양 국제비행장 출영(出迎)과 시민들 연도 환영(12.6, 중방·중통)

### 김정순(여맹위원장)

12.13 「여맹」 중앙위 제6기 제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평양) 참가·보고(12.13, 중통)

12.25 反日 부녀회('26.12.26) 결성 90돌 기념 중앙보고회(여성회관) 참가(12.25, 중통)

### 김철호(駐수단 北 대사)

12.19 주재국 대통령에게 신임장 전달(12.23, 중방)

### 김평해(당 중앙위 부위원장)

12.11 성·중앙기관 일꾼들의 축구 경기대회 결승(김일성경기장) 관람(12.11, 중통)

12.19 올해 공로자들에 대한 '국가표창 수여식(만수대의사당)' 참가(12.19, 중통)

12.23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대회 참가(12.24, 중통·중방)

- 12.28 김정은,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 및 '모란봉 악단 및 공훈 국가합창단 합동공연'(평양) 관람 시 동행(12.29, 중통·중방)

### 노광철(인민무력성 제1부상)

- 12.24 김정숙 99회 생일 기념 대성산 혁명열사릉 김정숙 동상에 화환 진정 (12.24, 중통·중방)

### 로두철(내각 부총리, 국가 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

- 12.11 성·중앙기관 일꾼들의 축구 경기대회 결승(김일성경기장) 관람(12.11, 중통)  
12.24 김정숙 99회 생일 기념 대성산 혁명열사릉 김정숙 동상에 화환 진정 (12.24, 중통·중방)

### 리광근(대외경제성 부상)

- 12.20 외무성·대외경제성·대외문화 연락처·외교단 사업총국 등 기관들, 주북 러시아 ~21 대사관에 화환 전달(터키 주재 러시아 대사 '안드레이 카를로프' 피격 사망 추모) 시 참가(12.21, 중통)

### 리룡남(내각 부총리)

- 12.06 北 여자 축구팀(국제축구연맹 2016년 U-20 여자 월드컵경기 우승) 귀환, 평양 국제비행장 출영(出迎)과 시민들 연도 환영(12.6, 중방·중통)  
12.14 중앙 미술전시회 개막식(조선 미술박물관) 참가(12.14, 중통·중방)

### 리만건(당 중앙위 부위원장)

- (미상) 김정은 黨 위원장, 리설주와 함께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 지휘 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2016' 공개 활동 시 관람(12.4, 중방·중통)  
12.23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대회 참가(12.24, 중통·중방)  
12.28 김정은,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 및 '모란봉 악단 및 공훈 국가합창단 합동공연'(평양) 관람 시 동행(12.29, 중통·중방)

### 리명길(농근맹 위원장)

- 12.02 「농근맹」 제8차 대회 기념 사업성과 전시회 개막식(인민문화궁전) 참가 (12.2, 중통)

- 12.06 「농근맹」 제8차 대회 진행, 「농근맹 중앙위」 사업총화에 대하여 보고  
~07 (12.8, 중통·중방)
- 12.07 「농근맹」 제8차 대회 경축 농업 근로자들의 농악무도회 관람(12.8, 중통)
- 12.08 「농근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의 생일 축하모임(4.25여관) 참가(12.9, 중통)
- 12.08 김정은의 「농근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 제시된 과업  
관철 농업 근로자·농근맹원들 궤기모임(강서구역 청산리)에 참가, 보고  
(12.9, 중방)
- (미상) 김정은 黨 위원장, 「농근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 촬영 시 참가  
(12.11, 중통·중방·평방)
- 12.22 「농근맹」 제8기 제2차 전원회의(평양) 참가, 보고(12.22, 중통)
- 12.29 「농근맹」 예술선전대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12.30) 5주년 공연(평양시  
사동구역 장천 남새 전문 협동농장) 참가(12.29, 중통·중방)

### 리명수(총참모장)

- (미상) 김정은 黨 위원장, 리설주와 함께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 지휘  
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2016' 공개 활동 시 관람(12.4, 중방·중통)
- (미상)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 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  
-2016' 우수한 단위와 성원들에게 컵과 메달·상장 수여(12.4, 중방·중통)
- (미상) 김정은 黨 위원장, 제525군부대 직속 특수작전 대대 전투원들의 전투  
훈련장 공개 활동 시 영접(12.11, 중통·중방·평방)
- (미상) 김정은,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별 방사포병 중대 사격경기 공개 활동 시  
현지 영접(12.21, 중통·중방)
- (미상) 김정은, '길영조' 영웅 추격기 연대 전투 비행사들의 야간 습격 전투 비행  
훈련 공개 활동 시 동행(12.21, 중통·중방)

### 리병철(당 중앙위 제1부부장)

- (미상) 김정은 黨 위원장, 리설주와 함께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 지휘  
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2016' 공개 활동 시 관람(12.4, 중방·중통)
- (미상) 김정은, '길영조' 영웅 추격기 연대 전투 비행사들의 야간 습격 전투 비행  
훈련 공개 활동 시 동행(12.21, 중통·중방)

## 리선권(조평통 위원장)

- 12.08 북·남·해외 제 정당·단체·개별 인사들의 연석회의 북측 준비위원회 총회에서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을 전 민족대회 북측 준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선(12.9, 중통·중방)

## 리수용(당 중앙위 부위원장)

- (미상) 김정은 당 위원장, 리설주와 함께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 지휘 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2016' 공개 활동 시 관람(12.4, 중방·중통)
- 12.14 국제 중재기구 최고집행관(조나탄 포웰)과 담화(12.14, 중통·중방)
- (미상) 김정은, '마식령 스키경기-2016' 관람 시 동행(12.19, 중통·중방)
- 12.23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대회 참가(12.24, 중통·중방)
- 12.28 김정은,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 및 '모란봉 악단 및 공훈 국가합창단 합동공연'(평양) 관람 시 동행(12.29, 중통·중방)

## 리영길(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 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

- (미상) 전선 포병부대들의 포병대 집중화력 타격연습 공개 활동 시 영접(12.2, 중통·중방·평방)
- (미상) 김정은 당 위원장, 리설주와 함께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 지휘 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2016' 공개 활동 시 관람(12.4, 중방·중통)
- (미상) 김정은 당 위원장, 제525군부대 직속 특수작전 대대 전투원들의 전투 훈련장 공개 활동 시 영접(12.11, 중통·중방·평방)
- (미상) 김정은, '마식령 스키경기-2016' 관람 시 동행(12.19, 중통·중방)
- (미상) 김정은,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별 방사포병 중대 사격경기 공개 활동 시 현지 영접(12.21, 중통·중방)
- (미상) 김정은, '길영조' 영웅 추격기 연대 전투 비행사들의 야간 습격 전투 비행 훈련 공개 활동 시 동행(12.21, 중통·중방)

## 리용호(당 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 외무상)

- 12.02 라오스 정권 수립 41주년에 즈음하여 同國 외무상에게 축전(12.2, 중통)
- 12.13 이임(離任) 駐北 이란 특명 전권대사와 담화(12.13, 중통)
- 12.13 이집트 폭탄테러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 관련 同國 대통령과 외무상에게 위문전문 발송(12.13, 중통·중방)

- 12.12 '이스탄불 연쇄 폭탄 테러'로 인명피해 발생 관련 터키 외무상(메브루트 카부소글루)에게 위문전문 발송(12.13, 중통)
- 12.14 再任 쿠웨이트 내각 제1부수상 겸 외무상(사바흐 알 할리드 알 하마드 알 사바흐)에게 축전(12.15, 중통)
- 12.20 터키 주재 러시아 대사(안드레이 카를로프) 피격 사망 관련 러시아 외무상에게 위문 전문(12.20, 중통)
- 12.21 독일 외무부 장관(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에게 '베를린 트럭 테러(12.19)' 위문 전문('테러반대 입장 재확인') 전달(12.21, 중통)
- 12.23 再任 콩고 부수상 겸 외무 및 지역 통합상(레오나르 웨 오끼뚏두)에게 축전(12.24, 중통)
- 12.28 팔레스티나 대통령이 전하는 '김정은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駐北 팔레스티나 특명 전권대사 편에 접수(12.28, 중통·중방)
- 12.31 쿠바 외무상(브루노 로드리게스 빠릴라)에게 축전(12.31, 중통)

#### 리일환(당 중앙위 부장)

- 12.02 「농근맹」 제8차 대회 기념 사업성과 전시회 개막식(인민문화궁전) 참가(12.2, 중통)
- (미상) 김정은 黨 위원장, 리설주와 함께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 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2016' 공개 활동 시 관람(12.4, 중방·중통)
- 12.07 국가체육지도위가 2016 U-20 여자 월드컵 축구선수단을 위해 마련한 환영 연회 참가(12.7, 중통·중방)
- 12.07 「농근맹」 제8차 대회 경축 농업 근로자들의 농악무도회 관람(12.8, 중통)
- (미상) 김정은 黨 위원장, 「농근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 촬영 시 참가(12.11, 중통·중방·평방)
- 12.14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결의모임(중앙 노동자회관) 참가(12.14, 중통·평방)
- (미상) 김정은, '마식령 스키경기-2016' 관람 시 동행(12.19, 중통·중방)
- 12.22 U-20 여자 월드컵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을 축하하는 모임(청년중앙회관) 참가 (12.22, 중통)

#### 리주오(내각 부총리)

- 12.01 함북도 북부 피해지역 학교들 개학식 참가(12.2, 중통·중방)

## 마원춘(국무위 설계국장)

- (미상) 김정은, 새로 개건된 강원도(문천시) '12월6일 소년단 야영소' 공개 활동 시 동행(12.7, 중방·중통)
- (미상) 김정은, '마식령 스키경기-2016' 관람 시 동행(12.19, 중통·중방)

## 박명국(외무성 부상)

- 12.06 北 최고인민회의의 대표단(단장 : 박명국 외무성 부상), 캄보디아(아시아 의회 회의 제9차 총회 참석)에서 귀환(12.6, 중통·중방)

## 박봉주(내각 총리)

- 12.02 라오스 정권 수립 41주년에 즈음하여 同國 수상에게 축전(12.2, 중통)
- 12.02 '두스코 마르코비치' 몬테네그로 新任 수상에게 축전(12.3, 중통·중방)
- 12.06 再任 쿠웨이트 내각 수상 '자비르 무바라크 알사바'에게 축전(12.6, 중통·중방)
- 12.10 북창·덕천지구 중요 기업소들 점검(12.10, 중통·중방)
- 12.17 김정은, 김정일 사망 5주기 금수산궁전 참배 시 동행(12.17, 중통·중방·평방)
- 12.17 김정일 사망 5주기 중앙 추모대회(금수산궁전 앞 광장) 참가(12.17, 중통·중방·평방)
- 12.19 황해남도 물길 1단계 공사 준공식 참가, 黨 중앙위 축하문 전달(12.19, 중통)
- (미상)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 현지 점검(12.22, 중통)
- (미상) 레바논 내각수상 임명자(싸아드 하리리)에게 축전(12.22, 중통)

## 박영식(인민무력상)

- (미상) 김정은 黨 위원장, 리설주와 함께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 지휘 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2016' 공개 활동 시 관람(12.4, 중방·중통)
- 12.23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12.30) 5주년 관련 駐北 쿠바 대사관 무관이 대표로 전하는 '김정은 꽃바구니와 축하편지' 접수(12.24, 중방)
- 12.29 조선인민군 제4차 수산부문 열성자회의(평양) 참가(12.29, 중통)
- 12.31 駐北 무관단(단장: '로만 오스발도 이메네스 오르떼' 쿠바 대사관 무관)이 전하는 '김정은 꽃바구니와 축하편지' 접수(12.31, 중통)
- 12.31 조선인민군 제4차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을 위한 연회(목락관)에 참가(1.1, 중통)

### 박정남(강원도 당 위원회 위원장)

- (미상) 김정은, 새로 개건된 강원도(문천시) '12월6일 소년단 야영소' 공개 활동 시 영접(12.7, 중방·중통)
- (미상) '원산 구두공장' 공개 활동 시 영접(12.9, 중통·중방)
- (미상) 김정은 黨 위원장, 원산 군민발전소(자력갱생 창조물) 공개 활동 시 영접(12.13, 중방·중통)
- 12.14 강원도 '12월6일 소년단 야영소'·원산 구두공장 종업원들, '김정은 현지 지시 관철' 꺾기모임 참가(12.15, 중방)

### 박정천(포병국장)

- (미상) 전선 포병부대들의 포병대 집중화력 타격연습 공개 활동 시 영접(12.2, 중통·중방·평방)
- (미상) 김정은 黨 위원장, 제525군부대 직속 특수작전 대대 전투원들의 전투 훈련장 공개 활동 시 영접(12.11, 중통·중방·평방)
- (미상) 김정은, '마식령 스키경기-2016' 관람 시 동행(12.19, 중통·중방)
- (미상) 김정은,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별 방사포병 중대 사격경기 공개 활동 시 현지 영접(12.21, 중통·중방)

### 박춘남(문화상)

- 12.08 北 문화성 대표단(단장 : 박춘남 문화상), '제5차 국제 문화연단'(러시아) 참가 후 귀환(12.8, 중통·중방)

### 박태성(평안남도 당 위원회 위원장)

- 12.23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대회 참가(12.24, 중통·중방)

### 서홍찬(인민무력성 제1부상)

- (미상) 김정은 黨 위원장, 조선인민군 15호 수산사업소 공개 활동 시 동행(12.15, 중통·중방)

### 신홍철(외무성 부상)

- 12.20 외무성·대외경제성·대외문화 연락처·외교단 사업총국 등 기관들, 주북 러시아 ~21 대사관에 화환 전달(터키 주재 러시아 대사 '안드레이 카를로프' 피격 사망 추모) 시 참가(12.21, 중통)

##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 12.13 중앙 연구토론회(인민문화궁전) 참가(12.13, 중통·중방)
- 12.14 김일성 '새날 소년동맹' 결성(12.15) 90주년 기념 중앙 보고대회(청년 중앙 회관) 참가(12.14, 중통)
- 12.14 중앙 미술전시회 개막식(조선 미술박물관) 참가(12.14, 중통·중방)
- 12.19 올해 공로자들에 대한 '국가표창 수여식(만수대의사당)' 참가(12.19, 중통)
- 12.25 反日 부녀회('26.12.26) 결성 90돌 기념 중앙보고회(여성회관) 참가(12.25, 중통)

## 오금철(총참모부 부총참모장)

- 12.20 주북 베트남 대사와 무관이 마련한 연회(대동강 외교단회관) 참석(12.20, 중통)

## 오수용(당 중앙위 부위원장)

- (미상) 김정은 黨 위원장, 리설주와 함께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 지휘 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2016' 공개 활동 시 관람(12.4, 중방·중통)
- (미상) 김정은 黨 위원장, 원산 군민발전소(자력갱생 창조물) 공개 활동 시 영접(12.13, 중방·중통)
- (미상) 김정은, '마식령 스키경기-2016' 관람 시 동행(12.19, 중통·중방)
- 12.23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대회 참가(12.24, 중통·중방)
- 12.28 김정은,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 및 '모란봉 악단 및 공훈 국가합창단 합동공연'(평양) 관람 시 동행(12.29, 중통·중방)

## 오영철(문화성 부상)

- 12.27 문화성·주북 러시아 대사관 공동 명의 '김원균 명칭 음악종합대학' '평양 제1음악학원' 한일영·마신아 학생 피아노 연주회, 駐북 러시아 대사(알렉산드르 마체고라)와 관람(12.27, 중통·중방)

## 전승훈(함경북도 당 위원회 위원장)

- 12.01 함북도 북부 피해지역 학교들 개학식 참가(12.2, 중통·중방)

## 전용남(청년동맹 중앙위 1비서)

- 12.14 김일성 '새날 소년동맹' 결성(12.15) 90주년 기념 중앙 보고대회(청년 중앙 회관) 참가(12.14, 중통)
- 12.16 청년 학생들의 회고무대 '충정의 한길로 가고 가리라'(청년중앙회관) 참가 (12.16, 중통)
- 12.16 청년 학생들의 회고무대 '충정의 한길로 가고 가리라'(청년중앙회관) 참가 (12.16, 중통)
- 12.17 김정일 사망 5주기 중앙 추모대회(금수산궁전 앞 광장) 참가 및 연설 (12.17, 중통·중방·평방)
- 12.22 U-20 여자 월드컵 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을 축하하는 모임(청년중앙 회관) 참가, 축하연설(12.22, 중통)

## 정영철(駐나이지리아 北 대사)

- 12.7 주재국 인민진보당의 김정일에 대한 '명예 전국지도자 칭호 증서' 및 인민 진보당 전국위원장 '선물' 인수(12.12, 중통)

## 조경철(보위국장)

- (미상) 김정은 黨 위원장, 리설주와 함께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 지휘 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2016' 공개 활동 시 관람(12.4, 중방·중통)

## 조남진(총정치국 조직부국장)

- (미상) 김정은 黨 위원장, 리설주와 함께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 지휘 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2016' 공개 활동 시 관람(12.4, 중방·중통)

## 조연준(당 중앙위 제1부부장)

- 12.11 성·중앙기관 일꾼들의 축구 경기대회 결승(김일성경기장) 관람(12.11, 중통)
- 12.22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대회 참가자들과 조선 기록영화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 주시어' 관람(12.22, 중통·중방)
- 12.23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대회 참가(12.24, 중통·중방)

### 조용원(당 중앙위 부부장)

- (미상) 김정은, 새로 개건된 강원도(문천시) '12월6일 소년단 야영소' 공개 활동 시 동행(12.7, 중방·중통)
- (미상) '원산 구두공장' 공개 활동 시 영접(12.9, 중통·중방)
- (미상) 김정은 黨 위원장, 원산 군민발전소(자력갱생 창조물) 공개 활동 시 영접(12.13, 중방·중통)
- (미상) 김정은, '마식령 스키경기-2016' 관람 시 동행(12.19, 중통·중방)

### 주영길(직총 중앙위원장)

- 12.14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결의모임(중앙 노동자회관) 참가(12.14, 중통·평방)
- 12.26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5주년에 즈음한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경축모임(황해제철 연합기업소) 참가, 보고(12.26, 중통·중방)

### 최동명(당 중앙위 부장)

- 12.01 함북도 북부 피해지역 학교들 개학식 참가(12.2, 중통·중방)

### 최룡해(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 12.01 쿠바 조의 방문 최룡해(北 당 및 국가대표단 단장), 피델 카스트로 사망 관련 쿠바 TV방송과 회견(12.3, 중통)
- 12.03 쿠바 조의 방문 최룡해(北 당 및 국가대표단 단장), 同國 국가평의회 의장(라울 카스트로)과 담화(12.5, 중통)
- 12.03 베네수엘라·볼리비아·니카라과 대통령과 각각 담화(12.5, 중통)
- 12.09 北 당 및 국가대표단(단장: 최룡해 당 부위원장), 쿠바(피델 카스트로 추모 행사 참가)에서 귀환(12.9, 중통·중방)
- (미상) 김정은 黨 위원장, 「농근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 촬영 시 참가(12.11, 중통·중방·평방)
- 12.11 성·중앙기관 일꾼들의 축구 경기대회 결승(김일성경기장) 관람(12.11, 중통)
- (미상) 김정은 黨 위원장, 원산 군민발전소(자력갱생 창조물) 공개 활동 시 영접(12.13, 중방·중통)
- 12.14 김일성 '새날 소년동맹' 결성(12.15) 90주년 기념 중앙 보고대회(청년 중앙회관) 참가(12.14, 중통)
- 12.17 김정은, 김정일 사망 5주기 금수산궁전 참배 시 동행(12.17, 중통·중방·평방)

- 12.17 김정일 사망 5주기 중앙 추모대회(금수산궁전 앞 광장) 참가(12.17, 중통·중방·평방)
- (미상) 김정은, '마식령 스키경기-2016' 관람 시 동행(12.19, 중통·중방)
- 12.22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대회 참가자들과 조선 기록영화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 주시어' 관람(12.22, 중통·중방)
- 12.23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대회 참가(12.24, 중통·중방)
- 12.28 김정은,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 및 '모란봉 악단 및 공훈 국가합창단 합동공연'(평양) 관람 시 동행(12.29, 중통·중방)

### **최부일(인민보안상)**

- 12.24 김정숙 99회 생일 기념 대성산 혁명열사릉 김정숙 동상에 화환 진정 (12.24, 중통·중방)

### **최선희(외무성 북아메리카국 국장)**

- (미상) 訪北(12.13~15) 캐나다 외무성 대표단(단장: 사라 테일러 북아시아 및 오세안주 국장)과 상호관심사 토의(12.15, 중통)

### **최영호(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 (미상) 김정은 黨 위원장, 리설주와 함께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 지휘 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2016' 공개 활동 시 영접(12.4, 중방·중통)

### **최태복(당 중앙위 부위원장)**

- 12.14 再選 쿠웨이트 민족회의 의장(마르주끄 알리 알 가님)에게 축전(12.15, 중통)
- 12.17 김정일 사망 5주기 중앙 추모대회(금수산궁전 앞 광장) 참가(12.17, 중통·중방·평방)
- 12.19 올해 공로자들에 대한 '국가표창 수여식(만수대의사당)' 참가(12.19, 중통)
- 12.22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대회 참가자들과 조선 기록영화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 주시어' 관람(12.22, 중통·중방)
- 12.23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대회 참가(12.24, 중통·중방)
- 12.28 김정은,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 및 '모란봉 악단 및 공훈 국가합창단 합동공연'(평양) 관람 시 동행(12.29, 중통·중방)

## 한광상(조선인민군 중장)

(미상) 김정은, '마식령 스키경기-2016' 관람 시 동행(12.19, 중통·중방)

## 한상준(강원도 인민위원장)

12.14 강원도 '12월6일 소년단 야영소'·원산 구두공장 종업원들, '김정은 현지 지시 관철' 꺾기모임 참가(12.15, 중방)

## 한성렬(외무성 부상)

(미상) 訪北(12.13~15) 캐나다 외무성 대표단(단장: 사라 테일러 북아시아 및 오세안주 국장)과 면담(12.15, 중통)

## 허종만(총련 중앙상임위 의장)

12.02 日 정부의 對北 독자 제재 강화 결정 관련 '상임협의회'를 조직(12.7, 중통·중방)

## 황병서(총정치국장)

(미상) 전선 포병부대들의 포병대 집중화력 타격연습 공개 활동 시 영접(12.2, 중통·중방·평방)

(미상) 김정은 黨 위원장, 제525군부대 직속 특수작전 대대 전투원들의 전투 훈련장 공개 활동 시 영접(12.11, 중통·중방·평방)

(미상) 김정은 黨 위원장, 조선인민군 15호 수산사업소 공개 활동 시 동행(12.15, 중통·중방)

12.17 김정은, 김정일 사망 5주기 금수산궁전 참배 시 동행(12.17, 중통·중방·평방)

12.17 김정일 사망 5주기 중앙 추모대회(금수산궁전 앞 광장) 참가 및 연설(12.17, 중통·중방·평방)

(미상) 김정은, '마식령 스키경기-2016' 관람 시 동행(12.19, 중통·중방)

(미상) 김정은,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별 방사포병 중대 사격경기 공개 활동 시 현지 영접(12.21, 중통·중방)

(미상) 김정은, '길영조' 영웅 추격기 연대 전투 비행사들의 야간 습격 전투 비행 훈련 공개 활동 시 동행(12.21, 중통·중방)

12.23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대회 참가(12.24, 중통·중방)

- 12.28** 김정은,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 및 '모란봉 악단 및 공훈 국가합창단 합동공연'(평양) 관람 시 동행(12.29, 중통·중방)
- 12.29** 조선인민군 제4차 수산부문 열성자회의(평양) 참가, 보고(12.29, 중통)
- 12.31** 조선인민군 제4차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을 위한 연회(목란관)에 참가, 연설(1.1, 중통)

# 월간 보도일지

## 대내동향

### 12.01(목)

- <3.1 월간> 창간(‘36.12.1) 80주년 중앙보고회 진행(11.30, 청년중앙회관), 김기남(보고) 등 참가(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일 사망(12.17) 5주기 즈음 ‘김정일의 사상과 위업은 혁명과 건설을 힘 있게 추동하는 백전백승의 기치, 만능 보검’이라고 칭송하며 ‘함북 북부지역에서 승리를 이룩한 기세 드높이 모든 전선에서 최전성기를 힘차게 펼쳐나가자’고 호소(중앙통신·노동신문/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전사, 제자답게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자)
- 「농근맹」 제8차 대회 기념사진 전람회 ‘태양과 오곡백과’ 개막식(12.1),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온실 남새 부문 과학기술토론회-2016’ 개막식(12.1), 농업과학원 평양 남새 과학연구소에서 진행(중앙통신)
  - 곽범기(黨 부위원장), 고인호(내각 부총리, 개막사), 계획남(「과기총」 부위원장), 계영삼(농업과학원 원장) 등 참가
- 국가과학원 생물공학 분원, 새로운 내염성 벼 종자 육성과 종자확보사업을 다그쳐 식량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게 되었다고 선전(중앙통신)
  - \* 원산 철도차량 연합기업소, 2축 3대차식 100t 화차 새로 제작(중앙통신)
  - 곡선이 심한 철길구간의 탈선 위험과 차바퀴 턱마모를 줄여 운행의 안전성 확보
- ‘세계 에이즈의 날’에 즈음한 행사(12.1),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중앙통신)
  - 중앙과 각 도 위생선전관들에서도 에이즈 예방에 대한 집중 선전활동 진행

### 12.02(금)

- 김정은 黨 위원장, 전선 포병부대들의 포병대 집중화력 타격연습 공개 활동(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황병서(軍 차수), 리영길(육군 상장), 박정천(포병국장, 육군 중장) 등이 영접
  - 포병대 집중화력 타격연습에는 南 서북 도서 방위사령부 관하 6 해병여단과 연평부대를 쓸어버릴 임무를 맡고 있는 서남전선 수역 최전방의 섬 방어대 포병 구분대들과 서울시를

비슷한 전선 주 타격방향과 보조 타격방향의 南 작전지대 군사대상물들과 반동 통치기관들을 타격할 임무를 맡고 있는 전선 중장거리 포병 구분대들이 참가

- 김정은, 정의의 전쟁의 발발과 함께 서남전선 포병부대들이 터쳐올리는 승전의 포성은 남진하는 인민군 부대들에 날개를 달아줄 것임.

- 함북도 북부 피해지역 학교들 개학식(12.1), 현지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주오(내각 부총리), 최동명(黨 부장), 김승두(교육위원장), 전승훈(함경북도 당 위원장), 리상관(함경북도 인민위원장) 등 참가
- 「농근맹」 제8차 대회 기념 사업성과 전시회 개막식(12.2), 리일환(당 부장)·리명길(농근맹 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중앙통신)
- 김일성종합대학, 피부 측정 분석기 연구 개발(중앙통신)

### 12.03(토)

- 김기남·곽범기(黨 부위원장) 및 당 중앙위·「농근맹」 책임 일꾼들, 12월 3일 「농근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 숙소 축하 방문(중앙통신·중앙방송)
  - \* 「농근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 12월 3일 평양 도착 및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꽃바구니 진정(중앙방송·중앙통신)
  - \* 「농근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 12월 3일 대성산 혁명열사릉 참관(중앙방송)
- 함경북도(6개 시·군, 1만 1,900여 세대)·황해남도(강령군, 수백 세대·배천군 읍지구, 200여 세대)·함경남도(북청군 용전 과수농장, 80동)·황해북도(수안군 좌위 협동농장, 150동)·평안북도(의주군 수진리, 200여 세대) 등 “올해 각지에 수만 세대 살림집 건설” 선전(중앙통신)
- 홍건도 간석지(※갯벌) 2단계 건설(선천 앞바다 여러 도(島)들을 연결해서 5,500정보 새 땅 얻는 대자연 개조사업) 시작 및 12월 2일 “7만산 발파” 성공(중앙방송)
- 교육위원회, 전국 각지에 수십 개 기술 고급 중학교 신설 및 “자기 지역의 경제 지리적 특성에 맞는 금속·석탄·전력·수산·농산 등 기술과목들을 배워주게 된다”고 선전(평양방송)
- 「국제 장애자의 날(12.3)」 관련 ‘김정은의 장애인 우대·배려(문수 기능회복원에 장애인들 위한 기능회복 시설 완비)’ 등 北 장애인들은 “보람찬 노동생활, 풍부한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北 사회주의 제도’ 선전(중앙방송/서로 돕고 이끄는 우리 사회)

### 12.04(일)

- 김정은 黨 위원장, 리설주와 함께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 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2016’ 공개 활동(중앙방송·중앙통신)

- 황병서·리명수·박영식·리영길·조남진·조경철·최영호·손철주 현지 영접
  - 당 중앙위 책임 일꾼들인 리수용·리만건·오수용·김영철·리일환·리영래·리병철 등 관람
  - 오전 9시, 김정은은 리설주와 함께 비행장에 나와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노동적위군 명예 위병대 사열 및 전투 비행사들에게 출격명령을 내렸음
  - 김정은은 항공군안의 모든 비행 지휘성원들·전투 비행사들은 훈련의 질을 끊임없이 높이며 비행훈련을 정상화·생활화·습성화를 지시했으며,
  - 최후 공격명령이 내리면 침략의 본거지들을 가차 없이 초토화 해버리고 남진하는 인민군 부대들에 진격의 대통로를 열어주라고 강조
  - 황병서(軍 총정치국장), 경기대회 순위 발표/리명수(軍 총참모장), 우수한 단위와 성원들에게 컵과 메달·상장 수여
  - \* 김정은, “절세위인들을 높이 우러러 모시며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중앙방송)
- 北 여자 축구팀, 12월 3일 국제축구연맹 2016년 U-20 여자 월드컵 결승전, 프랑스에 3:1 승리 및 1위 쟁취(중앙통신·중앙방송)
  - 「농근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 금수산궁전을 찾아 김일성 父子 참배(중앙통신·중앙방송)
    - \* 「농근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 기록영화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어’ 인민문화궁전에서 12월 4일 관람(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사 창립 70돌 기념 보고회(12.4), 김기남(黨 부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중앙통신)
  - ‘12월5일 청년광산’ 창립 30돌 기념 보고회, 12월 4일 진행(중앙통신)

## 12.05(월)

- 「농근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 과학기술전당 참관(중앙방송)
- 오산덕상 체육경기대회 개막식(12.5), 김일국(체육상, 개막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빙상관에서 진행(중앙통신)
  - ※ 체육상 : 리종무에서 김일국으로 교체
- ‘국제 장애인의 날’(12.3)에 즈음한 기념모임(12.5), 김문철(조선 장애자 보호연맹 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중앙통신)
- 北 교육위원회, 각지 주요 공업지구·농촌 지역·수산기지 등 지역의 경제 지리적 특성에 맞는 기술 고급중학교 100여 개 신설(중앙통신)
- 北 각지 잠업 부문 다수확자들, 11월 30일 평양 도착 및 금수산궁전·만경대·과학기술전당 등 참관(중앙통신)

## 12.06(화)

- 김정일 저작(주체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 발전시키자, '91.12.5 발표) 해설 및 "혁명 전통은 조선노동당과 혁명의 역사적 뿌리이고 그 명맥을 굳건히 이어주는 핏줄기이며 사회주의 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라고 '혁명전통 불변' 강조(중앙통신·노동신문/주체의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담보하는 만년초석)
- 北 여자 축구팀(국제축구연맹 2016년 U-20 여자 월드컵경기 우승), 12월 6일 귀환 및 리룡남(내각 부총리)·김일국(체육상) 등 평양 국제비행장 출영(出迎)과 시민들 연도 환영(중앙방송·중앙통신)
- 「농근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 만경대 방문 및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과학기술 전당·중앙계급 교양관·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평천 혁명사적지 참관(중앙통신·중앙방송)
- 2016년 전국 농업 과학기술 성과전시회 및 발표회(100여 건 과학기술 성과자료 제출·190여 종 500여 점 전시품 출품) 개막(12.6, 농업과학원에서 개막식), 김일성종합대학 과학자 등 참가(중앙통신)
- 이과대학, '100% 국산화된 성능 높은 유기 액체형 연유 첨가제(8월 국가 과학기술성과 등록)' 개발 및 단위에 도입(중앙통신)
  - \* 육해운성 대동강 갑문관리국과 여러 단위 기술자·연구사들, 새로운 대동강 유역 "큰물 관리 체계" 완성(중앙방송)
- 왕재산 예술단 공연, 평양에서 연일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하나음악 정보센터(평양 통일거리 위치)를 '종합적 예술정보기지' 라며 올해 수천 명(외국인 등 1,300여 명) 방문 등 소개(중앙통신)

## 12.07(수)

- 김정은 黨 위원장, 새로 개건된 강원도(문천시) '12월6일 소년단 야영소' 공개 활동(중앙방송·중앙통신)
  - 조용원(黨 부부장)·마원춘(국무위원회 설계국장) 동행 및 박정남(강원도 黨 위원장) 현지에서 영접
  - 부지면적 16.8㎡·연건평 1만 5,530여 ㎡의 강원도 12월6일 소년단 야영소는 2개동의 야영각과 식당·해수욕장 등으로 이루어짐
  - 김정은은 강원 땅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야영기지, 사랑의 보금자리가 또 하나 생겼다고 하면서 강원도 인민들이 큰일을 했다고 치하
- [조선중앙통신사 상보(12.6)] '함북도 북부 피해 복구 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 승리를 쟁취한데 대한 상보를 발표 한다'며 '당 제7차 대회가 열린 역사적인 2016년의 최절정을 이루는 위대한 승리'라고 강조(중앙통신·중앙방송)

- 1만 1천 900여 세대의 단층·3층·5층 살림집들과 100여 개 탁아소·유치원·학교·병원·진료소들 새로 건설, 1만 5천 여 세대 살림집들 보수
- 190여 만㎡의 두만강 제방 및 호안 성토, 수십 km의 강하천 정리공사, 수백 km의 철길·도로·수십 개의 다리 복구
- 전국 전자자동화 부문 과학기술발표회(12.6~7), 조선 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 주최로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중앙통신)
  -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여러 단위의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인민경제 현대화와 정보화를 위한 120여 건의 논문들 발표
- 국가체육지도위, 2016 U-20 여자 월드컵 축구선수단을 위해 옥류관에서 환영 연회(12.7) 마련(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일환(국가체육지도위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꾼들, 선수, 감독들과 가족들 참가

## 12.08(목)

- 「농근맹」 제8차 대회, 12.6~7 평양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1. 「농근맹」 중앙위 사업총화에 대하여(리명길 「농근맹」 위원장 보고)
  - 2. 「농근맹」 중앙검사위 사업총화에 대하여(신창성 중앙검사위원장 보고)
  - 3. 「농근맹」 규약 개정에 대하여
  - 4. 「농근맹」 중앙지도기관 선거에 대하여(「농근맹」 중앙위, 중앙검사위, 집행위 선거) 의정들 승인
  - \* 「농근맹」 제8차 대회 경축 농업 근로자들의 농약무도회, 12월 7일 진행(중앙통신)
  - 김기남(黨 부위원장), 리일환(黨 부장), 리명길(「농근맹」 위원장) 등 관람
- 김정은 黨 위원장, 서한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 수행에서 농업근로자동맹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하여'를 「농근맹」 제8차대회 참가자들에게 전달(중앙통신·중앙방송)
  - 「농근맹」이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다하기 위해 전 동맹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고 「농근맹」 조직을 농촌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에 힘 있게 밀고 나가며 당의 농업정책 관철에로 불러일으켜 농업생산에서 획기적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함.
  - 「농근맹」 조직들의 자립성을 높여주어 주인다운 입장에서 사업을 창발적으로, 주동적으로 밀고나가도록 하여야 하며 「농근맹」 조직들에 사회적 과제를 과중하게 주거나 다른 사업에 망탕 동원시키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김정은 黨 위원장, 김일성경기장 개건·보수 공사를 적극 지원한 근로자들(영흥 대외 건설자 양성사업소 박철구 등 12명)에게 감사 전달(중앙방송)
- 전국 제염 부문 과학기술발표회(12.7~8), 남포시 온천군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 전국 도루메기(도루묵) 요리경연(12.7~8), 강원도 원산시에서 진행(중앙통신)
- 고고학연구소, 황해북도 봉산군 천덕리에서 '고구려 무덤떼' 새로 발굴(중앙통신)
  - 185㎡의 구역 안에 근 30기에 달하는 무덤들이 4열로 질서정연하게 자리 잡고 있음.

- 무덤 무지들은 대부분 직경이 10m, 높이 2m 정도이고 제일 큰 무덤 무지는 직경이 17m, 높이 2.4m 정도이며 무덤들 상호간 거리는 10~20m 정도임.
- 무덤떼에서 사람 뼈, 말뼈, 청동 손가락, 청동 장식품, 회색 도기 등 여러 가지 유물들 출토

## 12.09(금)

### ■ 김정은 黨 위원장, 원산 구두공장 공개 활동(중앙통신·중앙방송)

- 조용원(당 부부장) 동행 및 박정남(강원도 당 위원장) 현지에서 영접
-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하나의 제품을 생산해도 최상의 질적 수준에서 다양하게 만들어 안겨줌으로써 인민들이 우리의 것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폐부로 절감하게 해야 함.
- △신발들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할 데 대한 문제, △모든 생산 공정 자동화, △종업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 향상, △자재 국산화 실현 등 과업들 제시

### ■ 「농근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의 생일 축하모임(12.8), 리명길(「농근맹」 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4.25여관에서 진행(중앙통신)

### ■ 북·남·해외 제 정당·단체·개별 인사들의 연석회의 북측 준비위원회 총회(12.8), 평양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전 민족적인 통일대회합 준비사업과 그 성사를 위한 방도적 문제들을 협의하고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
-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과 박명철 「조국전선」 중앙위 서기국 국장을 전 민족대회 북측 준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선

### ■ 김정은의 「농근맹」 제8차 대회 서한(12.6) 해설 및 '전체 농근맹원·농업 근로자들은 「농근맹」 제8차 대회를 계기로 당과 조국, 인민 앞에 다진 맹세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김정은 영도 따라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더욱 다그칠 것' 독려(중앙통신·노동신문/농업 근로자 동맹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여 당의 사회주의 농촌 건설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자)

- \* 김정은의 「농근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 제시된 과업 관철 농업 근로자·농근맹원들 궤기모임 진행(12.8, 강서구역 청산리), 리명길(위원장, 보고) 등 참가(중앙방송)
- \* 「농근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 위한 강습, 12월 9일 평양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 「농근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 평천 혁명사적지·장천 남새 전문 협동농장(평양시 사동구역)·「농근맹」 제8차 대회 기념사진 전람회장·「농근맹」 사업 성과 전시회장 참관 및 문수 물놀이장 방문 등 보도(중앙통신·중앙방송)
- \* 「농근맹」 제8차 대회 경축 전국 농업 근로자 예술축전 입선자들 종합공연 '원수님 따라 이 세상 끝까지', 12월 9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및 「농근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 관람(중앙통신·중앙방송)

### ■ 김일성·김정일父子 모자이크 벽화(언제나 인민을 위한 길에 함께 계시며), 사리원사·신익주의 공장 등에 건립 준공(중앙방송)

- 홍길남(조선 녹색위업 연구개발협회 서기국장), “황해남도 강령군을 국제 녹색 시범 지대로 개발사업 추진” 및 총 계획안 작성(중앙통신)
  - 강령군에 녹색제품의 생산 및 실현을 위한 공업지구와 현대적인 하부구조 시설들이 건설되고 주민지역, 연안지역, 산림지역, 종합적인 기능을 가진 관광지역 등이 꾸러지게 됨
- 특장지구 탄광 연합기업소, 4일까지 200일 전투 실적 98.1% 등 ‘200일 전투 결속’ 박차 및 평양산원, 올해 1,940여명 환자 완치(최중증 환자 60여 명·중구급 환자 380여 명 환자 포함) 등 ‘진료 성과’ 선전(중앙방송)

## 12.10(토)

- 박봉주(내각 총리), 북창·덕천지구 중요 기업소들 점검(중앙통신·중앙방송)
  - 북창 화력발전 연합기업소, 덕천지구 탄광 연합기업소 덕천 탄광, 승리자동차 연합기업소 생산 및 능력 확장공사 정형을 구체적으로 점검
  - 이에 앞서 평양 화장품공장 현대화 공사 정형을 점검하고 건설을 다그칠 데 대하여 강조
- 김정일 사망(12.17) 5주기 즈음 ‘조선의 역사는 위대한 장군님의 역사’라는 칭송과 ‘김정일의 혁명역사 본질은 사상과 업적의 철저한 계승에 있다’는 주장 속에 ‘김정은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김정일 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세계만방에 떨쳐갈 것’이라고 강조(중앙통신·노동신문/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혁명역사는 끝없이 즐기치게 흐를 것이다)
- 평천 혁명사적지, 개건 후 지금까지 2,270여 개 단체 25만여 명의 군인, 근로자, 청소년 학생들이 참관했다고 선전(중앙통신)

## 12.11(일)

- 김정은 黨 위원장, 제525군부대 직속 특수작전 대대 전투원들의 전투훈련장 공개 활동(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황병서(軍 총정치국장), 리명수(軍 총참모장), 리영길(軍 총참모부 제1 부총참모장), 박정천(軍 포병국장), 김영복(軍 제11군단장)이 훈련장에서 영접
  - 훈련은 제525군부대 직속 특수작전 대대 전투원들의 실전능력을 판정하고 남조선 작전지대 안의 특정 대상물들에 대한 타격방법의 현실성을 확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
  - 김정은은 특수작전 부대의 전투원들이 남반부를 활무대로 삼고 과감한 전투행동을 벌리자면 행군훈련, 사격훈련, 수영훈련, 자연계산 극복훈련과 아전생존 능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을 실전의 분위기 속에서 강도높이 진행하여 유격전의 능수들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
  - 훈련에 참가한 전투원들을 만나 훈련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특수작전 대대에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주고 기념촬영
  - \* 김정은 黨 위원장, 「농근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최룡해, 김기남, 리일환, 리명길 참가

- 성·중앙기관 일꾼들의 축구 경기대회 결승(12.11),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중앙통신)
  - 최룡해, 김평해, 로두철, 조연준 등 관람

## 12.12(월)

- 김정은 사망(12.17) 5주기 즈음 "김정일 유훈은 과학이고 진리,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승리"라며 '김정일 유훈 관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나갈 것' 강조(중앙통신·노동신문 /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끝까지 관철해 나가자)
- 가정 화초 재배상식을 폭넓게 주는 프로그램 <문명(화초 1,500여 종, 9개장·20개절)>과 도서 <가정 화초 백과> 소개(중앙통신)
- 왕재산 예술단의 지방순회 공연과 평양 공연, 12월 12일 동평양 대극장 공연을 끝으로 종료(중앙통신)

## 12.13(화)

- 김정은 黨 위원장, 원산 군민발전소(자력갱생 창조물) 공개 활동(중앙방송·중앙통신)
  - 최룡해·오수용(黨 부위원장), 김용수(黨 부장), 조용원(黨 부부장) 동행 및 박정남(강원도 黨 위원장) 등 현지 영접
  - 김정은은 연혁소개실과 원산 군민2호발전소 발전기실, 조종실 등을 돌아보면서 건설정형과 전력생산 및 공급상태를 구체적으로 요해
  - 원산 군민발전소가 완공됨으로써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전력과 주민 생활용수, 공업 및 관개용수 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
- 김정일 업적 연구·체득 및 김정은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기 위한 '중앙연구 토론회(12.13)', 김기남·양형섭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토론회에서는 김정일 혁명업적과 김정은의 영도력,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높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에 대한 논문들 발표
  - \* 北, '새날 소년동맹' 결성(12.15) 90주년 즈음하여 '김일성이 결성하고 김정일에 의하여 전통이 이어졌으며 김정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 발전되고 있다'고 선전(중앙통신)
- 「여맹」 중앙위 제6기 제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12.13), 김정순(여맹위원장, 보고) 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에서 진행(중앙통신)
  - 김정은 서한(은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 따라 여성동맹 사업을 더욱 강화하자)에 제시된 과업 관철을 위한 여맹조직들의 과업에 대하여 토의
- 애국 모란 피복공장 창립(12.14) 30주년 기념 보고회, 12월 13일 현지에서 진행(중앙통신)
  - 애국 모란 피복공장 노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조선노동당 중앙위 축하문 전달

- '4.26 만화영화 촬영소', 역사 만화영화 '고주몽'(1부~10부) 새로 창작 발표(중앙통신)

## 12.14(수)

- 김일성 '새날 소년동맹' 결성(12.15) 90주년 기념 중앙 보고대회(12.14), 최룡해·양형섭·김수길·전용남(청년동맹 1비서, 보고) 등이 참가한 가운데 청년 중앙회관에서 진행(중앙통신)
  - 김정은이 우리 혁명과 조선 소년운동을 현명하게 이끌어 우리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
- '김정일을 당과 혁명의 수령으로 모시고 김정은의 선군혁명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기 위한'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결의모임(12.14), 리일환(당 부장)·주영길(직총 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중앙 노동자회관에서 진행(중앙통신·평양방송)
- 【김정일 사망(12.17) 5주기 관련 대내외 동향】
  - \* 중앙미술전시회 개막식(12.14), 김기남·양형섭·리룡남(내각 부총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조선 미술박물관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 조선 우표 집중전시(12.14~23), 조선 우표전시장과 조선 우표박물관에서 진행(중앙통신)
  - \* 시리아 대통령(바샤르 알 아사드), 김정은에게 12월 13일 전문(중앙통신)
  - \* 주북 유엔아동기금 대표부 성원들·민주콩고 재건 및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당 총비서(앙리 모바 사카니이)·재중조선인 총연합회 대표단, 12월 14일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각각 꽃바구니 진정(중앙통신·중앙방송)
  - \* 재미동포 전국 연합회 대표단(단장 : 윤길상 회장)·재중조선인 총연합회 대표단(단장 : 차상보 부의장) 등 해외동포 대표단들, 12월 14일 평양 도착(중앙통신·중앙방송)
- 평양 화력발전 연합기업소, 12월 10일 현재 200일 전투 목표 100% 완수(중앙방송)

## 12.15(목)

- 김정은 黨 위원장, 인민군 15호 수산사업소 공개 활동(중앙통신·중앙방송)
  - 황병서(총정치국장), 서흥찬(인민무력성 제1부상) 동행 및 현지에서 인민군 제549군부대 지휘관들이 영접
  - 인민군대 안의 수산 부문 일꾼들과 어로 전사들이 12월 14일 현재 연간 물고기 잡이 계획을 170% 수행
  - 김정은은 △실 새 없이 어로전투를 전개할 데 대한 문제, △고깃배와 어구들을 보다 현대화 하기 위한 문제, △어로공들의 생활을 잘 돌봐줄 데 대한 문제 등 사업소의 관리 운영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가르침을 주었음.
- 강원도 '12월6일 소년단 야영소'원산 구두공장 종업원들, '김정은 현지 지시 관철' 궤기모임 진행(12.14) 및 박정남(강원도 黨 위원장)·한상준(道 인민위원장) 등 참가(중앙방송)

## ■ 【김정일 사망(12.17) 5주기 추모 행사 등 동향】

- \* 청년학생들(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 앞)·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남포시 온천군 운하 협동농장)·여맹일꾼들과 여맹원(여성회관) 등 “근로단체 맹세모임” 진행(12.15), 최룡해(黨 부위원장) 등 참석(중앙방송)
  - \* 주북 경제 및 무역 참사단과 유엔 개발계획·세계식량계획·세계보건기구·유엔 식량 및 농업 기구·유엔 인구기금대표부 성원들, 12월 15일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 헌화 참배(중앙통신·중앙방송)
  - \* 조일민(「반제민전」 평양지부 대표), 12월 15일 ‘김정일의 조국통일 업적’ 칭송 중통 기자회견(중앙통신·중앙방송)
  - \* 나이지리아 대통령(무함마두 부하리), 12월 15일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꽃바구니 전달(중앙통신·평양방송)
  - \* 재일본 조선인 추모대표단(단장 : 오형진 재일 조선인 역사연구소 상임고문), 12월 15일 평양 도착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 헌화 참배(중앙통신·중앙방송)
  - \* 중국 항일 혁명열사 장울화 가족 일행 및 항일 혁명투쟁 연고자 채세영 가족·감자화·류통사·호진일 가족들 일행·재중 항일 혁명열사 박길송 가족·재중 항일 혁명투사 서순옥 가족·해외 연고자 손원태 가족, 12월 15일 평양 도착(중앙통신·중앙방송)
- 과수와 산림자원 병충해 사전방지용 ‘천연향 나노 분산제(평양 천연향료 연구소 개발)’의 ‘100% 국산품 및 살충효과(3년 동안 6만여 m<sup>2</sup> 95% 살충률 보장) 등 소개(중앙통신)
- 대안 중기계연합기업소 기술자 등, 연간 발전설비 생산 계획 130% 수행 및 변압기·전동기 생산 계획 183%·178% 초과 수행(중앙방송)
- ‘2016년 종목별 최우수 선수’ 선정(역도: 엄윤철·림정심, 기계체조: 리세광, 탁구: 김송이, 사격: 김성국·박명원, 마라톤: 박철·김혜성, 양궁: 전철·강은주) 발표(중앙통신)

## 12.16(금)

-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 12월 하순 평양에서 진행 예고(중앙방송·중앙통신)
- 【김정일 사망(12.17) 5주기 관련 대내외 동향】
- \* 청년 학생들의 회고무대 ‘충정의 한길로 가고 가리라’, 전용남(청년동맹 1비서) 등이 참가한 가운데 12월 16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중앙통신)
  - \* 국가우표발행국, 새 우표(소형전지 2종) 발행(중앙통신)
  - \* 중국 항일혁명 열사 ‘장울화’ 가족 일행과 중국 항일 혁명투쟁 연고자 후보종의 딸 ‘주위’ 가족 일행, 12월 16일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꽃바구니 진정(중앙통신)
  - \* 항일 혁명투쟁 연고자 가족들의 회고모임(12.13), 중국 주재 北 대사관에서 진행(중앙방송)
  - \* 외국의 단체·인사들(2017년 백두산위인 칭송대회 스위스 준비위원회 등)과 해외연고자 가족들(재중 항일 혁명열사 ‘김철’ 가족, 공화국 영웅 ‘안동수’ 유가족 ‘정일심’ 등), 12월 16일 만수대 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꽃바구니 전달(중앙통신)

- \* 중국 조선족 기업가협회 대표단(단장 : 표성룡 회장)과 중국 단둥시 조선족 경제 문화교류 협회 대표단(단장 : 김택룡 회장), 12월 16일 평양 도착(중앙통신)
-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 지난 5년간 180여 개 종 9,000여 만 그루 나무모 생산 (중앙통신)

## 12.17(토)

### ■ 【김정일 사망(12.17) 5주기 관련 대·내외 동향】

- \* 김정은 黨 위원장, 오전 9시 금수산궁전 참배(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 등 동행
- \* 중앙 추모대회, 금수산궁전 앞 광장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추모사), 최태복(사회) 등 참가 및 김기남(黨 대표) → 황병서(軍 대표) → 전용남(청년 대표)이 결의 연설
  - 최룡해는 김정일 혁명생애는 주체혁명의 계승완성과 백두산 대국의 강성번영을 위하여 자신을 촛불처럼 불태운 애국적이며 헌신적인 한 생이었다며
  - 김정일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은 김정은 시대와 더불어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 것이라고 강조
- \* 北, 모든 단위들에 조기(弔旗) 게양(揭揚) 및 12시 정각(北 시간) 일제히 고동을 울리고 (기관차들과 선박들) 3분간 금수산궁전을 향하여 묵상(중앙통신)
  - 김영남, 박봉주, 최룡해 등 관람
- \* 인민군 군인들과 각 계층 근로자들, 금수산궁전 참배 및 각지 김일성 父子 동상과 태양상들에 대한 헌화(중앙통신)
- \* 평안남도·함경남북도·양강도·개성시 등 각지 예술인들과 청소년학생들, 여맹원들의 회고모임 진행(중앙통신)
  - 각지에서 회고모임, 맹세모임, 결의모임 진행
- \* 駐北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무관단·해외 연고자 가족·재일본 조선인 추모대표단·재중 조선인 총연합회 대표단, 금수산궁전 참배(중앙통신)
- \* 반제민전 평양지부 대표와 지부 성원, 금수산궁전 참배(중앙통신)
- \* 김정일은 ‘독창적인 선군혁명 영도로 혁명의 운명,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구원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세기적 기적과 변혁을 이룩하였다’고 칭송하며 ‘김정은을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를 목숨으로 사수할 것’을 독려(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열어주신 최후 승리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자)
- 김정은 黨 위원장, 김일성 父子 동상 건립에 참여한 개성시의 여러 단위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중앙방송)

## 12.18(일)

### ■ 【김정일 사망(12.17) 5주기 관련 대·내외 동향】

\* 음악 서사시 '장군님의 선군길' 공연, 12월 17일 봉화 예술극장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 수산부문 노동계급의 15일 현재 물고기 잡이 계획 111.2% 초과(중앙방송·평양방송)

### ■ 보건성 피부병 예방원에서 제조한 "갓가지 기능성 및 치료용 화장품(여드름 방지 살결물과 치료겔, 비듬제거 샴푸·린스)"의 '피부병 치료, 미백, 피부질 개선기능 등 특효' 선전(중앙통신)

## 12.19(월)

### ■ 노동당 중앙총서, "200일 전투('16.6.1~12.15) 승리적 결속 「보도문(12.18)」" 발표(중앙방송·중앙통신)

- 공업부문에서 200일 전투 총 생산액 목표를 119%로 넘쳐 수행하고 수천여 개의 공업기업소들이 연간 인민경제 계획을 기한 전 초과 완수
- 과학기술 부문에서 처음으로 250kW 풍력발전기를 개발하고 초고전력 전기로용 전극생산 기술 완성 등 과학기술 문제들이 해결되고 첨단기술 산업을 창설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적극 추진
- 나라의 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도약대를 마련하여 모든 부문을 급상승시키기 위한 200일 전투의 총적 목표가 빛나게 달성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높은 고지를 확고히 점령할 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가지게 됨

### ■ 김정은 黨 위원장, '마식령 스키경기-2016' 관람(중앙통신·중앙방송)

- 황병서, 최룡해, 리수용, 오수용, 리영길, 리일환, 김용수, 조용원, 한광상, 박정천, 마원춘 등이 함께 관람
- 스키종목을 세계적 수준에 끌어올려 국제경기들에서 당당히 우승해야 한다고 말하고 나라의 체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과업들 제시

### ■ '김정일은 천재적 예지와 과감한 실천력으로 창조와 변혁의 시대적 모범을 이룩하여 조국번영의 대통로를 열어놓은 희세의 정치원로이며 그의 혁명 활동 역사는 창조와 변혁의 역사'라고 칭송(중앙통신·노동신문/위대한 창조와 변혁으로 조국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안아 오신 절세의 애국자)

### ■ 올해 공로자들에 대한 '국가표창 수여식(12.19)',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중앙통신)

- 김영남,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김평해 등 참가

### ■ 김정숙 생일(김정일 母, 12.24) 경축 전국 풍경화 및 수공예품 전람회(12.19~30), 평양 국제문화회관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조선화, 유화, 수예, 공예품 등 140여점의 미술작품들 전시

### ■ 황해남도 물길 1단계 공사 준공식(12.19), 현지에서 진행(중앙통신)

- 박봉주, 곽범기 등이 참가한 가운데 건설자·지원자들에게 보내는 黨 중앙위 축하문 전달
- 1단계 공사가 완공됨으로써 서부지구 자연흐름식 관개체계가 형성되어 해주·벽성·웅진·강령 지구 전야들에 알곡을 증산할 수 있는 전망이 열렸음.
- \* 석탄공업 부문, 연간 인민경제계획 109.8%로 완수(12.19, 중앙방송)
- 지난해 보다 200만여 톤의 석탄증산과 기본굴진 101.3%, 준비굴진 계획 107.7% 수행성과 이룩
- \* 동해 수산기지들, 겨울철 물고기 잡이 성과 계속 확대 보도(중앙통신)
- 평양출판사, 새해 즈음 3종의 달력과 4종의 축하장 발행(중앙통신)
- 北 축구협회, 2016년 최우수 축구선수 발표(중앙통신)
  - 평양체육단 리명국(男), 4.25체육단 리해연(女), 소백수 체육단 김소향(女)

## 12.20(화)

- 김정은 黨 위원장, 함북도 북부 피해지역 주민들을 적극 지원한 일꾼들과 근로자들 (김일성-김정일기금 위원회 산하 단위 지배인 '최순복' 등 70여 명)에게 감사 전달 (중앙방송)
  - \* 김정은, 100번째 생일을 맞는 '라연해'(함경북도 명천군 고참리 1인민반 거주) 할머니에게 생일상 전달(중앙통신)
- 김일성·김정일 현지도 표식비·혁명사적 표식비, 평양 고무공장·흥남 전극공장·사리원 기초식품 공장에 건립(중앙통신)
- '조선에서 사회보험제에 의한 혜택은 국가적, 사회적 부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적으로 담보되어 있다'며 '나라의 경제력이 강화되고 인민들의 물질 문화생활이 향상되는 데 따라 국가예산에서 사회보험에 지출되는 자금을 끊임없이 늘리고 있다'고 선전(중앙통신)

## 12.21(수)

- 김정은 黨 위원장, 인민군 대연합부대별 방사포병 중대 사격경기 공개 활동(중앙통신·중앙방송)
  - 황병서(총정치국장, 차수), 리명수(총참모장, 차수), 리영길(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국장, 상장), 박정천(포병국장, 중장) 등 현지 영접
  - 포병들은 실전과 같은 정황들을 조성하고 훈련하여 언제나 명중포탄을 날릴 수 있게 준비해야 함.
- 김정은 黨 위원장, '길영조' 영웅 추격기 연대 전투 비행사들의 야간 습격 전투 비행 훈련 공개 활동(중앙통신·중앙방송)

- 황병서, 리명수, 리영길, 리병철(당 제1부부장) 동행 및 김광혁(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항공군 상장) 현지 영접
- 전투 비행사들을 그 어떤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맡겨진 공중전투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유능한 전투 비행사, 만능 비행사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함.
- ※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교체 : 최영호 → 김광혁
- '김정은 업적(200일 전투를 승리로 조직 영도)에 관한 사회과학부문 토론회' 진행 (12.21, 인민문화대전) 및 관계부문 일꾼·과학·교육·혁명사적·당 간부 양성기관 교원 등 참가(중앙통신)
  - '김정은 영도업적(200일 전투를 진두에서 조직 영도한 사회주의 강국 건설 투쟁사에서 또 하나의 전환적 국면 마련)에 대한 해설논증 논문' 발표
  - \* 김정은 당 위원장, 박제은(원산 농업종합대학 과학연구원 부원장)·박미술(함흥 후방가족은하 피복공장 지배인)에게 '80·70회 생일상' 전달(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일 저작 발표 관련 "사회주의 교양을 통해 우리식 사회주의가 제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고 '사회주의 교양의 중요성' 강조(중앙통신·노동신문/사회주의 교양은 조국의 운명, 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대한 사업)
  - ※ 김정일 저작: 「사회주의 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시대, 우리 혁명의 절실한 요구이다」 (2006.12.20)
- 황해남도 물길 1단계 건설(\*2012.1. 착공, 2016.12.19. 준공) 투쟁에 관한 「조선중앙통신사」상보 발표, "세세연년 만풍년을 안아오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선전(중앙방송)
  - 황해남도 물길공사는 네 번째(개천-태성호 물길, 백마-철산 물길, 미루벌 물길)로 진행되는 대자연 개조 사업으로 238만여 m<sup>2</sup> 암반 굴착과 448만여 m<sup>2</sup> 토량처리, 13만 8,000여 m<sup>2</sup> 콘크리트 타입 및 400여 개소 물길 굴 등
  - \* 국가과학원 과학자·기술자들의 올해 580여 건 과학연구 및 수산부문 노동계급의 연간 50여 척 고깃배 건조(중앙방송)

## 12.22(목)

-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대회 참가자, 12월 21 평양 도착 및 금수산궁전 참배(중앙방송·중앙통신)
- 박봉주(내각 총리),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 현지 점검(중앙통신)
  - 전기 기관차를 국내산 자재와 원료에 의거하여 생산하기 위한 대책 강구
  - 한편 황해제철 연합기업소를 돌아보고 증산투쟁을 힘 있게 벌려 주체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 데 대하여 강조
- 「농근맹」 제8기 제2차 전원회의(12.22), 리명길(농근맹 위원장, 보고) 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에서 진행(중앙통신)

- 김정은 서한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 수행에서 농업근로자동맹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하여'에 제시된 과업 관철을 위한 조직들의 과업에 대하여 토의
-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서한을 확고한 지침으로 틀어쥐고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 옹호자로서의 사명을 다해 나갈 데 대하여 강조
- U-20 여자 월드컵 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을 축하하는 모임, 청년중앙회관에서 12.22. 진행(중앙통신)
  - 리일환(국가 체육지도위 부위원장), 전용남(청년동맹 1비서, 축하연설) 등 참가
-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대회 참가자, 김父子 동상에 헌화(중앙통신·중앙방송)

## 12.23(금)

- 대회 참가자, 12월 22일 조선 기록영화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 주시어' 관람(중앙통신·중앙방송)
  - 최룡해, 김기남, 최태복, 조연준(黨 제1부부장) 등 관람
- 대회 참가자들, 만경대·대성산 혁명열사능·평천 혁명사적지와 조국 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중앙 계급교양관 참관(중앙통신·중앙방송)
- '전력, 석탄, 금속, 기계, 경공업 등 중요 전선들에서 최근 연간에 있어 본적이 없는 성과들을 연속 이룩하였다'며 '올해 이룩한 성과들은 노동당이 가리킨 자강력 제일 주의야말로 강성변영의 만능열쇠라는 것을 뚜렷이 확증해 주고 있다'고 주장(중앙통신)
- 수산 부문, 연간 물고기 잡이 계획 112% 수행(중앙방송)
- 제32차 국가과학원 과학기술축전('국가과학원 과학 연구 성과 전시회-2016', 12.20.~23.), 국가과학원에서 진행(중앙통신)
- 강원도 예술극장 개건 및 12월 23일 준공식 진행(중앙통신)

## 12.24(토)

-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대회, 김정은 黨 위원장이 개회사를 한 가운데 12월 23일 평양체육관에서 개막(중앙통신·중앙방송)
  - 주석단 : 김정은, 황병서, 최룡해, 김기남(보고), 최태복, 리수용, 김평해, 리만건, 오수용, 광범기, 김영철, 김수길, 김능오, 박태성, 조연준 등 참가
  - 대회는 당의 노선과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기본 전투단위인 초급당 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여 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으로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임.
  -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 경험들과 결함, 교훈들을 분석 총화하고 주체혁명의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초급당 조직들의 사업을 개선 강화해나가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토의하게 됨.

- 김정은은 개회사에서 동북아시아의 현 정세를 비롯한 국제정치 정세와 남조선 정세를 통보하고 병진노선의 정당성을 강조

#### ■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25주년 경축 동향】

- \* 국립교향악단 음악회(12.24, 모란봉극장), 김영남 등 당과 국가 책임일꾼·당·정권기관·근로단체·성·중앙기관 일꾼 등 관람(중앙통신·중앙방송)
- \*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김정은·당·무력·정권기관·사회단체·성·중앙기관 등 명의 꽃바구니, 12월 24일 진정(중앙통신·중앙방송)
- 평양 시내(김일성종합대학·인민무력성·인민보안성·만수대 창작사 등)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인민군 부대 등 명의 꽃바구니 진정
- \* 청년학생 경축 무도회, 12월 24일 당 창건 기념탑·개선문·평양역 광장 등 각지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 중앙(평양 대극장 등)·지방(평안북도·황해남도·황해북도·함경남도·양강도 등)에서 경축공연, 12월 24일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 【김정숙 99회 생일 경축 동향】

- \* 김정은·최부일·로두철·노광철·김덕훈 등 당·무력·정권기관·내각·근로단체·성기관·인민군 등, 12월 24일 대성산 혁명열사릉 김정숙 동상에 화환 진정(중앙통신·중앙방송)
- \* 중앙과 지방의 '여맹 일꾼·여맹원들', 12월 24일 회령 고향집 등 방문(중앙통신·중앙방송)
- \* 청년학생 경축 무도회, 12월 24일 당 창건 기념탑·개선문·평양역 광장 등 각지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 중앙(평양 대극장 등)·지방(평안북도·황해남도·황해북도·함경남도·양강도 등)에서 경축공연, 12월 24일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12.25(일)

#### ■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 2일 회의(12.24, 평양 체육관), 김정은 당 위원장 지도하 각급 토론 등 진행(중앙방송·중앙통신)

- 대회에서는 각급 단위 초급당 위원장들이 자기 단위 당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교훈들에 대해 토론들을 계속
- 일부 단위들에서 초급당 사업이 당의 의도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 있는 편향과 부족점들이 심도 있게 분석되고 호상 비판들이 신랄하게 진행됐으며 결함들에서 교훈을 찾고 철저히 극복하기 위한 방도 토의
- 일꾼들부터가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사업을 앞세우지 않고 당 결정을 형식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결함들 비판
- 비판 토론들과 호상 비판들을 통하여 전당의 초급당 조직들을 조직력과 집행력이 강한 전투 단위로 튼튼히 꾸리고 초급당 위원장들의 사상관점과 사업기풍, 일본새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대책 언급

- 김정은 黨 위원장, 12월 24일 즈음 혁명학원들과 전국 육아원·애육원·초등학교·중등학교 원아들 및 양로원 보양생들에게 '갓가지 식료품' 전달(중앙방송)
  - \* 김정은,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을 적극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중앙방송)
- 김정일 저작(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 의리이다, '95.12.25) 발표 21돌 관련 '혁명적 도덕 의리의 전통이 김정은의 영도에 의해 더욱 즐기치게 이어지고 있다'며 '저작을 삶과 투쟁의 지침으로 삼고 원수님의 선군혁명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 것'이라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혁명적 도덕의리의 숭고한 역사를 수놓아 가시는 위대한 영도)
- 反日 부녀회('26.12.26) 결성 90돌 기념 중앙보고회, 양형섭·김정순(여맹위원장, 보고)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여성회관에서 진행(중앙통신)
  - 모든 여성들과 여맹원들이 김정은의 현명한 영도 따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가치를 높이 들고 주체의 조선 여성운동의 전통과 역사를 끝없이 빛내이며 주체혁명 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할 데 대하여 강조
- 오산덕상 체육경기대회 폐막식, 12.25. 빙상관에서 진행(중앙통신)

## 12.26(월)

-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12.23~25) 폐막(중앙통신·중앙방송)
  - 3일 회의에서 일부 기층 당 조직들의 사업에서 나타난 결함들과 편향들이 비판되었으며 그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들 강구
  - 당의 야전 지휘관들인 초급당위원장들의 대회를 마련해 준 당 중앙의 의도를 심장에 새기고 초급당 조직들의 전투력을 비상히 높여 전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실현에 적극 이바지할 굳은 결의들 표명
  - 김정은은 대회 참가자들이 자기 단위에서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여야 할 것이라며 당의 노선과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초급당 조직들과 초급당 위원장들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고 당 중앙의 의도대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해 나가리라는 믿음 표시
  - 김정은은 결론 '초급당을 강화할 데 대하여'를 하고 '폐회' 선언
-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12.30) 5주년에 즈음한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경축모임(12.26), 주영길(직총위원장, 보고) 등이 참가한 가운데 황해제철 연합기업소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12.24) 25주년에 즈음하여 '김정일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것은 주체혁명 위업, 선군혁명 위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역사적 사변이었다'며 '모두다 김정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주체혁명 위업, 선군혁명 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해 힘차게 싸워 나가자'고 강조(중앙통신·노동신문/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 혁명무력 건설 업적을 끝없이 빛내어 나가자)

- 김정은 黨 위원장, 100번째 생일을 맞는 '전금산'(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거주) 할머니에게 생일상 전달(중앙통신)
- '함북도 북부 피해 복구 전투 주제 미술전시회'(12.26~1.5), 평양 국제 문화회관에서 개막(중앙통신)

## 12.27(화)

-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대회 참가자들, 봉화 예술극장에서 음악서사시('장군님의 선군길') 공연과 평양대극장에서 혁명가극('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등 예술 공연 관람(중앙통신)
-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12.23-25, 평양) 의미(초급당의 강화로 전당 강화의 지름길을 열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위업 추동)'를 강조하며 '대회 참가자들과 전당 초급당 위원장들의 대회정신 철저한 무장 및 김정은 과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할 것' 주문(중앙방송·노동신문/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이정표로 될 역사적인 대회)
- 김정은 黨 위원장, 양강도 여러 단위(혜산 강철공장 종업원 등)-근로자들에게 「감사(김정일 동상 건립사업 충정)」 전달(중앙방송)
- 2017년 새해 즈음 '김원균 명칭 음악종합대학' '평양 제1음악학원' 한일영·마신아 학생 피아노 연주회(문화성·주북 러시아 대사관 공동 명의) 진행('김원균 명칭 음악종합대학' 음악당), 오영철(문화성 부상) 및 주북 러시아 대사(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등 관람(중앙통신·중앙방송)

## 12.28(수)

- '조선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된 가장 선진적인 사회'라며 '인민대중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우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라고 강조(중앙통신·노동신문/우리식 사회주의는 주체의 인민관·인민철학이 구현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과학이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승리도 과학이라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깊이 간직하고 당의 사회주의 강국건설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임.
-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12.30) 5주년 관련 대내·외 동향】
  - \* 인민무력성, 駐北 무관단을 위해 '영화감상회'(12.28)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박영식(인민무력상), 駐北 쿠바 대사관 무관이 대표로 전하는 '김정은 꽃바구니와 축하편지' 접수
  - \* 청년학생들 및 여맹 일꾼들과 여맹원들의 경축모임, 청년중앙회관과 여성회관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김정은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더욱 굳게 뭉쳐 軍民대단결의 위력으로 주체혁명 위업, 선군혁명 위업을 빛나게 계승 완성해 나갈 결의 피력
- \* 외국 선박 선원들의(몽골 국적 선박 ‘글로리호프 6호’) 경축모임, 청진항에서(12.28)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 駐北 이집트 특명 전권대사와 대사관 성원들, ‘김정은 꽃바구니와 축하편지’ 전달(중앙통신)
- 北, 올해는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 높이 인재강국 건설의 든든한 도약대를 마련한 뜻깊은 해였다고 보도(중앙통신)
  - 고등교육 부문과 보통교육 부문에서 교육내용을 개선하고 우월한 교육방법을 창조,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화 되어 전국 110여 개 대학들과 중학교, 소학교들에서 64만여 건의 교수안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였고 전자화된 교수안들을 제작하여 이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식적 효과를 높였음.
  - \* 北, 김정은의 따사로운 손길에 떠받들려 올해 전국적으로 20여개의 육아원·애육원·초등학교·중등학교가 새로 건설되는 성과를 이룩했다고 보도(중앙방송)

## 12.29(목)

-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12.30) 5주년 관련 대내·외 동향】
  - \* 청년 중앙 예술선전대·직총 중앙노동자 예술선전대 경축공연(12.28), 청년중앙회관과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중앙통신)
  - 「농근맹」 예술선전대 경축공연(12.29), 리명길(농근맹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 남새 전문협동농장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 국가우표발행국,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5주년 경축 새 우표(개별우표 1종) 발행(중앙통신)
  - \* 주북 무관단, 12월 29일 만경대 혁명학원 참관(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黨 위원장,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대회 참가자들과 ‘모란봉악단 및 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12.28, 평양) 관람(중앙통신·중앙방송)
  - \* 김정은 黨 위원장,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중앙통신·중앙방송)
  - 황병서, 최룡해, 김기남, 최태복, 리수용, 김평해, 리만건, 오수용, 곽범기, 김영철 동행
- 조선인민군 제4차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 인민무력성에 세워진 김 아버지 동상에 12.28. 헌화(중앙통신)
- 인민군 제4차 수산부문 열성자회의(12.29), 황병서(총정치국장, 보고)·박영식(인민무력상) 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에서 진행(중앙통신)
- 北, 「청년동맹」 제9차 대회 개최 및 여자축구 월드컵(U-20, U-17) 우승 등을 거론하며 ‘2016년은 김일성·김정일 청년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친 긍지 높은 한 해였다’고 선전(중앙통신)
- 北, 천리마 타일공장의 타일·사리원 대성 타일공장의 목욕 수건 등 올해 생산된 최우수 제품들에 ‘12월15일 품질메달’ 수여(중앙통신)

- 수여식, 12월 29일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
- '영웅 청년 위훈기념비' 준공식(12.29),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에서 진행(중앙통신)
  - \* '마천령 굴'(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연결) 준공식(12.29), 현지에서 진행(중앙통신)
- 화학공업성, '탄소 하나 화학공업' 창설에 주력(중앙통신)
  - 탄소 하나 화학공업은 값비싼 수입원료 대신에 국내의 석탄으로 기초화학 제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공업으로 나라의 화학공업을 주체화하는 데 큰 의의를 가짐.
- 육해운 부문, 연간 인민경제 계획 131.9% 수행(중앙방송)

## 12.30(금)

-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12.30) 5주년 관련 대내·외 동향】
  - \* 김정은 영도 아래 “원수들의 가증되는 제재 압박, 대결에서 올해를 승리의 해로 빛냈다”며 ‘김정은 영도력(1월 6일 수소탄 시험, 8월 24일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증시험 발사, 9월 9일 5차 핵실험 등)’ 찬양(중앙통신·노동신문/희세의 천출 명장을 모시어 우리는 또다시 승리하였다)
  - \* 청년학생 무도회, 12월 30일 당 창건 기념탑·개선문 등 평양과 각 도·시·군 소재지에서 진행 (중앙통신·중앙방송)
  - \* 모란봉극장에서 국립교향악단 음악회 무대 및 강원도·함경남도를 비롯한 각지에서 공연무대 등 군대·인민들 경축(중앙통신)
  - 중앙·지방의 각급 기관·공장·기업소·농장 근로자들 공연과 농구·배구·탁구 등 체육경기도 진행
- 조선인민군 제4차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당 및 국가 표창' 수여식, 12월 30일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노력영웅 칭호와 금메달(마치와 낫) 및 국기훈장 제1급: 고돈하·박용남·최월광, 김일성 시계 표창: 정영남 등 5명, 김정일 시계 표창: 리명철 등 3명, 당 위원장 김정은 표창장: 진봉준 등 14명, 최고사령관 김정은 표창장: 장기영·최천문
  - 공훈어부 칭호: 3명, 국기훈장 제1급: 31명, 노력훈장: 15명, 국기훈장 제2급: 90명, 국기훈장 제3급: 83명
  - 국무위원회 명의로 된 《황금해》 애국주의 우승컵과 《황금해》 애국주의 상장을 올해 물고기 잡이 전투에서 모범적인 수산사업소에 수여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69호(12.23)】 '준법기풍 확립 기여 단위'에 「모범 준법단위 칭호(중구 연료사업소 등 31개 단위)」 수여(중앙방송)
  -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70호(12.23)】 '모범적인 단위'에 「2중26호 모범기대 영예상(김형직 사범대학 등 10개 단위)」·「26호 모범기대 영예상(인민대학습당 등 9개 단위)」 수여(중앙방송)
  -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71호(12.23)】 함흥시 흥남구역에 「모범 교육구역 칭호」 수여(중앙방송)

- 200일 전투기간 '고농률의 현대적인 농기계(탈곡기·토양관리 기계 등) 수많이 창안 제작·도입 및 빠른 기간에 농산작업 기계화비중 60~70% 계획' 선전(중앙통신)
  - \* 철도성의 12월 28일 현재 수송계획 122.7% 수행 등 철도 운수부문의 '12월 수송계획 초과' 달성(중앙방송)
- 올해 문학예술부문(소설·무대예술·노래·장편 서사시·영화예술 부문 등)에서 '명작들 창작, 사회주의 강국건설 투쟁 고무추동'(중앙통신)
- 北 선수들(김광천 등), 제1차 동북아시아 태권도 선수권대회(12.16~18, 중국)에서 19개 금메달 쟁취 및 12월 30일 귀환 소식 보도(중앙통신)

## 12.31(토)

- 김정은 黨 위원장, 사회와 집단에 공헌한 남포 재흥 여객운송 사업소 일꾼 등에 '감사' 전달(중앙방송)
- 【2017년 새해 관련 대내외 동향】
  - \* 駐北 무관단(단장: '로만 오스발도 이메네스 오르페' 쿠바 대사관 무관), 박영식(인민무력상)에게 '김정은 꽃바구니와 축하편지' 12월 31일 전달(중앙통신)
  - \*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과 정당 지도자들 및 각 계 인사들, 김정은에게 연하장(중앙통신)
    - 러시아 대통령, 중국 주석, 라오스 주석, 몽골 대통령, 시리아 대통령, 아르메니아 대통령, 베트남 주석,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 수상 등
- 北, 올해는 당의 과학 중시·인재 중시 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과시된 격동의 해였다고 평가(중앙통신)
  - \* 北, 2016년 10대 최우수 선수·감독 선정 발표(중앙통신·중앙방송)

---

## 대남동향

---

### 12.01(목)

- '국가보안법' 제정 68주년 관련 '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언젠가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누릴 수 없고 남북관계도 개선될 수 없다'며 '인권 불모지·인간 생지옥으로 전락시킨 박OO 역도와 보안법을 쓰레기통에 처넣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 나가자'고 선동(중앙통신·노동신문/시대착오적인 파쇼악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 12.02(금)

-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담화(12.1)】 '고정간첩, 촛불집회 주도설' 거론 '북풍 모략극이朴 대통령의 지휘 조종에 따라 청와대의 지령 밑에 새누리당과 보수단체들에 의해 연출되고 있다'며 '북풍 조작으로 살 구멍을 찾아보려는 망동은 민심의 분노를 더욱 폭발시킬 뿐'이라고 주장(중앙통신·중앙방송)
- 【「교육위원회」 대변인 담화(12.1)】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검토본 공개' 거론 '국정 교과서 추진과정 최순실 게이트 연루'를 주장하며 '박OO 패당이 새 세대들에게 반동적인 역사관과 동족 적대감을 주입하고, 사회 보수화, 반동화를 조장시키려 했다'고 비난(중앙통신)
-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담화 발표(11.29)에 대해 '현 위기 사태에서 빠져나오려는 교활한 오그랑수로서 민심을 우롱하며 거역해나서는 파렴치한 처사'라며 '청와대 마녀에게 다른 길이란 없으며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달게 받는 길만이 있을 뿐'이라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민심을 우롱하는 뻔뻔스러운 처사)
- 통일대회합 북·남·해외측 준비위원회 실무회의(11.30~12.1), 중국 선양에서 진행하고 공동 보도문 발표(중앙통신)
  - 나라의 평화와 북남관계 개선, 조국 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해 전 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반드시 성사시키기로 하였음.
  - 전 민족대회 준비를 위한 북·남·해외 공동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무적 문제들은 앞으로 계속 협의·추진하기로 하였음.

## 12.03(토)

- 【「조평통 정책국」 대변인 담화(12.3)】 남한에서 '안보불안감 유포(국방부 장관·「합참」 의장 등 군부대 시찰 및 '北 도발·위협' 발언·해상 사격훈련 등)'는 "여론의 초점을 안보 문제로 돌려 박OO 역도를 파멸의 위기에서 건져보려는 교활한 술책"이라고 주장(중앙통신·중앙방송)
  - \* 한민구 국방부 장관 발언(11.24,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北 기습도발 가능성 대비 만반 준비 태세' 등) 및 국군 훈련(해상 기동훈련 등) 등 움직임에 대해 "파멸의 위기에 처한 청와대 망령을 구하기 위한 군사적 모략작전"이라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송장을 구하기 위한 모략작전)
- 남한에서 '대중적 반정부 촛불투쟁'은 "낡고 부패한 정치 풍토를 갈아엎고 사회적 정의와 진보를 이룩하려는 의지의 발현"으로 "분노의 촛불은 승리의 횃불로 세차게 타오를 것"이라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분노의 촛불은 승리의 횃불로 타오를 것이다)
  - \*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대통령 퇴진 및 새누리당 해체' 요구 집회(11.30, 12.1)·청와대의 마약류 지정 의약품 구입 등 남한 언론들 인용 보도(중앙통신)

- 【「미군 범죄 진상규명 전민특위 북측본부」 대변인 담화(12.3)】 방위사업청장의 ‘美 차기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 수용’ 표명 등에 대해 “종미근성 망동”이라고 비난 및 “친미 역적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 선동(중앙통신·중앙방송)

## 12.04(일)

- 朴 대통령 ‘대국민 담화’ 거론 ‘교활한 말장난을 일삼으며 놀아댄 추태야 말로 파렴치의 극치’라며 ‘어떻게 해서나 시간을 끌어 형세를 역전시켜 보려는 음흉한 계략에 따른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난(중앙통신·민주조선)
  - \* 北, 朴 대통령의 대구 서문시장 화재 현장 방문 소식을 전하며 ‘지지 세력을 재집결시키기 위한 구걸행각에 나섰다’고 비난(중앙방송)
  - \* 南 전지역, 212만여 명이 6차 범국민 행동을 전개했다고 보도(12.4, 중앙통신) - 시위군중, 청와대 앞 100m까지 전진하여 퇴진 요구
- 【「민화협」 대변인 담화(12.4)】 우리 정부의 對北 ‘독자 제재’ 발표 관련 ‘남북관계의 현 상황에서 독자 제재를 떠드는 추태야말로 절간 돌부처도 양천대소할 짓’이라며 ‘괴뢰 통치기관들을 씨도 없이 청산해 버릴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중앙방송)
- 윤OO 외교부 장관, 호주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對北 공조강화를 위한 협력’ 발언 관련 ‘외세의 힘을 빌어 동족을 모해 압살할 기도를 드러낸 최후발악’이라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제 처지도 모르는 천하역적의 대결망동)

## 12.05(월)

- 대통령의 검찰 조사 거부 및 3차 대국민 담화 발표(11.29) 관련 ‘탄핵 정국을 흘트려 놓는 한편 시간을 얻어 보수 세력을 다시 집결시킬 흥심’이라며 ‘남조선 인민들은 반역의 무리를 모조리 불태워버리기 위한 투쟁을 계속 강도 높히 벌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선동(중앙통신·노동신문/반역정권 유지 음모를 단호히 짓부셔야 한다)

## 12.06(화)

- ‘대통령 퇴진 때까지 계속 투쟁(박OO 정권퇴진 비상 국민행동 성명, 12.4)·질서 있는 퇴진 배경(한겨레 사설)’ 등 남한 언론인용 보도(중앙통신)
- 방위사업청장의 ‘美 차기 정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시 수용 표명’(11.21, 워싱턴)에 대해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어 그의 지지 밑에 반역정권을 유지해 보려 꾀하고 있다”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식민지 노복들의 얼빠진 추태)
  - \* ‘방사청장’ 발언 관련 “너절한 대미조공 외교로 식민지 주구 박OO 패당만이 부릴 수 있는 반민족적 망동”이라고 재차 비난(중앙통신 논평)
- 윤OO 외교부 장관의 오스트리아 방문(제2차 IAEA 핵 안보 국제회의 의장직 수임차)에서 ‘북핵문제 외교(12.5, 오스트리아 외교장관 회담)’를 “反北 제재압박 분위기에

바람을 불어넣어 우리와 끝까지 맞서보겠다는 매국적 망동"이라고 비난(중앙통신·민주조선)

- 남한에서 2일 현재 '조류독감 피해 목장 100여개, 닭·오리 등 가금류 338만 마리 매몰 처리 등 피해 확대' KBS 인용 보도(중앙통신·중앙방송)

## 12.07(수)

- 朴 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발언 관련 '南 각 계층 인민들의 정당한 대중적 항쟁이 안아온 1차적 승리'라며 '反 보수투쟁과 결부하여 폭넓게 진행할 것'을 선동(중앙통신·노동신문/친미 보수 세력을 단호히 짓밟아버려야 한다)

## 12.08(목)

-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발표에 대해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속에서도 북남관계에 대못을 박고 우리(北)에게 양값음을 해보려는 단말마적 발악'이라며 '동족대결에 피를 물고 날뛰는 괴뢰들의 망동은 저들의 수치스러운 파멸만을 더욱 재촉하게 될 뿐'이라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파멸을 재촉하는 독자 제재 소동)
-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 '제 애비의 명예를 회복하고 독재통치를 정당화하려는 박OO의 흥계를 실현하기 위한 역사 날조 망동'이라며 '박OO야말로 순간도 살려두어서는 안될 민족의 특등 재앙거리'라고 비난(중앙통신/독재자의 혼을 대물림하려는 최후 발악)

## 12.09(금)

- 朴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에 대해 "탄핵정국 교란 작전과 시간 끌기 놀음, 통치 위기를 모면하고 임기를 마지막까지 채우기 위한 기만술책"이라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파렴치한 기만술책은 통할 수 없다)
- '대통령의 세월호사건 때 머리 손질, 더민주당 등 야당들의 8일부터 탄핵 통과 철야 투쟁, 대통령 즉각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 투쟁(민노총 등)' 등 남한 언론 인용 보도(중앙통신)
- 남한에서 6일까지 '142개 목장에서 가금류 매몰처리 등 AI 피해 계속 발생', KBS·CBS 인용 보도(중앙통신)

## 12.10(토)

- 北, '박OO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12.9)되어 '대통령의 권한이 상실'되었다고 간략 보도(중앙통신·중앙방송)

-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 부장 박철호, 국회 탄핵안 가결을 거론하며 “박OO는 질서 있는 퇴진, 명예로운 퇴진이요 하면서 잔꾀를 부리기보다 즉시 퇴진할 것을 주장하는 민심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임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대통령 ‘즉시 퇴진’ 선동(평양방송)
- 차 대통령 발언(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 받아들일 것) 거론 ‘식물 대통령의 구차스러운 잔명을 조금이나마 부지해 보려는 어리석은 술책, 무덤 속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민심에 도전하려는 청와대 악녀의 필사적 몸부림’이라고 조소(중앙통신·노동신문/권력 미치광이의 필사적 몸부림)
- 촛불시위 관련 ‘박OO 패당에 대한 쌓이고 쌓인 원한과 울분의 폭발’이라며 ‘희세의 사대매국 정치로 남조선의 식민지 예속성을 심화시킨 추악한 민족 반역무리’라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죄악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어야 한다)

### 12.11(일)

-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발표에 대해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어리석은 망동’이라며 ‘박OO와 그 패당은 헛된 망동에 불과한 제재놀음에 매달릴수록 비참한 종말이 앞당겨 진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비난(평양방송/심술궂은 앙탈질, 헛된 망동에 불과한 제재놀음)

### 12.12(월)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헌법재판소에 ‘차 대통령 탄핵 신속한 결정’ 요구 및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청와대’ 사실 인용 보도(중앙통신)
  - \* 7차 촛불집회(12.10, 서울 등 80여개 지역·104만 명) 전개 및 ‘비상 국민행동’ 주최 집회(12.9, 국회 앞 1만여 명)에서 ‘대통령 퇴진 투쟁 지속 표명’ 등 남한 언론 인용 보도(중앙방송·중앙통신)
- 北 인민군 ‘포병대 집중화력 타격연습 전투비행술 경기대회-2016(12.2-12.4, 보도)은 韓·美(북핵 관련 對北 경제제재 등)에 보내는 준엄한 경고’라며 “우리 군대와 위력한 타격수단들은 최후공격의 신호탄을 기다리고 있다”며 “무자비한 징벌” 위협(중앙통신·노동신문/백두산 총대는 최후공격 명령을 기다린다)
- 윤OO 외교부 장관의 ‘북핵 외교(2차 IAEA 핵안보 국제회의·제4차 韓-아프리카 포럼 등)’에 대해 “외세에 빌붙어 풍비박산 난 대결정책을 되살리고 동족을 끝까지 물어뜯는 데서 살 구멍을 열어보자는 것”이라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제명을 다 산 대결병자들의 발광질)

### 12.13(화)

- 국방부 장관의 對北 발언(北 도발,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과 '비질런트 에이스' 韓美 합동군사훈련 거론 '안보위기와 불안 조성으로 민심의 이목을 딛 데로 돌리고 살 구멍을 열어 보려는 가련한 몸부림'이라며 '북침 전쟁책동에 매달리는 것이 오히려 중국적 멸망을 초래하는 어리석은 짓임을 명심하라'고 위협(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살 구멍을 찾기 위한 필사의 몸부림)
- 南 독자 제재안 발표 관련 '저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도 없는 잡다한 내용들을 박아 넣었다'며 '남북관계에 대못을 박아 양값음을 해보려는 대결 미치광이들의 망상, 허황한 제재타령'이라고 비난(중앙통신/역효과를 몰아올 독자 제재 소동)

### 12.14(수)

- 새누리당의 대통령 탄핵 관련 발언(직접 조사도 없었음, 근거 부족 등)에 대해 '박OO의 퇴진을 막아보려는 파렴치한 추태'라며 '남조선 인민들은 박OO의 즉시 퇴진을 위한 투쟁과 함께 새누리당의 해체를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선동(중앙통신·노동신문/민심을 거역하는 반역집단은 해체되어야 한다)
- 남한의 새누리당 해체 시위를 거론하며 '남조선을 인권과 민주주의 폐허 지대, 부정부패의 소굴로 전락시킨 새누리당에 대한 분노와 저주의 폭발'이라며 '새누리당이야말로 특대형 정치 추문사건의 공범자로서 박OO와 함께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천하 역적 무리'라고 비난(중앙통신/악정과 부패의 온상 새누리당)

### 12.15(목)

- 통일부의 "국제토론회(한반도 국제포럼, 12.2 美 존스홉킨스 대학)"윤OO 외교부 장관의 '북핵 외교' 비난(허망한 망상에 빠진 추태 등) 및 "우리(北)에게는 그 어떤 제재와 압박도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평양방송/대결 광신자들의 단말마적인 모지름)
  - \*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움직임('최대한 신속하게 배치 절차 진행, 내년 5월 완료 방침' 언급 등)에 대해 "남조선 인민들이 그 막대한 비용에 멍에를 메고 더 큰 재앙을 당하게 된다"고 선동(평양방송/멍에는 누가 메는가)
- 정호성(前 청와대 제1 부속실장)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기에 앞서 최순실에게 보낸 문건들이 대량 발견됐다'며 '대통령이 최순실의 조종을 받아왔다'고 연합뉴스 인용 보도(중앙통신)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기자회견(한국으로 돌아간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을 "권력욕에 환장한 자기의 정체를 가리워 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大選 후보로 나설 준비 다 아는 사실)"고 '大選 출마 기정사실' 주장 및 비난(중앙방송)

## 12.16(금)

- 北, 난수방송(01시 15~21분, 금년 총 18회) 재개(평양방송)
-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관련 '제 목에 걸린 올가미를 스스로 조이는 미련한 자살 행위'라며 '박OO와 그 패당은 미련한 제재놀음에 매달릴수록 비참한 종말만이 앞당겨진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비난(평양방송/제 스스로 숨통을 조이는 미련한 망동)

## 12.17(토)

- 박OO 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의 제8차 범국민행동 일정과 투쟁주제 발표 소식을 KBS 방송 인용 보도(중앙통신)
  - \* 北, '南 조류독감 계속 확대로 커다란 피해 초래'(KBS 방송 인용) 보도(중앙통신)

## 12.18(일)

- 서울·광주·부산 등 80여 개 지역 77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2월 17일 "박OO 패당 즉시 퇴진" 8차 촛불집회 소식 남한 언론 인용 보도(중앙통신)
- 대통령 탄핵안 국회통과(12.9)는 '각 계층의 투쟁과 그들과 합세한 야당세력의 적극적인 활동의 결실'이라며 "남조선 인민들은 야당들이 탄핵안 통과에 만족하지 말고 서로 연대하고 더욱 각성되어서 탄핵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요구 한다"고 주장(평양방송/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12.19(월)

- 황OO(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윤OO(외교부 장관)·통일부의 기존정책 유지에 대해 거론 '대세의 흐름과 민심의 지향에 역행하는 반역적인 망동'이라며 '박OO 역도와 같은 가련한 신세를 결코 면할 수 없다'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민심에 역행하는 반역적 망동)

## 12.20(화)

- 우리 軍의 독일산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타우러스) 도입 및 대북 발언(北의 도발 억제, 평양 정밀타격)에 대해 '긴장격화에서 살 구멍을 찾아보려는 무모한 대결망동'이라며 '괴뢰 호전광들은 외세와 야합하여 벌리는 북침 전쟁책동이 저들의 종국적 멸망을 앞당길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청와대 파수꾼들의 히스테리적 광기)

- \* 중앙통신 논평(‘공포에 질린 자들의 히스테리적 광기’)도 우리 軍의 타우러스 도입에 대해 ‘망해가는 제 집안 처지로부터 오는 극도의 불안감에서 벗어나보려는 히스테리적 광기’라고 비난(중앙통신)

## 12.21(수)

- 황OO(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윤OO(외교부 장관)·홍OO(통일부 장관)의 ‘기존 對北·對外 정책 견지’ 표명은 “박OO의 대결정책을 끝까지 유지해 보겠다는 최후 발악 행위·시대착오적인 망동”이라고 비난(중앙통신/대결광에게는 파멸밖에 차례질 것이 없다)
- 야당의 ‘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제출 답변서 비난(터무니없는 변명) 및 憲裁의 조속한 판결 요구’ 등 KBS 인용 보도(중앙통신)
  - \* 민중의 소리(인터넷 신문) 사설, “국민에게 전쟁 선포한 박OO의 답변서”도 인용 보도(중앙통신·중앙방송)

## 12.22(목)

-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南 정보기관이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공민들을 대상으로 탈북 유도책동에 집중하고 있다’며 ‘탈북 선동은 자기 조국, 친 혈육을 갈라놓겠다는 특대형 인권유린 행위’라는 연구자료(12.22) 발표(중앙통신/남조선 괴뢰 당국이 해외에서 벌이는 비열한 반공화국 모략책동의 진상)

## 12.23(금)

- 「남조선 인권 대책 협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사드 배치 결정·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을 거론하며 ‘박OO 패당이 2016년에 저지른 수많은 인권유린 범죄들 가운데 10대 죄악을 조사·발표한다’며 ‘2016년 남조선 인권유린 조사 통보’ 발표(중앙통신·중앙방송)
- ‘민족 반역과 반인민적 악정을 일삼으며 죄악을 덧쌓아온 박OO 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안긴 오늘의 촛불혁명은 남조선 정치의 근본적 변혁을 위한 새로운 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민심을 거역하고 짓밟는 자는 기필코 멸망하기 마련’이라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친미 보수정권의 붕괴와 파멸은 역사적 필연이다)

## 12.24(토)

- ‘朴OO 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의 촛불투쟁 강화(청와대의 대통령 무죄 주장·집권 세력의 탄핵안 결정 지연 시도 관련) 기자 간담회(12.22) 등 남한 ‘통일뉴스’ 인용 보도(중앙통신)

- 국군의 '병종 합동 군사연습(12.22, 양평)'은 "북침 가상 군사훈련"이라고 연합뉴스 인용 비난(중앙통신)

## 12.25(일)

- 北, 12월 25일 00시 15분, 난수방송(12.11. 반복·재방, 금년 총 19회) 재개(평양방송)
- '사드' 조기 배치 움직임 관련 '韓美가 야합하여 사드를 끌어들이며 거래의 생존공간을 핵 참화 속에 몰아넣으려고 최후 발악하고 있는 이상 민족의 운명과 나라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핵 보검을 더욱 억척같이 버려 갈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노동신문/사드 배비를 노린 상전과 주구의 추악한 결탁)
-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교육부 장관 사퇴와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안 결정 요구 및 황교안 권한대행의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는 南 소식 연일 인용(통일뉴스, 민족일보) 보도(중앙통신)
  - \* 北, 9차 범국민 행동이(12.24) 南 전 지역에서 70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개되었다고 보도(중앙통신·중앙방송)

## 12.26(월)

- 칠레 주재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과 중동 주재 현직 대사의 여직원 성희롱 사건을 거론하며 '천하의 썩은 정권, 오물 정권인 박OO 정권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성추문 사건들은 박OO 반역도당의 정치 추문사건과 일맥상통하다'고 비난(중앙통신/달리될 수 없는 오물 정권의 속성)
- 우리 정부의 '제8차 한·미·일 안보회의' 개최(12.16, 서울 국방부 청사) 등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해 '3각 군사동맹 조작책동에 적극 팔 걷고 나서는 추악한 매국배족 행위'라며 '괴뢰들은 외세와 야합하여 감행하는 반공화국 대결망동이 비참한 멸망을 재촉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매국노들의 흥심을 드러낸 모의판)

## 12.27(화)

- 차 대통령 탄핵안 국회통과(12.9) 관련 "현실은 아무리 간교하고 포악한 독재자도 단결된 인민들의 힘과 정의의 투쟁을 결코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단결된 인민의 힘은 누구도 당해낼 수 없다)
- 홍OO 통일부 장관의 '北 인권문제 거론(인권문제 실태조사 추진 등, 12월 18일 통일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대해 '맥이 빠져가는 反北 인권소동에 바람을 불어 넣으려는 추태'라고 비난(평양방송/얼간망둥이의 황당하기 그지없는 인권타령)

## 12.28(수)

- '박OO 역도는 유신 독재자의 본때대로 민족공동의 합의들을 뒤집어엮고 외세와 야합 하여 남북관계를 최악의 파국상태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며 '지금 민심의 촛불은 유신 독재를 부활시켜 민족의 통일염원을 유린해온 역도를 절대로 용서치 않으려는 드높은 의지의 과시'라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유신독재가 되살아난 파쇼 암흑사회)

## 12.29(목)

- 우리 軍에서 올해 실시한 한미연합훈련(키 리졸브, UFG 등)을 거론하며 '올해 남조선 호전광들이 외세와 벌려놓은 침략적인 전쟁연습 소동은 한반도의 긴장격화와 북남관계 파국의 주되는 요인이었다'며 '북남관계 개선의 기회를 파괴한 괴뢰패당의 죄악은 역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평양방송/북침 전쟁소동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한 용납 못할 죄악)

## 12.30(금)

- 北, 12월 30일 01시 15분, 난수방송(12.16. 재방, 금년 들어 총 20회) 재개(평양방송)
- 올해 남한 당국은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완화, 통일과 담을 쌓고 대결정책에 매달리며 反北 압살소동에 광분했다"고 비난하며 '남북관계 파국상태, 남한 책임' 전가(중앙통신·노동신문/반공화국 대결정책은 총 파산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
  - \* 올 한해 남한 정부의 '대결정책의 反北 압살소동 광분, 외세와 공조강화로 체제통일 실현 망동 등 남북관계를 최악의 파국상태로 빠트렸다'고 비난(중앙방송/최악의 북남관계 파국을 몰아온 역적무리)
- 국군 '아파치 헬기' 첫 사격훈련(12.29, 양평)을 "전쟁광란"이라고 연합뉴스 인용 비난(중앙통신)

## 12.31(토)

- 황OO 권한대행의 전방부대 對北 발언(北 도발 시 단호한 응징) 관련 '공화국을 무력으로 해치려는 필사적 몸부림으로 북침전쟁 책동에 미쳐 돌아가는 괴뢰 패당의 반 민족적 정체를 날날이 폭로해주고 있다'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파멸을 모면하기 위한 필사적 몸부림)
- '통일부, 국회 외교통일위 현안보고' 관련 '박OO 역도와 함께 시대착오적인 동족 대결 정책을 붙안고 잔명을 부지해 보려는 어리석은 추태이며 외세에 빌붙어 동족 압살 기도를 기어이 실현해 보려는 민족 반역자들의 추악한 망동'이라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천하 등신의 어리석은 추태)

---

---

## 대외동향

---

### 12.01(목)

- 김정은 黨 위원장, 11월 29일 피델 카스트로 조의식장(쿠바 국립극장)에 환환 전달(11.29, 최룡해 黨 및 국가대표단 단장) 보도(중앙방송·중앙통신)
  - \* 최룡해(黨 부위원장)를 단장으로 한 당 및 국가대표단, 11월 29일 쿠바 아바나 도착(박창을 쿠바 주재 北 대사 등 비행장 出迎) 및 '피델 카스트로 조의(쿠바 국립극장 조의식장)' 표시(중앙방송·중앙통신)
  - \* 김정숙 도서관, 11월 25일 쿠바 김일성 고등학교에 개관(중앙통신)
- 【「외무성」 대변인 담화(12.1)】 유엔 對北제재 결의를 “전면 배격한다”며 ‘자주권·생존권·발전권을 전면 부정한 제재결의 조작은 보다 강력한 자위적 대응조치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위협 및 ‘지역정세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경우 그 책임은 미국이 전적으로 지게 될 것’이라고 책임전가(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최룡해(黨 부위원장), 쿠바 국가이사회 부위원장 면담(국가이사회 청사, 11.30) 및 ‘김정은 위로(慰勞)’ 전달(중앙통신·중앙방송)
  - \* 최룡해(黨 부위원장), ‘피델 카스트로 루스’ 중앙추모대회(11.29) 참가(중앙방송)
- 김준갑 駐기니 北 대사, 同國 대통령 작별(11.26) 방문(중앙방송·평양방송)
- 집단 탈북 여종업원들(12名) 부모, 유엔 인권 고등판문관·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에게(11.28) 편지(중앙통신)
  - 집단 유인 납치를 감행하여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南 당국은 희세의 테러집단, 악마의 집단이다. 자식들이 조국의 품,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데서 유엔 인권 고등판문관 사무소와 유엔 인권이사회의 역할이 중요
  - 남조선 당국의 반인륜 범죄행위를 지속적으로 문제시하고 무조건적이며 즉시적인 송환요구를 들이대는 것으로 피해자들의 소원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리라고 믿고 싶음
- 【주요인물 동정】
  - 김영남,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선포 58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12.1)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 조선노동당 중앙위, 말레이시아 전국 말라이통일당 대회(12.1)에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 총련 조선통신사 대표단(단장: 최홍 사장), 조선중앙통신사 창립 70주년 기념행사 참가차(12.1) 평양 도착(중앙통신·평양방송)
  - 재일 조선학생 소년예술단(단장: 오행덕 총련 중앙상임위 부국장), 12월 1일 평양 도착(중앙통신·평양방송)

## 12.02(금)

- 김정은 黨 위원장 및 박봉주(내각 총리)·리용호(외무상), 라오스 정권 수립 41주년에 즈음하여 同國 대통령(분냥 보라치트) 및 수상·외무상에게 12월 2일 각각 축전(중앙통신)
  - \* 김정은 黨 위원장, 태국 신임 국왕(와치랄롱콘)에게 12월 2일 축전(중앙통신)
-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성명(12.2)】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 관련 '공화국에 대한 전대미문의 극악한 도발로 규탄하면서 단호히 배격한다'며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극악무도한 제재를 초강경 대결전으로 짓뭇개버릴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중앙방송)
  - \* 北 외무성, 유엔 안보리 對北제재 결의 관련 12월 2일 駐北 외교대표들을 위한 통보모임 진행(중앙통신)
  - 한성렬 외무성 부상,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와 관련한 北의 원칙적 입장언급 및 이번 제재결의는 우리(北)의 보다 강력한 자위적 대응 조치를 불러오게 될 것
  - \* 北, 외무성 비망록(11.21, '우리의 핵 무력 강화는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 압살책동에 대처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선택')을 12월 1일 유엔 안보리 공식문건 'S/2016/988호'로 배포(중앙통신·중앙방송)
- 【「조선 평화옹호 전국 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12.2)】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은 '미국의 배후조종과 강박에 의한 것'이라며 '산송장이나 다름없게 된 박OO 패당을 저들의 각본대로 도장을 찍게 만든 것만 보아도 이번 협정이 미국의 정치·군사적 이해관계에서 따른 것이라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비난(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체신성 전파감독국장(리영일),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무선통신국장에게 '남한의 북한 TV방송 주파수 침범' 주장 및 '대책 마련' 촉구 서한 발송(중앙통신·평양방송)
  - 남조선 체신 행정당국은 지금까지도 우리(北)의 TV방송 통로에 심히 간섭을 주는 위반 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결정적이면서도 즉시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제기함.
- 「총련」 조선통신사 대표단(단장 : 최홍 사장)·재일 조선학생 소년예술단(단장 : 오행덕 총련 부국장), 12월 2일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 참배(중앙통신·중앙방송)

## 12.03(토)

- 쿠바 조의 방문 최룡해(北 당 및 국가대표단 단장), 피델 카스트로 사망 관련 쿠바 TV방송과 12월 1일 회견(중앙통신)
- 美 언론·북한 문제 전문가들의 '오바마 행정부와 추종세력(남한·일본 등)의 對北 정책 완전한 실패작' 비평을 전하며 "결국 오바마는 대조선 정책의 완패라는 역사적 책임만을 지게 되었다"고 주장(중앙통신/추풍낙엽의 신세에 대한 조소)
- 박봉주(내각 총리), 12월 2일 '두스코 마르코비치' 몬테네그로 新任 수상에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연맹 위원장(고노에 다다데루) 일행, 12월 3일 평양 도착(중앙통신·평양방송)
- 스웨덴 안전·개발정책 연구소 대표단, 12월 3일 귀국(중앙통신·평양방송)
  - 체류기간 만수대언덕 김일성父子 동상 참배 및 만경대 방문, 장천 남새전문 협동농장·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을 참관
  - 외무성 군축·평화연구소, 대외경제성,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일꾼들과 조선반도 문제 등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해 의견 교환

## 12.04(일)

- 【「외무성」 대변인 중통기자 문답(12.4)】 유엔 안보리 對北제재 지지 유럽 국가들의 '국제적 의무 이행' 요구 관련 '그 어느 국제법전에도 핵심험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된다는 조항이 없다'며 '유럽나라들이 독자성이 있다면 사고와 처신도 그에 맞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중앙통신)
- 北 보건성 대표단(단장: 강하국 보건상), '세계적인 보건혁신을 위한 회의(카타르 도하)' 참가 후 12월 4일 귀환(중앙통신·중앙방송)

## 12.05(월)

- 北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오영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관련 '미국의 대조선 제재가 곧 패배라는 것은 역사와 현실이 증명하는 진리'라며 '진정 전략적 선택을 바꾸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고 주장(중앙통신/미국의 대조선 제재는 패배이다)
- 쿠바 조의 방문 최룡해(北 당 및 국가대표단 단장), 同國 국가평의회 의장(라울 카스트로)과 12월 3일 담화(중앙통신)
  -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를 끊임없이 강화 발전시켜 나갈 것(최룡해)
  - 쿠바는 친선관계를 계속 공고 발전시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조선과 더욱 굳게 손잡고 나갈 것(라울 카스트로)
  - 내각 제1부수상, 혁명무력상, 혁명무력 총참모장, 외무상과도 담화
  - \* 최룡해, 베네수엘라·볼리비아·니카라과 대통령과 12월 3일 각각 담화(중앙통신)
- 北 대표단(단장 : 김영철 전력공업성 1부상), '北-中 수력발전회사 이사회 제68차 회의'(베이징) 참가 후 12월 5일 귀환(중앙통신·중앙방송)
- 쿠바 피델 카스트로 사망 관련 '피델 카스트로는 우리 인민의 친근한 벗이고 영원한 혁명 전우였다'며 '우리(北)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두 나라 사이의 친선 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중앙통신·노동신문/사회주의 한 전호에서 함께 싸워온 혁명전우)

## 12.06(화)

- 【北 상임대표, 유엔 사무총장에게 편지 전달(12.5)】 유엔 안보리 對北제재 결의(2321호)는 “월권행위와 국제기구의 생명인 공정성을 잃고 이중기준 행위를 감행한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의 對北제재 결의의 법률적 근거 해명’ 요구(중앙통신·중앙방송)
- 美 해군연구소의 ‘美 태평양 함대의 해군 원정타격단 시험운영 계획 발표(2017년 말부터 日 사세보항을 모항으로 운영)’에 대해 “미국은 한반도와 亞-太지역 정세를 위협한 국면으로 몰아가는 긴장격화의 주범”이라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무엇을 노린 해군 원정타격단 조직인가)
- 일본 정부의 韓·日 ‘군수지원 협정’ 체결 추진은 “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발악적 책동,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침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망동”이라고 비난(중앙통신·민주조선)
- 주북 베트남 대사(팜 비엣 흥)·대사관 성원들, 12월 6일 ‘김일성 베트남 방문 58주년’ 즈음 김정숙 평양 방직공장·국가 선물관 참관(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내각 총리), 12월 6일 再任 쿠웨이트 내각 수상 ‘자비르 무바라크 알사바’에게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육해운성 대표단(단장 : 강종관 육해운상), 12월 6일 러시아(운수에 관한 제3차 아시아·태평양지역 상급회의 참가, 모스크바) 방문차 평양 출발(중앙통신·중앙방송)
- 訪北(12.3)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연맹 위원장(고노에 다다데루) 일행, 과학기술전당 참관(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최고인민회의의 대표단(단장 : 박명국 외무성 부상), 12월 6일 캄보디아(아시아 의회 회의의 제9차 총회 참석)에서 귀환(중앙통신·중앙방송)
  - 총회에서는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하여 효과적인 평화보장 체제를 수립할 데 대한 내용이 반영된 결의 채택
  - 총회기간 대표단은 캄보디아 국회 의장을 의례 방문했으며 아시아 의회 회의 총서기와 담화

## 12.07(수)

- 【「국제문제 연구소」 공개 질문장(12.6)】 ‘미국이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정치화·극대화함으로써 우리(北)를 고립 압살해 보려는 모략소동에 매여달리고 있다’며 ‘인권실상에 대하여 알기나 하고 날뛰는가’고 공개 질문장 발표(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韓·日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에 대한 美 반응(韓美 연합군의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조치, 환영 등) 관련 ‘미국은 한일 상호 군사지원협정 체결까지 강요함으로써 3각 군사동맹 구축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중앙통신·침략적 군사협정 체결에 뺨친 검은 마수)

- '日, 핵전쟁에 대처한 교육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피훈련 계획' 거론 '남을 걸고 들면서 제 잇속만 챙기는 일본 특유의 간특성과 파렴치성의 극치'라며 '군사대국화와 해외평창 책동을 강화하려 할수록 자멸만 초래할 뿐'이라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재침의 칼을 버리는 사무라이 후예들)
- 허종만(총련 중앙상임위 의장), 日 정부의 對北 독자 제재 강화 결정 관련 '상임협의회'(12.2)를 조직(중앙통신·중앙방송)
  - 日 당국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다양한 형식의 항의투쟁을 전 조직적으로 강력히 벌릴 데 대하여 토의
- 北, 중국 연변대학 교원 '장성일'과 김일성종합대학 중국 박사원생 '우소'에게 언어학 박사 학위(12.7, 만수대의사당) 수여(중앙통신)
- 北 여자 마라톤선수 '김지향', 2016년 마카오 국제 마라톤 경기대회에서 1위 쟁취 후 12월 7일 귀환(중앙통신·중앙방송)

## 12.08(목)

- 태국 왕세자 '마하 바지라롱콘', 김정은 黨 위원장에게(11.30) 답전(중앙통신)
- 유엔의 '인권결의안' 채택(11.15)에 대해 '인권결의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그것을 놓고 가타부타할 일고의 가치도 느끼지 않는다'며 '미국과 그 하수인들은 남을 모해하는 데 열중할 것이 아니라 제 집안의 허물부터 바로잡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고 비난(중앙통신/인권 유린 범죄자들의 궤변은 통할 수 없다)
- 일본군 위안부 관련 '일본은 과거 죄악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는 데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모면하는 데 미쳐 날뛰고 있다'며 '일본 반동들이 지금처럼 오만하게 놀아대다가는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중앙통신·민주조선)
- 김정일 사망(12.17) 5주기에 즈음한 외국선박 선원들의 회고모임(12.8), 청진항에서 진행하고 김정은에게 보내는 편지 채택(중앙통신)
- 「총련」 조선통신사 대표단(단장 : 최홍 사장), 만경대 방문 및 과학기술전당·자연박물관 등 참관(중앙통신·중앙방송)
- 【주요인물 동정】
  - 北 문화성 대표단(단장 : 박춘남 문화상), '제5차 국제 문화연단'(러시아) 참가 후 12월 8일 귀환(중앙통신·중앙방송)

## 12.09(금)

- 【「北赤 중앙위」 대변인 중통기자 문답(12.9)】 '재미동포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美 하원 통과(11.29) 관련 '인도주의의 허울을 쓰고 우리 민족을 분열시킨 범죄자의 흉악한 정체를 감추기 위한 연막'이라며 '미국이 실지로 재미동포들의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정책부터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중앙통신)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감비아 대통령 당선자(아다마 바로우)에게 12월 7일 축전(중앙통신)
-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사죄·배상 회피 및 재침야망 실현 움직임' 비난 및 "일본 열도의 운명이 우리(北)의 핵주먹 안에 들어있다"며 '사죄와 배상' 촉구(중앙통신·노동신문/도덕적 저열성을 드러내는 철면피한 망동)
- 北 노동당 중앙위, 12월 9일 앙골라 인민해방운동 창건 60주년 즈음 '인민해방운동 중앙위'에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당 및 국가대표단(단장: 최룡해 당 부위원장), 12월 9일 쿠바(피델 카스트로 추모 행사 참가)에서 귀환(중앙통신·중앙방송)
- 중국 항일 혁명투쟁 연고자 '주보중 딸 주위' 가족 일행, 12월 9일 '김정일 사망' 5주년 관련 평양 도착 및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 참배(중앙통신·중앙방송)

## 12.10(토)

-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12.9)】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OHCHR)의 '남북 이산가족 문제 조속 해결 촉구 보고서(12.7, 북한의 실종자 소재 파악 및 송환 등)'는 "우리(北)에 대한 적대행위, 공정성·객관성을 내버린 처사"라고 배격 및 '이산가족 상봉 중단은 남한 책임, 중국 북한 식당 女 종업원 납치 주장(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유엔 총회 제71차 회의 3위원회에서 '北 인권' 결의 채택 등 거론 '미국이 세계 인권재판관이라도 된 듯이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감행하는 내정 간섭과 주권 침해 행위야말로 인권에 대한 최악의 도전행위, 인권 말살행위'라며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국'이라고 비난 및 反美투쟁 선동(중앙통신)
-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인권재판관이라도 되는 것처럼 인권 문제를 날조하여 히스테리적 광기를 부리고 있다'며 '다른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 말살하는 미국이야말로 인권 유린의 왕초'라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인권을 패권실현에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北 납치주장 '日 행불자 일본 內 발견 거론' 日 정부는 납치 문제를 구실로 對北 제재조치를 해마다 연장하며 반공화국 책동에 앞장서고 있다'며 '많은 아시아나라 인민들의 피로 손을 적신 일본이 인권옹호자 흉내를 내는 것은 철면피의 극치'라고 비난(중앙통신)

## ■ 【김정일 사망(12.17) 5주기 관련 동향】

- \* 여러 나라 각계 인사들, 11월 23일~12월 7일까지 해당 나라 주재 北 대사관들 방문(중앙통신·중앙방송)
- 이란, 파키스탄, 이집트,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등
- \* 콩고·이탈리아네팔, 11월 26일~12월 4일 ‘업적 토론회와 도서·사진 전시회’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 【주요인물 동정】

- 조선통신사 대표단(단장: 최홍 사장), 조선중앙통신사 창립 70돌 기념행사 참가 후 평양 출발(중앙통신·중앙방송)

## 12.11(일)

- 【「외무성」 대변인 중통기자 문답(12.11)】 유엔 안보리의 ‘북 인권상황 논의’ 회의(12.9) 개최에 대해 ‘악랄한 적대행위’라며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한 초강경 대응으로 철저히 짓부셔 버릴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
-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관련 ‘우리 공화국의 자위권을 부정한 또 한 차례의 월권행위, 주권 침해행위’라며 ‘세계는 공화국이 어떤 대응조치로 어떻게 미국과 유엔의 죄 많은 역사를 끝장내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노동신문/정의와 공정성을 난폭하게 유린한 유엔의 그릇된 처사)
- ‘재미동포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美 하원 통과(11.29)에 대해 ‘반공화국 인권 모략책동을 더한층 강화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라며 ‘미국의 비열하기 짝이 없는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은 파탄을 면치 못한다’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철면피한 망동)
- 김정일 사망(12.17) 5주기에 즈음한 ‘김정일 회고모임’(11.28~12.3), 오스트리아·스위스·독일·체코·베네수엘라에서 진행(중앙방송)
  - \* 김정일 회고위원회, 12월 5일 러시아에서 결성(평양방송)

## 12.12(월)

- ‘美·北 이산가족 상봉(미주 한인과 북한 이산가족) 촉구 美 연방의회 결의안 상원 통과’에 대해 “대조선 인권모략 책동을 한층 강화 위한 기만술책”이라고 비난 및 미국을 ‘이산가족 문제 산생 주범·남북 이산가족 상봉 중단 책임 및 對北 인권 모략책동 철회’ 주장(중앙통신/인도주의 허울을 씌운 새로운 인권 모략안)
- 美 스나이더(美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글은 “北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평가, 北은 대국들도 어찌지 못하는 강국지위에 올라섰다”며 ‘미국의 현실 직시 행동 및 세계는 새로운 조치들을 계속 목격하게 될 것’ 강조(중앙통신·노동신문/최후 승리를 향하여 질풍노도 쳐 나아갈 것이다)

※ 스나이더 글, '현재 미국에서 정권교체가 진척 중에 있고 남한에서 박○○ 추문사건으로 초래된 정치적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상황이 조성된 반면에 조선은 김정은 영도자의 지도 밑에 안정된 보루를 구축하고 명백한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음'(노동신문)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2월 12일 터키 대통령(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에게 '터키 폭탄테러(12.10) 인명피해' 위문 전문(중앙통신)
  - \* 김영남, 12월 12일 케냐 독립 53주년 즈음 대통령(우후루 케니아타)에게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 \* 김영남, 12월 12일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연맹 위원장 일행과 담화(중앙통신·중앙방송)
- 정영철 나이지리아 주재 北 대사, 12월 7일 주재국 인민진보당의 김정일에 대한 '명예 전국지도자 칭호 증서' 및 인민진보당 전국위원장 '선물' 인수(중앙통신)

### 12.13(화)

- 운수에 관한 제3차 아시아-태평양지역 상급회의(40여 개국 400여 명 참가) 진행(12.8~9, 모스크바) 및 의장(러시아 운수상)·부의장(강종관 육해운상, 몽골 대표단 단장) 선출(중앙통신)
  -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제재책동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수송체계 연결 등 지속적 운수발전을 가로막는 실제적 장애물임(北 대표)
  - 회의에서는 새 행동계획 1단계(2017년-2021년) 문건과 회의 진행 정형에 관한 선언이 채택됨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美, 朴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변함없는 韓美 동맹과 협력, 對北 공조' 발언 등 관련 '反美 투쟁으로의 전환을 막고 親美 보수정권을 연장해 보려는 계략과 사드 문제 같은 이익추구만을 꾀한다'며 '이중적 태도와 양면술책'이라고 비난(중앙통신/또다시 드러난 미국의 양면적 정체)
- 일본 정부의 무력증강(사드, 패트리엇-3 요격미사일 등)계획 관련 '자위대를 첨단 무기들로 장비시키고 확대한 다음 임의의 시각 아시아 재침의 길에 뛰어들기 위해서'라며 '재침의 길에 나서는 경우 과연 지구상에서 존재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전쟁국가의 위험천만한 무력증강 책동)
- 리용호(외무상), 이임(離任) 駐北 이란 특명 전권대사와(12.13) 담화(중앙통신)
- 스위스 정부의 對北 지원(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지원) '분유', 남포항에 12.12 도착(중앙통신)
- 駐北 스웨덴 대사관, '루씨아의 날(12.13)' 행사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일 저작(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총련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발표 30주년 기념 총련 중앙연구토론회(12.10), 도쿄 조선회관에서 진행(중앙통신·평양방송)
  - 배익주(총련 부의장), 김성훈(선전문화국장) 등 참가

## ■ 【주요인물 동정】

- 김영남·리용호(외무상), 이집트 폭탄테러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 관련 同國 대통령과 외무상에게 위문전문(12.13) 발송(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용호(외무상), ‘이스탄불 연쇄 폭탄 테러’로 인명피해 발생 관련 터키 외무상(메브루트 카부소글루)에게 위문전문(12.12) 발송(중앙통신)
- 국제 중재기구 최고집행관(Inter-mediate, 런던에 있는 분쟁해결 전문 기구) ‘조너선 파월’과 일행, 12월 13일 평양 도착(중앙통신)
- 멕시코 노동당 전국지도자(알베르토 아나야 구티에레스), 김정은 사망 5주기 관련 김정은에게(12.5) 전문(중앙통신)
- 박용하(在호주동포 전국연합회 회장), 김정일 사망 5주기 관련 12월 13일 평양 도착(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연맹 위원장과 일행, 12월 13일 평양 출발(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12.14(수)

- ‘오직 강한 물리적 힘, 강력한 전쟁 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만이 진정한 평화를 담보할 수 있다’며 ‘우리(北)는 앞으로도 강위력한 핵 억제력에 의거하여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 있게 벌려나갈 것’이라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것은 선군조선의 투쟁 목표)
- 日 아베 총리의 ‘여성이 활약하는 사회’ 슬로건과 ‘여성 활약 추진법’ 제정 등에 대해 ‘기만적인 선전광고에 불과하다’며 ‘여성 인권유린 왕국인 일본은 과거의 성노예 범죄에 대한 청산부터 바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여성 인권에 대해 떠들 체면이 있는가)
-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유엔 대북제재 결의 비난, 12.1)를 12월 13일 유엔 총회와 유엔 안보리 공식문건 ‘A/71/649-S/2016/1023호’로 배포(중앙통신)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이임 주북 이란 대사와 12월 1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수용(당 부위원장), 12월 14일 국제 중재기구 최고집행관(조나탄 포월)과 담화(중앙통신·중앙방송)
  - \* 국제 중재기구 최고집행관, 12월 14일 류경 안과 종합병원 참관(중앙통신)

## 12.15(목)

- 캐나다 외무성 대표단(단장: 사라 테일러 북아시아 및 오세안주 국장), 12월 13~15일 訪北 및 북한 억류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국가 전복 음모죄 무기노동 교화형 선고, 복역 중) 면회(중앙통신)

- 한성렬(외무성 부상) 의례 방문 및 최선희(북아메리카국 국장)와 '北-캐나다 쌍무관계를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 문제와 캐나다 공민 임현수 문제를 비롯해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 토의
- 대표단은 국가전복 음모죄로 무기노동 교화형 선고된 임현수 면회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2월 15일 가나 대통령 당선자(나나 아쿠포-아도)에게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 12월 14일 再選 쿠웨이트 민족회의 의장(마르주끄 알리 알가님)에게 축전(중앙통신)
  - \* 리용호(외무상)도 12월 14일 再任 쿠웨이트 내각 제1부수상 겸 외무상(사바흐 알 할리드 알 하마드 알 사바흐)에게 축전(중앙통신)
- 육해운성 대표단(단장: 강종관 육해운상), 12월 15일 러시아(운수에 관한 제3차 아시아-태평양지역 상급회의 참석, 모스크바)에서 귀환(중앙통신·중앙방송)
- 국제 중재기구 최고집행관(조너선 파월) 일행, 12월 15일 평양 출발(중앙통신·중앙방송)

## 12.16(금)

- 日 외무성 관계자의 발언(北, 일본 위협 시 북한 공격할 수도 있음)에 대해 '정치난쟁이들의 용납 못할 호전적 망발'이라며 '일본 당국자들은 어리석은 망동이 자국에 어떤 참화를 가져다주겠는가에 대해 새겨보고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비난(중앙통신/화를 불러올 어별 큰 망발)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바레인 국경절 55주년에 즈음하여 同國 국왕에게 12월 16일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 12.17(토)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사이비 무당이 주절거린 北 붕괴설을 되받아 외우는 박○○의 요설에 넘어간 오바마가 제창한 것이 전략적 인내'라며 '오바마의 對北 정책은 최대의 실패작, 北 붕괴는 망상'이라고 주장(중앙통신)

## 12.18(일)

- 미국의 차 대통령 탄핵안 국회통과에 대한 "이중적 태도(남한 정치 개입 입장인 반면 사드 배치 역설)"는 "박○○ 퇴진운동이 반미투쟁으로 전환되는 것을 가로막고 남조선에서 친미 보수정권을 유지하려는 음흉한 계략"이라고 '촛불투쟁의 반미투쟁 연계' 선동(평양방송/흥악한 속심, 음흉한 계략의 산물)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2월 18일 카타르 추장(타밈 빈하마드 알 타니)에게 '카타르 독립절'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중 조선인 총연합회 대표단(단장: 차상보 부의장), 만경대 방문 및 국가선물관·하나 음악 정보센터 참관(중앙통신·중앙방송)
- 해외연고자 가족들, 12월 18일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 및 대성산 혁명열사릉 김정숙 동상 참배(중앙통신·중앙방송)
- 조선반도 평화보장 문제에 관한 국제회의 진행(12.15~16, 스웨덴 스톡홀름), 北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일꾼 등 참가(중앙통신)

## 12.19(월)

- 김정일 사망(12.17) 5주기 관련 재일본 조선인 중앙 추모대회·'총련' 사진 전시회·강연회(12.17, 조선문화회관) 개최(중앙통신)
- 駐UN 北 상임대표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편지, 유엔총회와 유엔 '안보리' 공식문건 A/71/672-S/2016/1042호로(12.17) 배포(중앙통신)
- 중국 인민 정치협상회의 전국위 부주석, 김정일 사망 5돌 즈음 중국 주재 北 대표부 방문(중앙방송)
- 【주요인물 동정】
  - 在中 조선인 총 연합회 대표단(단장: 차상보 부의장), 12월 19일 평양 출발(중앙통신)

## 12.20(화)

- 카터 美 국방장관의 대북 발언(북한의 위협은 심각하며 미국만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맞설 수 있는 전력 공급자 등)에 대해 '산송장의 낚두리'라며 '美 집권세력이 우리(北)에 대한 침략과 전쟁책동에 광분할수록 美 본토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노동신문/대조선 침략책동은 실현될 수 없는 망상이다)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재일본 조선인 추모 대표단(단장 : 오형진 재일 조선인 역사연구소 상임고문)과 12월 20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중앙통신)
- 리용호(외무상), 터키 주재 러시아 대사(안드레이 카를로프) 피격 사망 관련 러시아 외무상에게 12월 20일 위문 전문(중앙통신)
- 주북 베트남 대사와 무관, 自國 군대절에 즈음하여 오금철(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등을 초대한 가운데 12월 20일 대동강 외교단회관에서 연회 마련(중앙통신)

## ■ 【주요인물 동정】

- 중국 조선족 기업가협회 대표단(단장 : 표성룡 회장)과 중국 단둥시 조선족 경제 문화교류 협회 대표단(단장 : 김택룡 회장), 12월 20일 평양 출발(중앙통신)

## 12.21(수)

- 김정일 사망(12.17) 5주기 추모행사 참가 재중 조선인 총 연합회 대표단, 김정은에게 12월 19일 편지 전달(중앙통신)
- 美 <NK NEWS> 등 보도(“오바마의 北 붕괴 예고 발언 등 對北 정책 수립 및 실패는 최순실의 암시를 받은 박○○의 입김 작용 때문”)를 전하며 “우리(北)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허재비 같은 박○○의 말만 곧이듣고 분별없이 날뛰던 오바마로서는 참으로 메사하고<sup>11)</sup> 창피하게 되었다”고 조소(중앙통신·노동신문/주구의 장단에 놀아난 오바마의 대조선 정책)
- 중국 <환구시보> 논평(중국, 미국의 위협에 대처할 방도를 핵무력 강화에서 찾고 있음)을 거론하며 “미국의 직접적인 핵위협을 항시적으로 받고 있는 조선의 핵 억제력 강화는 너무도 응당하다”고 ‘北 핵무력 강화 정당성’ 강변(중앙통신·노동신문/우리의 핵 억제력 강화는 정당하다)
- 나토(NATO)의 ‘對北성명 채택(12.15, 북핵·미사일 개발 등 규탄)’에 대해 “미국의 일개 꼭두각시에 불과하며 특히, 괴뢰(\*한국)의 청탁에 움직일 정도로 유명무실한 존재임을 드러냈다”고 반발 및 ‘북핵 권리’ 주장(중앙통신/제 처지 모르는 주제넘은 행위)
- 일본의 ‘北 미사일 위협 부각(北 탄도미사일 발사 가상 주민 대피훈련, 내년 3월 실시 검토 등)’은 “우리(北)의 미사일 위협을 저들의 군비증강 구실로 삼고, 군국주의 해외 침략 준비”라고 비난(중앙통신·민주조선)
- 외무성·대외경제성·대외문화 연락처·외교단 사업총국 등 기관들, 12월 20~21일 주북 러시아 대사관에 화환 전달(터키 주재 러시아 대사 ‘안드레이 카를로프’ 피격 사망 추모) 보도(중앙통신)
  - 신흥철(외무성 부상)·리광근(대외경제성 부상)·서호원(대외문화 연락처 부위원장)·문재철(외교단 사업총국 부총국장) 등 참가
- 리용호(외무상), 12월 21일 독일 외무부 장관(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에게 ‘베를린 트럭 테러(12.19) 위문 전문(‘테러반대 입장 재확인’) 전달(중앙통신)
- 주북 외교·국제기구 대표부 여성들, 12월 21일 ‘김정숙(김정은 祖母) 생일(12.24) 99주년’ 즈음 김정숙 평양 제사공장 참관(중앙통신·평양방송)
  - \* 재일본 조선인 추모대표단(단장 : 오형진 재일 조선인 역사연구소 상임고문), 만경대 방문 및 국가선물관·과학기술전당 등 참관(중앙통신·중앙방송)

11) 메사하다 : 『북한어』 하는 행동이나 모양이 어울리지 않게 싱겁고 썩스럽다.

\* 해외연고자 가족들(중국 항일혁명투쟁 연고자 '주보중 외손녀 주해교' 등), 12월 21일 평천 혁명사적지·과학기술전당·평양 어린이 식료품공장·미림 승마구락부 등 참관(중앙통신)

- 재미 동포 전국연합회 대표단(단장 : 윤길상 회장)·박용하(재오스트레일리아 동포 전국연합회 회장)·김원백(6·15 공동선언 실천 해외 측 쏘 캐나다 서부지역 쏘 위원장), 12월 21일 평양 출발(중앙통신·중앙방송)

## 12.22(목)

- 【「외무성 조약법규국」 국장 담화(12.22)】 유엔 안보리 對北 제재결의 제2321호 관련 '적법성을 상실한 범죄적 문서로 단호히 규탄·배격한다'며 '조선반도에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불과 불이 오가는 전쟁뿐'이라고 위협(중앙통신·중앙방송)

\* 유엔 안보리 對北 제재결의 거론 '韓美는 한반도 핵문제를 산생시킨 장본인'이라며 '北 핵 포기는 실현될 수 없는 허황한 망상, 핵 선제 타격권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고 주장 및 '대결망동이 불러올 것은 무자비한 보복과 징벌의 불세레뿐'이라고 위협(중앙통신·노동신문/어리석은 개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 우리는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얼마든지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음.

- '日 아베 총리, 진주만 방문(12.26~27)하여 전쟁 희생자 위령' 계획 관련 '추악한 평화 기만극의 막을 올리기 위해 놀아대고 있는 추태'라며 '미국을 등에 업고 아태 지역에 대한 지배주의 야망 실현의 중요한 계기로 삼으려 한다'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진주만에서 펼쳐지게 될 추악한 평화 기만극)
- 北 외무성·대외 문화연락위·외교단 사업총국 일꾼들, 베를린 트럭 테러 관련 駐北 독일대사관 12월 22일 조의 방문(중앙통신)

### ■ 【주요인물 동정】

- 박봉주(내각 총리), 레바논 내각수상 임명자(싸아드 하리리)에게 축전(중앙통신)
- 재일본 조선인 추모대표단(단장: 오형진 재일 조선인 역사연구소 상임고문), 12월 22일 귀국(중앙통신·중앙방송)

## 12.23(금)

- 일본 정부의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을 위한 인권토론회 개최 및 대북 단파방송 주파수 확대(2개→3개) 계획 관련 '이미 다 해결된 납치문제를 과거청산 회피를 위한 소재로 삼아보려는 후안무치한 망동'이라며 '일본은 특대형 납치 범죄국으로 인권을 논할 초보적인 자격도 없는 나라'라고 비난(중앙통신/과거청산 회피를 위한 후안무치한 망동)
- 日 외무성 관계자의 발언(北, 일본 위협 시 북한 공격할 수도 있음)에 대해 '대조선 침략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정치 난쟁이들의 용납 못할 호전적 망발'이라며 '일본이

무모하게 재침의 길에 나선다면 차례질 것은 비참한 파멸뿐'이라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정치 난쟁이들의 용납 못할 호전적 망발)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말레이시아 국왕으로 즉위한 '술탄 무하마드 5세'에게 12월 22일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일 사망(12.17) 5주기 재일본조선인 추모 대표단, 김정은에게 12월 22일 편지 전달(중앙통신)
- 주북 무관단,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12.24) 25주년에 즈음하여 김정은에게 꽃바구니와 축하편지 전달(중앙통신)
  -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12월 23일 박영식(인민무력상)에게 전달
- 김철호 수단 주재 北 대사, 주재국 대통령에게 12월 19일 신임장 전달(중앙방송)

## 12.24(토)

- 태국 국왕(마하 와치랄롱꼰), 김정은 축전(국왕 즉위 관련)에 대해 12월 23일 답전(중앙통신)
- 지난 5년간 김정은 영도력(3차례 핵·수소탄 시험 등 병진노선의 사회주의 강국건설) 찬양 및 미국의 對北 적대시 정책(전략적 인내 정책, 제재 등)에 "수소탄 보유 및 핵탄두 폭파시험으로 국가 핵무력 완성의 최종관문을 통과했다"며 '핵무력 강화 정당화 및 不變' 강변(중앙통신/역사가 실증한 가장 정당한 선택)
- 리용호(외무상), 12월 23일 再任 콩고 부수상 겸 및 지역통합상(레오나르 웨 오끼뚏두)에게 축전(중앙통신)
- 중국 항일혁명투쟁 연고자 '주보중 딸 주위' 가족 일행, 12월 24일 귀국(중앙통신·중앙방송)
  - 항일 혁명열사 '장울화' 가족 일행·항일 혁명투쟁 연고자('채세영·호진일·강자화·류통사' 가족)·재중 항일 혁명열사 '박길송' 가족·재중 항일 혁명투사 '서순옥' 가족·해외연고자 '손태원' 가족 귀국

## 12.25(일)

- 【「해외동포 원호위」 대변인 담화(12.25)】 외환법 위반혐의로 총련 일꾼·동포 등에 대한 강제 수색 진행 관련 '총련을 비법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로 왜곡 날조하여 전면 탄압하기 위한 구실 마련이 목적'이라고 비난(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12.26(월)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러시아 군용기 흑해 추락'(12.25, 92명 사망) 사고 관련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12월 26일 위로 전문(중앙통신·중앙방송)

## 12.27(화)

- 김정일 사망(12.17) 5주기에 즈음한 중앙 회고모임, 12월 16일 베네수엘라에서 진행 (중앙통신)
- 【「외무성」 대변인 중통 문답(12.27)】 韓·美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처)' 1차 회의(12.21, 워싱턴) 진행은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고 핵전쟁 위험을 가중시키는 도발책동"이라고 비난 및 '병진노선 고수·핵 무력 질량적 강화' 강조(중앙통신·중앙방송)
- 지난 5년간 김정은 영도력(FOX 뉴스, 김정은의 탁월한 영도·병진노선이 있어 핵·경제·문명강국 건설 성과 이룩)을 전하며 "미국이 대조선 압살공조로 그 무엇을 얻어보려 하는 것은 실현될 수 없는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강조(중앙통신·노동신문/주체의 핵강국의 전진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지 못한다)
- 日 가나가와縣 5개 조선학교 등 보조금 지출 중단 결정을 '조선학생들에 대한 교육비를 가지고 우리(北)와 「총련」을 흔들며 보려는 일본의 책동은 길거리 장사꾼 아낙네의 녹거리<sup>12)</sup> 타산'이라고 '對北 적대시 정책' 비난(중앙통신·민주조선)
- 민주공고 대통령(조셉 카빌라)·캄보디아 국왕(노로돔 시하모니), 김정은에게 '김정일 사망(12.17)' 관련 '위문 전문(12.19·12.8)' 발송(중앙통신·중앙방송)
- 외국선박 선원들, 12월 27일 남포항에서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5주년' 경축모임 (중앙통신·중앙방송)

## 12.28(수)

- '올해도 수소탄시험 등을 통하여 선군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만천하에 떨치며 미국과의 힘의 대결에서 연전연승을 하였다'며 '그 어떤 제재나 봉쇄, 군사적 압력으로도 우리(北)를 놀래우지 못한다'고 강조(중앙통신·노동신문/조선의 힘 꺾을 자 이 세상에 없다)
- '日, 가나가와현 5개 조선 학교들에 대한 보조금 지출 보류 결정' 관련 '고의적으로 조선 학교의 역사교육만 문제시하며 시정을 강요하고 보조금을 낼 수 없다는 것은 이중기준이며 민족차별'이라고 비난 및 '극악한 인권유린 범죄행위이며 정치적 모략'이라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정치 난쟁이들의 극악하고 치졸한 행위)

12) 녹거리 : 『북한어』 ①내용이 보잘 것 없는 것 ②험하고 쉬운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2017년 새해 관련 동향】

- \* 駐北 유엔 개발계획·유엔 인구기금·유엔 아동기금 대표부 성원들, 만수대언덕 김父子 동상(12.28) 헌화(중앙통신·중앙방송)
- \* 리용호(외무상), 팔레스티나 대통령이 전하는 '김정은 꽃바구니'를 駐北 팔레스티나 특명 전권대사 편에 12월 28일 접수(중앙통신·중앙방송)
- \* 리용호(외무상), 駐北 외교단(단장: 팔레스티나 특명 전권대사)이 전하는 '김정은 꽃바구니와 축하편지' 접수(중앙통신·중앙방송)
- \* 駐北 이집트 특명 전권대사와 대사관 성원들, '김정은 꽃바구니와 축하편지' 전달(중앙통신)

## 12.29(목)

- [조선중앙통신사 상보(12.28)] '2016년은 한반도와 지역의 전략구도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난 역사의 해였다'고 평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지역 안정을 위해 인내성 있게 노력하는 것이 일관한 입장'이라고 주장 및 '핵 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지역과 세계 평화수호를 위한 투쟁' 주장(중앙통신/폭제의 핵시대를 끝장낸 조선의 승리)
- 최근 터키·이집트·독일 등에서 발생한 테러 범죄를 거론하며 '범죄 공포증에 걸린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불편함을 자지 못하고 정신분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北)는 그 어떤 광풍이 휘몰아쳐도 끄떡없이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다그쳐나가고 있다'고 강변(중앙통신·노동신문/우리는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다)
- 駐北 세계보건기구·세계식량계획·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 대표부 성원들, 2017년 새해에 즈음하여 12월 29일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꽃바구니 진정(중앙통신·중앙방송)

## ■ 【주요인물 동정】

- 재일동포 조국 방문단(단장 : 시송지), 12월 29일 평양 도착(중앙통신)

## 12.30(금)

- 미국의 韓美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1차 회의(12.21, 워싱턴) 진행 및 韓美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신설은 '對北 핵 선제공격을 위한 것'이라고 비난 및 "핵 무력 백방강화" 강조(중앙통신·노동신문/핵전쟁 광신자들의 위험한 군사적 모의)
- 駐北 경제 및 무역 참사단, 12월 30일 김정은에게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5주년 및 새해(2017)' 즈음 꽃바구니·축하편지 전달(중앙통신·중앙방송)
  - \* 중국 항일 혁명열사 '장울화' 가족, 12월 30일 김정은에게 꽃바구니 전달(중앙통신·중앙방송)
  - \* '정일심' 동포, 12월 30일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헌화 및 김정은에게 꽃바구니 전달(중앙통신·중앙방송)

- 나이지리아 대통령(무함마두 부하리), 12월 30일 김정은에게 새해(2017) 즈음 駐北 나이지리아 대사 통해 꽃바구니 전달(중앙통신·중앙방송)

## 12.31(토)

- 김정은 黨 위원장, 쿠바 혁명승리 58돌 즈음 同國 수상(하울 카스트로 루스)에게 12월 31일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 \* 김정은 黨 위원장, 駐北 쿠바 대사관에 12월 31일 꽃바구니 전달(중앙통신·중앙방송)
  - \* 黨 중앙위 국제부, 외무성, 대외경제성, 대외문화연락위, 駐北 쿠바대사관에 꽃바구니 전달(중앙통신·중앙방송)
  - \* 리용호(외무상), 쿠바 외무상(브루노 로드리게스 빠릴라)에게 12월 31일 축전(중앙통신)
- 김영남, 수단 독립 61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12월 31일 축전(중앙통신)
-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반공화국 대결소동을 미친 듯 감행하며 제재놀음과 인권모략 소동에 매어달리며 체제붕괴를 떠들었으나 패배를 면치 못하였다'며 '새해에도 승리는 우리(北)의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중앙통신/승리는 조선의 것이다)

# 금월의 역사

- 12.01 「국립과학원」 창립일(1952)
- 12.03 「의료법」 채택일(1997)
- 12.05 「조선중앙통신사」 창립일(1946)
- 12.06 「조선 반핵 평화위원회」 결성일(1986)
- 12.06 화학 공업절  
※1979년 10월 16일 제정
- 12.10 「4대 군사노선」 채택(1962)
- 12.13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1991)  
※1992년 2월 19일 발효
- 12.15 「새날 소년동맹」 결성일(1926)
- 12.15 「대안의 사업체계」 수립일(1961)
- 12.15 「KEDO-북한 간 경수로협정」 체결일(1995)
- 12.17 김일성(1942.2.16.~2011.12.17.) 사망일  
※2011년 12월 19일 발표
- 12.24 김정숙(김정일 母, 1917.12.24.~1949.9.22.) 출생일
- 12.24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일(1991)
- 12.26 「조선 불교도연맹」 결성일(1945)
- 12.26 「反日 부녀회」 결성일(1926)
- 12.27 헌법절  
※1972년 12월 27일 「사회주의 헌법」 채택
- 12.28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 설정일(1991)
- 12.30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일(2011)